

# **보령시 지역안전지수 개선 컨설팅**

**2019. 10.**

**보령시**

# 제 출 문

보령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보령시 지역안전지수 개선 컨설팅」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0월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원장 윤 황

## 【 목 차 】

I. 연구의 개요 .....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3
II. 보령시 현황 .....	4
1. 일반현황 .....	4
2. 안전정책 및 조례 .....	7
III. 지역안전지수 .....	9
1. 지역안전지수 개요 .....	9
2. 교통사고 .....	14
3. 범죄 .....	20
IV. 교통사고 및 범죄발생 체감안전도 실증분석 .....	45
1. 응답자의 특성 .....	28
2. 교통사고안전에 대한 인식도 .....	31
3. 범죄안전에 대한 인식도 .....	50
4. 범죄예방활동 .....	87
V. 시민 안전인식 심층인터뷰 결과 및 위험지역 분석 .....	112
1. 조사설계 .....	95
2. 교통안전 체감도 .....	98
3. 범죄안전 체감도 .....	110
4. 심층인터뷰 결과 위험지역 및 요구사항 .....	125
VI. 보령시민 체감안전도 개선을 위한 제언 .....	145

1. 결과요약 .....	145
2. 교통사고 및 범죄 발생 저감과 사망자 감축을 위한 사업 .....	155
[부록] 보령시 체감 안전도 설문지 .....	161

## 【 표 목 차 】

[표 II-1] 보령시 인구 및 세대수 현황 .....	5
[표 II-2] 읍면동 인구현황(2019. 07 기준) .....	5
[표 II-3] 보령시 인구구조 현황 .....	6
[표 II-4] 보령시 민선 7기 안전관련 공약 .....	7
[표 II-5] 최근 3년간 보령 안전관련 조례 공포 현황 .....	7
[표 III-1] 2018년도 지역안전지수 핵심지표 .....	10
[표 III-2] '14년-18년 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	15
[표 III-3] 14년-18년 충남내 시단위 지자체 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	16
[표 III-4] 14년-18년 만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	17
[표 III-5] 14년-18년 충남 내 시단위 지자체 만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	18
[표 III-6] 14년-18년 인구 만명당 보령시 사망자수와 노인 사망자수 .....	18
[표 III-7] 14년-18년 노인 교통사고 만명당 부상자수 비교 .....	19
[표 III-8] 14년-18년 유형별 사망사고 .....	21
[표 III-9] 14년-18년 사고유형별 운전차량 .....	21
[표 III-10] 14년-18년 가해자 단독사고 발생시기 .....	22
[표 III-11] 14년-18년 사망자 발생사고 가해자/피해자 차종비교 .....	23
[표 III-12] 14-18년 사망자 발생사고 연령대별 가해자 차종비교 .....	24
[표 III-13] 14-18년 사망자 발생사고 연령대별 피해자 차종비교 .....	25
[표 III-14] 14-18년 월별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사고 .....	26
[표 III-15] 14-18년 법규위반별 사망자 사고 비율 .....	27
[표 III-16] 14-18년 사고유형별 사망자사고 비율 .....	28
[표 III-17] 14년-18년 안전벨트 착용률 .....	29
[표 III-18] 14-18년 만명당 음주교통사고 발생건수 .....	30
[표 III-19] 교통분야 핵심지표 .....	35
[표 III-20] '18년 보령시 5대범죄 종류별 발생현황 비교 .....	36
[표 III-21] 14년-18년(5년간) 만명당 범죄 종류별 발생패턴 비교 .....	38

[표 III-22] 범죄분야 핵심지표 .....	44
[표 IV-2] 응답자 통계 .....	45
[표 IV-2] 응답자 통계(지파출소별) .....	47
[표 IV-3] 거주지역 교통사고 안전도 인식 .....	48
[표 IV-4] 지구대 및 파출소별 안전도 인식 .....	49
[표 IV-5] 응답자 성별 안전도 인식 .....	50
[표 IV-6] 응답자 연령별 안전도 인식 .....	50
[표 IV-7] 응답자 거주기간별 안전도 인식 .....	51
[표 IV-8] 응답자 직업별 안전도 인식 .....	51
[표 IV-9] 거주지역 교통안전 활동 인식 .....	52
[표 IV-10] 지구대 및 파출소별 교통안전 활동 인식 .....	53
[표 IV-11] 성별 교통안전 활동 인식 .....	54
[표 IV-12] 연령대별 교통안전 활동 인식 .....	54
[표 IV-13] 거주기간별 교통안전 활동 인식 .....	55
[표 IV-14] 직업별 교통안전 활동 인식 .....	56
[표 IV-15] 지역별 교통안전 활동 희망 시간대 .....	57
[표 IV-16] 지구대 및 파출소별 교통안전 활동 희망 시간대 .....	58
[표 IV-17] 성별 교통안전 활동 희망 시간대 .....	58
[표 IV-18] 연령별 교통안전활동 희망 시간대 .....	59
[표 IV-19] 연령대별 교통안전 활동 인식 .....	60
[표 IV-20] 희망 교통안전 활동 .....	61
[표 IV-21] 지구대 및 파출소별 희망 교통안전 활동 .....	62
[표 IV-22] 성별 희망 교통안전 활동 .....	62
[표 IV-23] 연령별 희망 교통안전 활동 .....	63
[표 IV-24] 직업별 희망 교통안전 활동 .....	63
[표 IV-25] 교통사고 우려 이유(중복응답) .....	64
[표 IV-26] 교통사고 발생 관련 요청사항(중복응답) .....	65

[표 IV-27] 거주지역 여성 안전도 인식 .....	67
[표 IV-28] 지구대 및 파출소별 여성 안전도 인식 .....	68
[표 IV-29] 성별 여성 안전도 인식 .....	69
[표 IV-30] 연령별 여성 안전도 인식 .....	69
[표 IV-31] 직업별 여성 안전도 인식 .....	70
[표 IV-32] 심야 시간대 불안 이유(중복응답) .....	71
[표 IV-33] 지구대 및 파출소별 심야 시간대 불안 이유(중복응답) .....	71
[표 IV-34] 성별 심야 시간대 불안 이유(중복응답) .....	72
[표 IV-35] 연령별 심야 시간대 불안 이유(중복응답) .....	73
[표 IV-36] 직업별 심야 시간대 불안 이유(중복응답) .....	74
[표 IV-37] 지역행사 안전도 인식: 외부인 불안감 .....	75
[표 IV-38] 지역행사 안전도 인식: 절도 .....	76
[표 IV-39] 지역행사 안전도 인식: 외지 관광객 폭행 및 살인 .....	77
[표 IV-40] 지구대 파출소별 지역행사 안전도 인식: 외지 관광객 폭행 및 살인 .....	78
[표 IV-41] 성별 지역행사 안전도 인식: 외지 관광객 폭행 및 살인 .....	78
[표 IV-42] 연령별 지역행사 안전도 인식: 외지 관광객 폭행 및 살인 .....	79
[표 IV-43] 지역행사 안전도 인식: 외지 관광객 성희롱 및 성폭력 .....	79
[표 IV-44] 지구대 및 파출소별 지역행사 안전도 인식: 외지 관광객 성희롱 및 성폭력 .....	80
[표 IV-45] 성별 지역행사 안전도 인식: 외지 관광객 성희롱 및 성폭력 .....	81
[표 IV-46] 연령별 지역행사 안전도 인식: 외지 관광객 성희롱 및 성폭력 .....	81
[표 IV-47] 지역행사 안전도 인식: 외지 관광객 시설물 파손 .....	82
[표 IV-48] 지역행사 안전도 인식: 풍기문란 .....	83
[표 IV-49] 지구대 및 파출소별 지역행사 안전도 인식: 풍기문란 .....	84
[표 IV-50] 성별 지역행사 안전도 인식: 풍기문란 .....	84
[표 IV-51] 지역행사 안전도 인식: 풍기문란 .....	84
[표 IV-52] 거주지역 범죄 발생가능성: 외부 강도 .....	85
[표 IV-53] 거주지역 범죄 발생가능성: 성폭행 및 성추행 .....	86

[표 IV-54] 거주지역 범죄 발생가능성: 구타 .....	87
[표 IV-55] 거주지역 범죄 발생가능성: 도난 .....	88
[표 IV-56] 거주지역 범죄 발생가능성: 내부 강도 침입 .....	89
[표 IV-57] 거주지역 범죄 발생가능성: 납치 및 유괴 .....	90
[표 IV-58] 거주지역 범죄 발생가능성: 소매치기 및 날치기 .....	91
[표 IV-59] 거주지역 인식: 이웃 교류 .....	93
[표 IV-60] 거주지역 인식: 장기 거주 희망 .....	94
[표 IV-61] 거주지역 인식: 행사 참석 .....	95
[표 IV-62] 거주지역 인식: 주민 의식 .....	96
[표 IV-63] 거주지역 인식: 이웃 도움 .....	98
[표 IV-64] 거주지역 인식: 경찰 도움 .....	99
[표 IV-65] 거주지역 인식: 지역기관 도움 .....	100
[표 IV-66] 거주지역 위험발생 유형 .....	101
[표 IV-67] 여성·청소년 보호 중점 업무(중복 응답) .....	102
[표 IV-68] 거주지 우려 범죄발생 유형(중복응답) .....	103
[표 IV-69] 거주지 범죄발생 관련 요청사항(중복응답) .....	104
[표 IV-70] 경찰 안전활동 빈도 .....	105
[표 IV-71] 거주지역 순찰활동 인식 .....	106
[표 IV-72] 희망 순찰 시간대 .....	107
[표 IV-73] 희망 순찰 방법 .....	108
[표 IV-74] 범죄예방 논의 횟수: 경범죄 대책 .....	109
[표 IV-75] 범죄예방 논의 횟수: 강력범죄 대책 .....	110
[표 IV-76] 거주지역 안전대책 마련 방법(중복 응답) .....	111
[표 V-1] 심층면접 일정 .....	113
[표 IV-2] 시민들의 교통안전 요구 지점 .....	142
[표 IV-3] 시민들의 범죄안전 요구 지점 .....	143



## 【그림 목차】

[그림 I -1] 경찰대상 교통활동 개선사항에 따른 Word Cluster 분석 결과 .....	2
[그림 II -1] 보령시 현황 .....	4
[그림 III -1] 지역안전지수 산출식 .....	9
[그림 III -2] 교통분야 지역안전지수 산출식 .....	11
[그림 III -3] 범죄분야 지역안전지수 산출식 .....	12
[그림 III -4] 14년-18년 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	15
[그림 III -5] 14년-18년 충남내 시단위 지자체 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	16
[그림 III -6] 14년-18년 만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	17
[그림 III -7] 14년-18년 충남 내 시단위 지자체 만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	18
[그림 III -8] 14년-18년 인구 만명당 보령시 사망자수와 노인 사망자수 .....	19
[그림 III -9] 14년-18년 노인 교통사고 부상자수 비교 .....	20
[그림 III -10] 가해자 단독 사망사고 비율 .....	21
[그림 III -11] 14년-18년 사고유형별 운전차량 .....	21
[그림 III -12] 14년-18년 가해자 단독사고 발생시기 .....	22
[그림 III -13] 14년-18년 사망자 발생사고 가해자/피해자 차중비교 .....	23
[그림 III -14] 14-18년 사망자 발생사고 연령대별 가해자 차중비교 .....	24
[그림 III -15] 14-18년 사망자 발생사고 연령대별 피해자 차중 비교 .....	25
[그림 III -16] 14-18년 월별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사고 .....	26
[그림 III -17] 14-18년 법규위반별 사망자 사고 비율 .....	27
[그림 III -18] 14-18년 사고유형별 사망자 사고 비율 .....	28
[그림 III -19] 14-18년 안전벨트 착용률 .....	29
[그림 III -20] 14-18년 만명당 음주교통사고 발생건수 .....	30
[그림 III -21] 충청남도 교통사고 발생현황 추이 (2013-2017) .....	31
[그림 III -22] 보령시 교통사고 발생현황 추이 (2013-2017) .....	31
[그림 III -23] 유형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 (2013-2017) .....	32
[그림 III -24] 부분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2013-2017) .....	32

[그림 III-25] 법규위반 기준 교통사고 원인 .....	33
[그림 III-26] 시간대별 교통사고 발생 .....	34
[그림 III-27] 5대 범죄 발생 현황 .....	36
[그림 III-28] '18년 보령시 5대범죄 종류별 발생현황 비교 .....	37
[그림 III-29] 09년-18년 만명당 5대 범죄발생건수 .....	37
[그림 III-30] 14년-18년(5년간) 만명당 범죄 종류별 발생패턴 비교 .....	38
[그림 III-31] 연도별 살인 발생 시간 .....	39
[그림 III-32] 연도별 강도 발생시간 .....	39
[그림 III-33] 연도별 강간·강제추행 발생시간 .....	40
[그림 III-34] 연도별 절도 발생시간 .....	40
[그림 III-35] 연도별 폭력 발생시간 .....	41
[그림 III-36] 연도별 살인사건 발생장소 .....	41
[그림 III-37] 연도별 강도사건 발생장소 .....	42
[그림 III-38] 연도별 강간·강제추행 사건 발생장소 .....	42
[그림 III-39] 연도별 절도사건 발생장소 .....	43
[그림 III-40] 연도별 폭력사건 발생장소 .....	43
[그림 V-1] 교통안전에 따른 Word Cluster 분석 결과 .....	115
[그림 V-2] 경찰 순찰에 따른 Word Cluster 분석 결과 .....	117
[그림 V-3] 경찰대상 교통활동 개선사항에 따른 Word Cluster 분석 결과 .....	118
[그림 V-4] 흑포삼거리 신호체계 개선 요구 장소 .....	121
[그림 V-5] 성주삼거리 회전교차로 개선 요구 장소 .....	121
[그림 V-6] 오포2리 마을회관 앞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요구 장소 .....	122
[그림 V-7] 보령시 대상 교통활동 개선사항에 따른 Word Cluster 분석 .....	123
[그림 V-8] 간치역 인근 도로 반사거울(양방향) 설치 요구 장소 .....	125
[그림 V-9] 동대초등학교 주정차 단속 요구 장소 .....	125
[그림 V-10] 주산초등학교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 장소 .....	126
[그림 V-11] 거주지역 내 범죄안전에 따른 Word Cluster 분석 결과 .....	127
[그림 V-12] 거주지역 내 범죄안전 위협요소에 따른 Word Cluster 분석 결과 .....	128

[그림 V-13] 대천5동 펜션단지 도난 위험장소 .....	130
[그림 V-14] 오포2리 농경지 농작물 및 농기계 도난 위험장소 .....	131
[그림 V-15] 도화담 삼거리 인근 농작물 및 기타 도난 위험지역 .....	131
[그림 V-16] 경찰활동 개선에 따른 Word Cluster 분석 결과 .....	132
[그림 V-17] 현수공원 노숙자 위협 방지 요구 장소 .....	133
[그림 V-18] 청소역 인근 방범용 CCTV설치 요구 장소 .....	134
[그림 V-19] 신중위협 인식에 따른 Word Cluster 분석 결과 .....	134
[그림 V-20] 대천2동 지역내 공원 순찰강화 요구 장소 .....	136
[그림 V-21] 대천3동 지역내 공원 조명시설 설치 요구 장소 .....	137
[그림 V-22] 거주지역 내 고령자 안전에 따른 Word Cluster 분석 결과 .....	137
[그림 V-23] 노천1리 마을회관 일대 고령자 절도피해 위험지역 .....	139
[그림 V-24] 거주지역 내 외국인 범죄안전 관련 Word Cluster 분석 결과 .....	139
[그림 V-25] 거주지역 내 관광객으로부터 위협 관련 Word Cluster 분석 결과 .....	141

# I.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2배에 이르고 있어 후진국형 안전수준으로 인한 국가적 위상이 크게 훼손되고 있음.
  - 2018년 기준, 연간 교통사고는 217,148건 사망자 수는 3,781명, 부상자 수는 323,036명으로 1일 평균 사망자 수는 594.9건, 10.4명, 885.0명 임
-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매년 지역의 안전수준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하고 지자체에 지역안전에 대한 개선 노력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 보령시는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기준으로 낮은 등급을 기록한 교통안전 부문과, 외지관광객의 유입이 많은 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범죄로 인한 불안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 본 과제의 목적은 보령시의 취약한 2대 안전 분야에 대한 지역안전지수 산정 지표값 분석을 통해 지역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보령시 지역안전 지수 취약요인을 도출이 이들 취약요인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및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있음

### 2) 연구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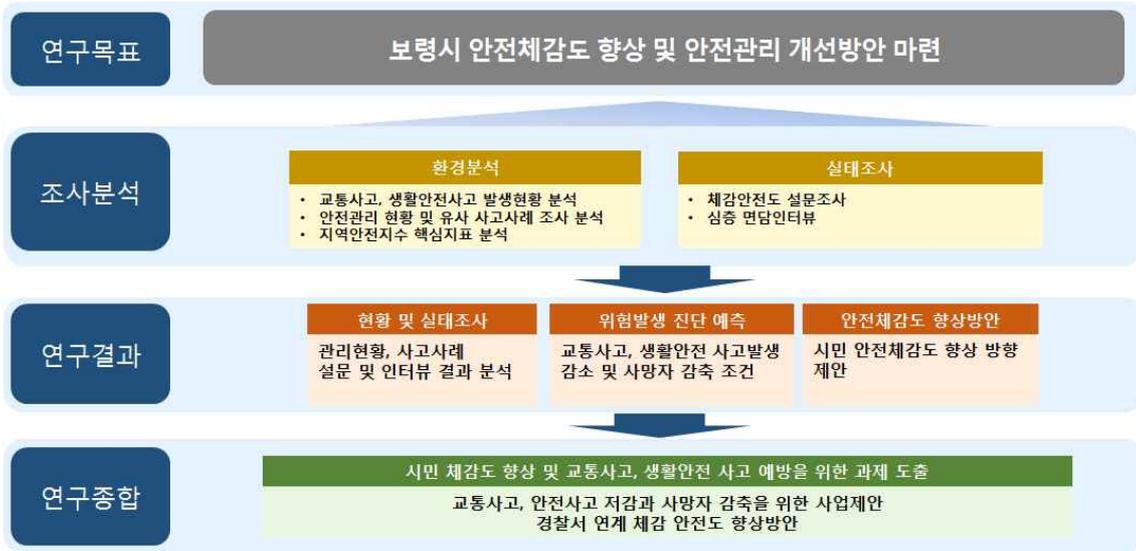
#### (1) 연구내용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보령시 전역
  - 시간적 범위 : 2019년
  - 내용적 범위 :
    - (현황분석) 보령시 안전관리 현황 및 교통사고·생활안전사고 발생 다발 지역 조사

(실태조사)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교통사고, 범죄 분야)  
(심층인터뷰) 집단인터뷰 조사

## (2) 연구방법

- 정보 조사 및 분석 방법
  - 지역안전지수 지표 선정 및 지표값 처리방법, 안전지수 산정방식 검토
  -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안전취약원인 분석, 안전취약요인 도출 방법 검토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추진사업 발굴 내용 검토
  
- 전문가 자문방법
  - 학계 및 관계 연구원에서 활동 중인 4대 안전 분야 및 총괄 분야 전문가를 연구자문위원으로 위촉
  - 자문회의 운영방식은 전문가 개별자문과 전체자문회의 개최 방식을 혼용함
  
- 현황조사
  - 체감안전도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심층 면담 인터뷰 실시
  - 현장방문 실태조사
  
- 연구 흐름도



[그림 1-1] 경찰대상 교통활동 개선사항에 따른 Word Cluster 분석 결과

## 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보령시 및 읍면동의 지역안전지수 취약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효과를 거둬 안전한 충남의 실현에 일조함.
- 지역사회 재난 안전관리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보령시 및 보령경찰서의 안전 분야 시책사업으로 제안

## II. 보령시 현황

### 1. 일반현황

- 보령시는 서해안에 접하여 홍성군 청양군, 부여군, 서천군에 접하고 있음
- 1914년 보령, 남포, 오천군이 보령군으로 통합되었고 1986년 보령군이 보령군과 대천시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1995년 대천시와 보령군이 보령시로 통합이 됨
- － 현재는16개 구역(웅천읍,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청라면, 남포면,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 대천1동, 대천2동, 대천3동, 대천4동, 대천5동)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음



[그림 II-1] 보령시 현황

## 1) 인구 및 세대수

○ 현재 보령시 인구는 약 10만 2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표 II-1] 보령시 인구 및 세대수 현황

구분	인구	세대
2013	104,938	45,455
2014	104,321	45,831
2015	104,754	46,739
2016	103,873	47,011
2017	103,198	47,407
2018	101,990	47,705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보령시 통계연보 2018

- 읍면동별 인구는 대천 1,2,3,4,5동 등 시내권으로 분류된 지역의 인구가 높으며, 주포면, 미산면이 가장 낮음
- 대천 1,3,4동의 경우는 세대수 대비 인구가 많아 세대별 거주자 수가 많으며, 상대적으로 세대별 인구수가 낮은 대천 2동, 5동 및 미산면 등지는 독거세대가 많은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음

[표 II-2] 읍면동 인구현황(2019. 07 기준)

읍면동명	세대	인구	남	여
웅천읍	3,512	6,536	3,308	3,228
주포면	928	1,677	900	777
주교면	2,504	5,493	2,878	2,615
오천면	2,643	5,124	2,716	2,408
천북면	1,881	3,697	1,905	1,792
청소면	1,461	2,724	1,334	1,390
청라면	2,122	4,070	2,054	2,016
남포면	2,755	5,352	2,693	2,659
주산면	1,400	2,559	1,250	1,309
미산면	1,039	1,853	957	896
성주면	1,289	2,406	1,195	1,211
대천1동	6,836	15,611	7,839	7,772
대천2동	3,303	7,376	3,688	3,688
대천3동	7,382	17,482	8,799	8,683
대천4동	5,426	12,610	6,232	6,378
대천5동	3,535	6,771	3,501	3,270
<b>총계</b>	<b>48,016</b>	<b>101,341</b>	<b>51,249</b>	<b>50,092</b>

## 2) 인구구조

-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보다 많고, 전체 인구나 아동인구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와 장애인, 외국인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노인인구비중이 2013년 이미 20%를 넘어선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약 24%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장애인과 외국인 인구비율도 전체의 8.4%와 2.8%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반면 출산율은 2014년 큰폭의 상승을 보인 이후 감소하여 2017년에는 다시 큰폭 하락하여 1.170명을 보임

[표 II-3] 보령시 인구구조 현황

(단위 : 명, %)

구분	남		여		노인		아동		장애인		외국인		출산율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3	53,010	50.5	51,928	49.5	21,139	20.1	17,116	16.3	8,537	8.1	2,070	2.0	1.242
'14	52,668	50.5	51,653	49.5	21,817	20.9	16,444	15.8	8,490	8.1	2,381	2.3	1.384
'15	52,968	50.6	51,786	49.4	22,460	21.4	15,927	15.2	8,457	8.1	2,525	2.4	1.303
'16	52,521	50.6	51,352	49.4	22,968	22.1	15,180	14.6	8,448	8.1	2,628	2.5	1.328
'17	52,214	50.6	50,984	49.4	23,622	22.9	14,577	14.1	8,486	8.2	2,803	2.7	1.170
'18	51,580	50.6	50,410	49.4	24,116	23.6	13,725	13.5	8,601	8.4	2,891	2.8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충청남도 기본통계, 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 법무부 등  
 록외국인 현황, 보령시 통계연보 2018

\* 2018년도 출산율은 미고시

## 2. 안전정책 및 조례

### 1) 민선7기 안전관련 공약

- 재난 안전 기관 간 안전통신망 구축을 통한 효율적 공동대응으로 시민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개선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보령시·경찰(해경)·소방서 간 통합안전시스템 구축이 포함됨

[표 II-4] 보령시 민선7기 안전관련 공약

연번	관리번호	공약구분	공약사항
1	V. 1	건강하고 활기찬 시민중심의 안전도시	경로당,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2	V. 2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
3	V. 3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4	V. 4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5	V. 5		도로변 흡입차량 운행 확대
6	V. 6		응급환자 응급실 획기적 개선
7	V. 7		전문 소아청소년과 확충
8	V. 8		지역안전망 획기적 개선

자료: 보령시청, [http://www.brcn.go.kr/mayor/sub03\\_02.do](http://www.brcn.go.kr/mayor/sub03_02.do)

### 2) 안전관련 조례

- 보령시의 안전관리 관심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최근 3년간 안전관련 조례 제정 및 공포 현황을 살펴보면, 범죄예방,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표 II-5] 최근 3년간 보령 안전관련 조례 공포 현황

구분	조례명	공포일자	비고
안전관리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2016.08.10.	
취약계층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2016.12.20.	
생활안전	보령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2017.01.31.	

민간참여	보령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7.09.20	
취약계층	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2018.08.10	
민간참여	보령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2018.08.10.	2017.01.31. 제정 후 개정
안전관리 민간참여	보령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8.09.20.	2017.05.30. 제정 후 개정
재난관리	보령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2.11.	2017.12.20. 제정 후 개정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Ⅲ. 지역안전지수

#### 1. 지역안전지수 개요

##### 1) 지역안전지수의 정의

○ 2015년 7월 국민안전처가 시범 공개한 것으로 안전에 관한 국가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지자체 안전수준을 분야 별로 계량화한 수치이며 위해지표(사망 자수 또는 사고발생건수), 취약지표(위해 지표를 가중), 경감지표(위해지표를 경감)를 적용하여 산출한 안전에 관한 지역별 지수

※ 7개 분야 :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 ○ 지역안전지수 산출식

– 지역안전에 대한 위험지수는 해당 지자체의 재해사고 결과(사망자수나 발생건수)인 위해지표와 지역의 위해발생 원인이 되는 취약성 지표를 가산하는 반면, 위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경감지표를 감산하여 산출

산출 분야

산출 모형

화재	교통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	----	------	----	------	----	-----

**안전지수 = 100 - ( 위해지표 + 취약지표 - 경감지표 )**

$$= 100 - \left\{ \sum_{i=1}^n (\omega_i \times H_i) + \sum_{j=1}^m (\alpha_j \times C_j) - \sum_{k=1}^o (\beta_k \times M_k) \right\}$$

$\omega_i$  : 위해지표별 가중치       $H_i$  : 위해(harm)지표 점수  
 $\alpha_j$  : 취약지표별 가중치       $C_j$  : 취약(cause)지표 점수  
 $\beta_k$  : 경감지표별 가중치       $M_k$  : 경감(mitigation)지표 점수

[그림 III-1] 지역안전지수 산출식

※ 위해 지표, 취약지표, 경감지표란?

위해지표는 분야별 사망자수 발생건수 등 결과지표이며, 취약지표는 위해 발의 인적 물적 요인이 되는 지표 재난 약자, 하천면적, 기초수급자수 등이며, 감감지표는 위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대응하기 위한 지표 구조구급대원수, 의료기관수 등임

○ 지역안전지수 점수에 따른 안전등급 부여

-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 5개 평가그룹으로 분리하여 등급 부여
- 총 5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간 비율을 시군구 표준편차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 구분

[표 III-1] 2018년도 지역안전지수 핵심지표

분야	위해지표	취약지표	경감지표
화재	환산사망자 (사망자+발생건수) ※ 교통사고 화재 제외	재난약자수 주점업 등 종사자수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업체수	의료인력 발생건수당 화재구조실적 행정구역 면적당 소방서 종사자수
교통 사고	교통사고 사망자수 ※ 고속도로 사망자 제외	재난 약자수 의료보장 사업장수 자동차 등록대수	행정구역 면적당 응급의료기관수 도로 면적당 교통단속 CCTV대수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
범죄	5대 주요 범죄 발생 건수	인구밀도 제조업 업체수 주점업 등 업체수	경찰 종사자수 범죄예방 CCTV대수
생활 안전	생활안전 관련 구급건수	건설업 종사자수 제조업 종사자수 재난약자수	구급센터당 전체 이송건수 의료기관수 행정구역면적당 AED설치대수
자살	자살 사망자수	독거노인수 주점업 등 종사자수 기초수급자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수 자살예방관련기관수 기초생활보장 비율
감염병	법정감염병 사망자수	고령 인구수 의료급여1종 인구수(.070) 건강보험 외래급여일수(.02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085) 취약계층지원 비율(.113) 면적당 지역보건기관수(.052)
자연 재해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 2) 산출방식

### (1) 교통 분야 안전지수

$$\begin{aligned} \text{안전지수} &= 100 - (0.500 \times \text{인구 1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점수}) \\ &\quad - (0.139 \times \text{인구 1만명당 재난약자수 점수}) \\ &\quad - (0.014 \times \text{인구 1만명당 의료보장사업장수 점수}) \\ &\quad - (0.097 \times \text{인구 1만명당 자동차등록대수 점수}) \\ &\quad + (0.080 \times \text{행정구역 면적당 응급의료기관수}) \\ &\quad + (0.076 \times \text{도로 면적당 교통단속 CCTV대수}) \\ &\quad + (0.094 \times \text{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 \end{aligned}$$

[그림 Ⅲ-2] 교통분야 지역안전지수 산출식

#### ※ 핵심지표의미

- 교통사고사망자수: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속도로 사망자 제외
- 재난약자수: (고령인구) 운전자 보행자로서, 신체적 기상환 판단능력 시각적 측면 인지반을 순간대서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음 (유초등학생) 보행자로서 성인보다 판단력 부족, 미완성된 성장단계이기 때문에 취약
- 자동차등록대수: 자동차등록대수 증가 시 승차인원 및 교통사고 발생가능 증가로 사망자수 증가에 영향을 미침
- 의료보장사업 장수: 각종 상업 업무가 집중되는 지역, 교통량 및 보량 집중,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한 시야확보 부족으로 교통사고 발생률 높음
- 기초수급자수: 교통안전 인프라가 취약하여 교통사고 발생률에 영향
- 인구밀도: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자수는 적음
- 구조구급대원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시 긴급환자 구간 및 구급이송 등 신속한 조기대응이 가능한 인적자원이 구축
- 의료기관수: 의료기관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교통사고 초기대응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가 잘 구축 되어 있음

## (2) 범죄 분야 안전지수

$$\begin{aligned} \text{안전지수} &= 100 - (0.500 \times \text{인구 1만명당 5대범죄 발생건수 점수}) \\ &\quad - (0.117 \times \text{인구밀도 점수}) \\ &\quad - (0.027 \times \text{인구 1만명당 제조업 업체수 점수}) \\ &\quad - (0.106 \times \text{인구 1만명당 음식점 및 주점업 업체수 점수}) \\ &\quad + (0.153 \times \text{인구 1만명당 경찰 종사자수 점수}) \\ &\quad + (0.097 \times \text{범죄예방 CCTV대수 점수}) \end{aligned}$$

[그림 III-2] 범죄분야 지역안전지수 산출식

### ※ 핵심지표의미

- 5대 범죄 발생건수 : 절도, 살인(기수·미기수), 강도, 폭력, 강간 발생건수
- 인구밀도 : 행정구역 면적 대비 인구수가 많을수록 범죄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영향을 미침
- 음식점 및 주점업 업체수: 음주가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 경찰 종사자수: 경찰인력이 많으면 범죄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 범죄예방 CCTV: CCTV가 많이 설치되면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 3) 지표 선정과정

- 지표도출 : 재난안전 관련 지표, 통계, 연구문헌 등을 토대로 206개 유관지표 도출
- 핵심지표 : 206개 지표 중 위해지표와 높은 인과관계를 갖는 지표
- 가중치 : 위해지표(종속변수)와 취약지표·경감지표(독립변수) 간 인과관계(상관성)를 기반으로 부여

## 4) 지표 유형

- 위해지표 : 분야별 사망자수 및 발생건수 등 결과지표

○ 취약지표 : 위해발생의 인적·물적요인이 되는 지표(재난약자, 하천면적 등)

○ 경감지표 : 위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지표

## 2. 교통사고

### 1) 교통사고 현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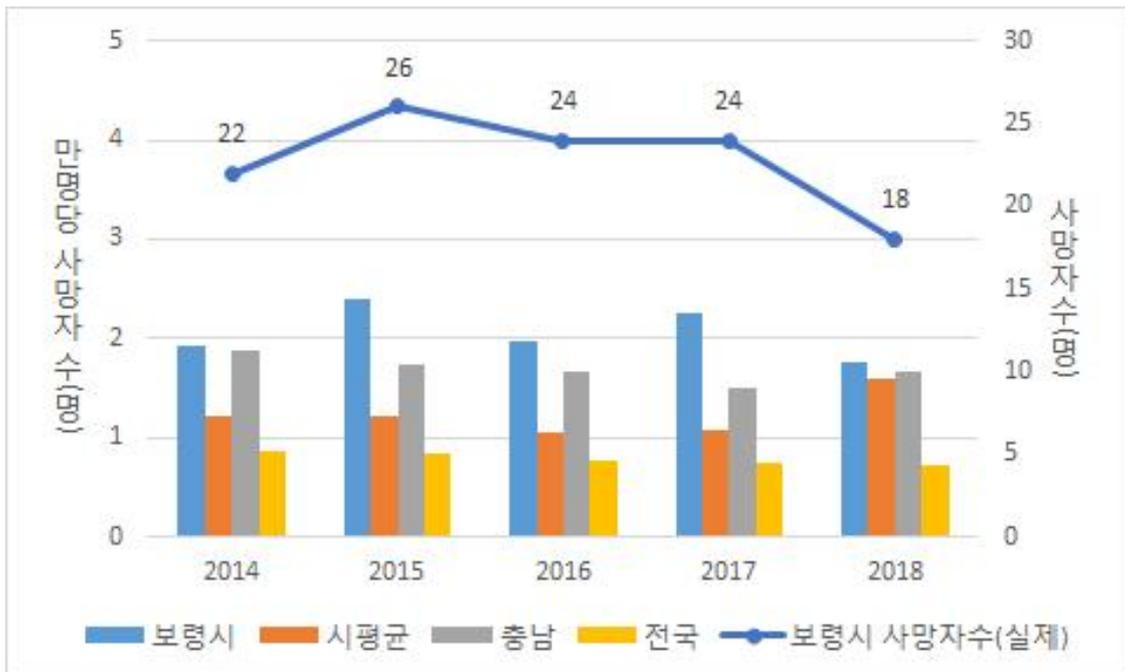
- 보령시의 교통사고분야 안전등급은 5등급으로 최하위권에 속함
  
- 위해지표
  - 인구 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환산한 결과, 보령시의 위해지표는 2.48로, 이는 상위그룹의 지자체의 수치(2.40~2.43)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취약지표
  - 재난 약자수의 경우 지표 값이 3337로 그룹 내, 그룹 간 차이가 뚜렷하지는 않음
  - 기초수급자의 경우 지표 값이 422로 그룹 내 편차가 큰 지역이 있으나, 보령시의 경우 5등급 비교 지자체 중에서는 기초
  - 수급자가 가장 적고, 상위그룹의 양평균, 홍성군 보다는 26%, 31% 많은 수치임 (단, 완주군은 보령시 보다 많음)
  - 의료보장사업장수의 경우 지표 값이 214로 같은 5등급 그룹 내에서 수치가 가장 높음
  - 자동차등록대수의 경우 지표 값이 4459로 같은 5등급 그룹 및 상위그룹에 비해 낮은 수치임
  
- 경감지표
  - 의료기관수의 경우 지표 값이 10.53으로 비교 지자체보다 다소 높은 수치에 해당
  - 인구밀도의 경우 지표 값이 188.41로 같은 5등급 그룹 및 상위등급 비교 지자체 중 2번째로 높은 편에 속함
  - 구조구급대원수의 경우 지표 값이 4.47로 비교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치임

(1) 교통사고 발생현황 (2014~2018)

- 2014년부터 교통사고로 사망한 시민은 추세상으로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이후 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전국, 충남, 도내 시 평균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사망자 수 감소와 충남 내 사망 수를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대한 노력이 요구됨

[표 III-2] 14년-18년 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보령시	1.92	2.39	1.97	2.26	1.76
시평균	1.22	1.21	1.05	1.07	1.59
충남	1.87	1.75	1.67	1.49	1.66
전국	0.87	0.85	0.76	0.74	0.73
보령시 사망자수	22	26	24	24	18



[그림 III-4] 14년-18년 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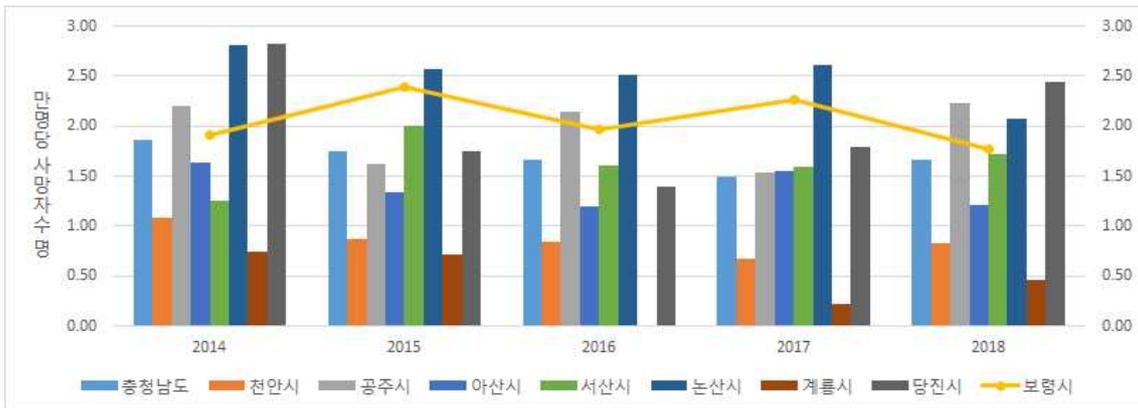
- 보령시는 당진, 공주, 논산 순서로 4번째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서산시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같은기간 도내 시 지역의 자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한 것에서는 중위수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도내 시 지역들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때문으로 풀이됨

[표 III-3] 14년-18년 충남내 시단위 지자체 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충청남도	1.87	1.75	1.67	1.49	1.66
천안시	1.09	0.87	0.85	0.68	0.84
공주시	2.20	1.62	2.15	1.54	2.23
보령시	1.92	2.39	1.97	2.26	1.76
아산시	1.63	1.34	1.20	1.56	1.21
서산시	1.25	2.00	1.60	1.59	1.72
논산시	2.80	2.58	2.52	2.62	2.08
계룡시	0.74	0.72	0.00	0.23	0.46
당진시	2.82	1.76	1.40	1.79	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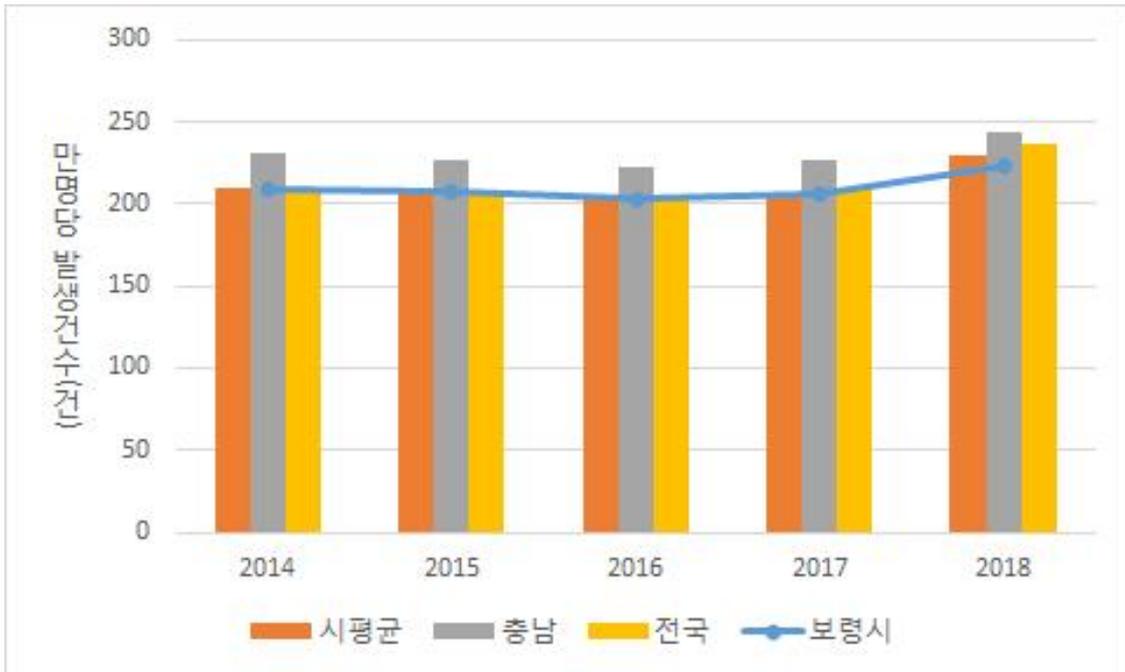


[그림 III-5] 14년-18년 충남내 시단위 지자체 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 전국 수준과 비교하여 같은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비교한 자료에서도 보령시는 전국평균과 충남 및 시 평균 수준보다 다소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발생건수가 유사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 발생이 현저히 높은 것은 사고 발생이후 사망으로 이어지는 위험 비율이 높은 것을 의미함

[표 Ⅲ-4] 14년-18년 만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보령시	208.68	207.63	203.47	206.41	223.55
시평균	210.28	206.28	202.91	207.09	229.02
충남	231.08	226.89	222.66	226.56	243.54
전국	208.74	206.87	205.44	210.17	236.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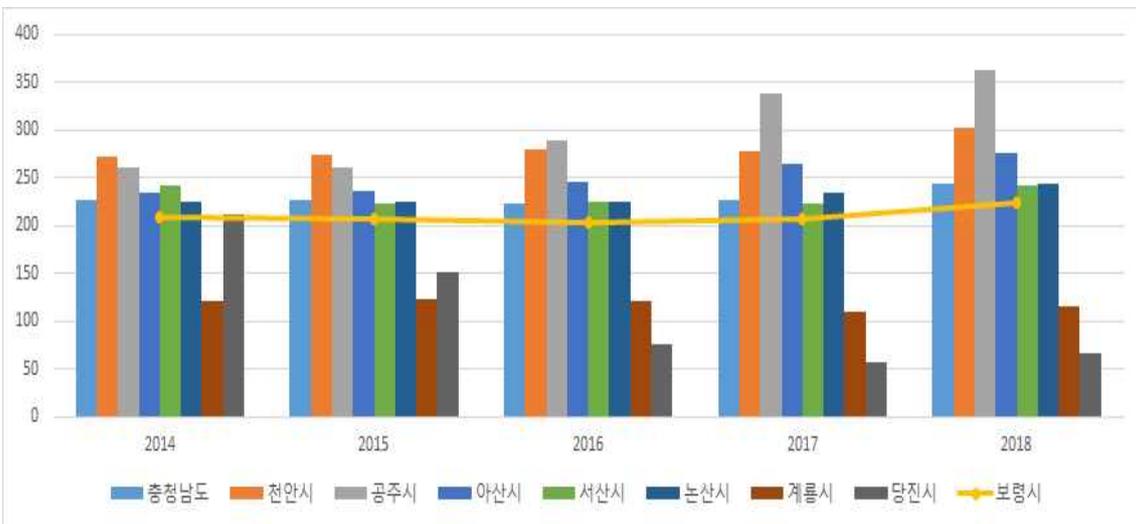


[그림 Ⅲ-6] 14년-18년 만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 도내 시 단위 간의 비교에서도 만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당진, 계룡, 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임
- 발생 건수 대비 사망자 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풀이됨

[표 Ⅲ-5] 14년-18년 충남 내 시단위 지자체 만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충청남도	226.89	226.89	222.66	226.56	243.54
천안시	272.77	273.67	278.85	277.12	302.78
공주시	261.13	261.10	289.59	338.23	363.26
보령시	208.68	207.63	203.47	206.41	223.55
아산시	234.59	235.64	246.38	264.18	275.24
서산시	241.27	222.58	224.08	222.28	242.02
논산시	225.11	225.63	225.16	233.93	244.53
계룡시	121.33	122.21	120.45	109.34	115.25
당진시	211.86	152.01	75.06	56.19	6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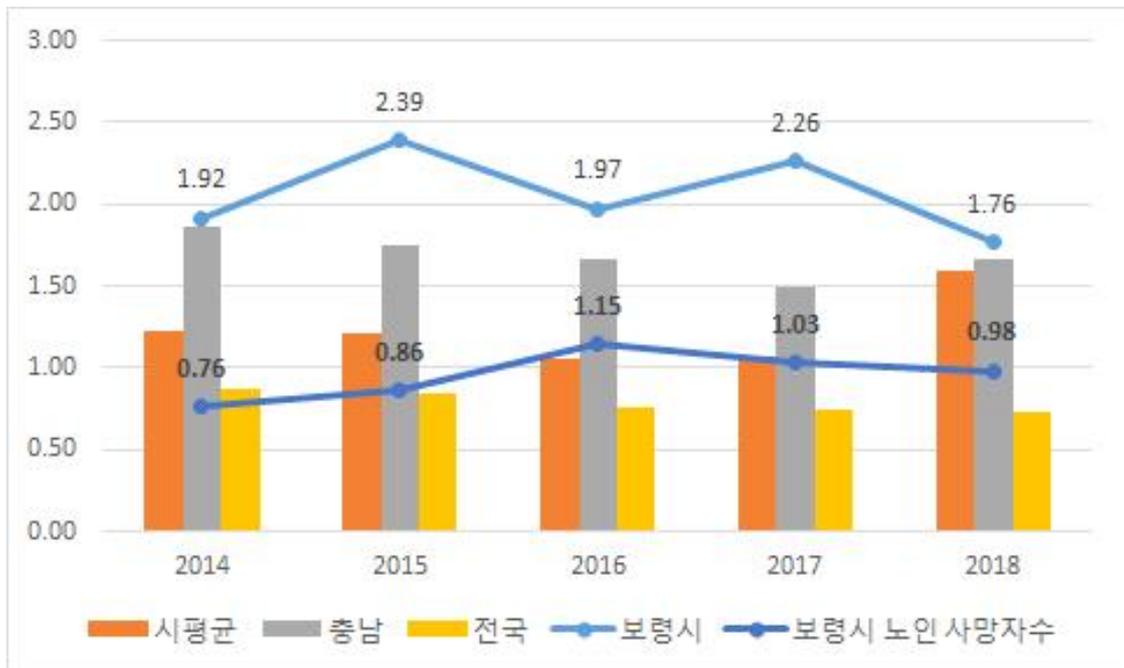


[그림 Ⅲ-6] 14년-18년 충남 내 시단위 지자체 만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 같은기간 중 인구 만명당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와 노인사망자 수를 비교하면, 노인사망자 수는 0.98명으로, 전체 사망자 수가 1.76명인데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Ⅲ-6] 14년-18년 인구 만명당 보령시 사망자수와 노인 사망자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보령시	1.92	2.39	1.97	2.26	1.76
시평균	1.22	1.21	1.05	1.07	1.59
충남	1.87	1.75	1.67	1.49	1.66
전국	0.87	0.85	0.76	0.74	0.73
보령시 노인 사망자수	0.76	0.86	1.15	1.03	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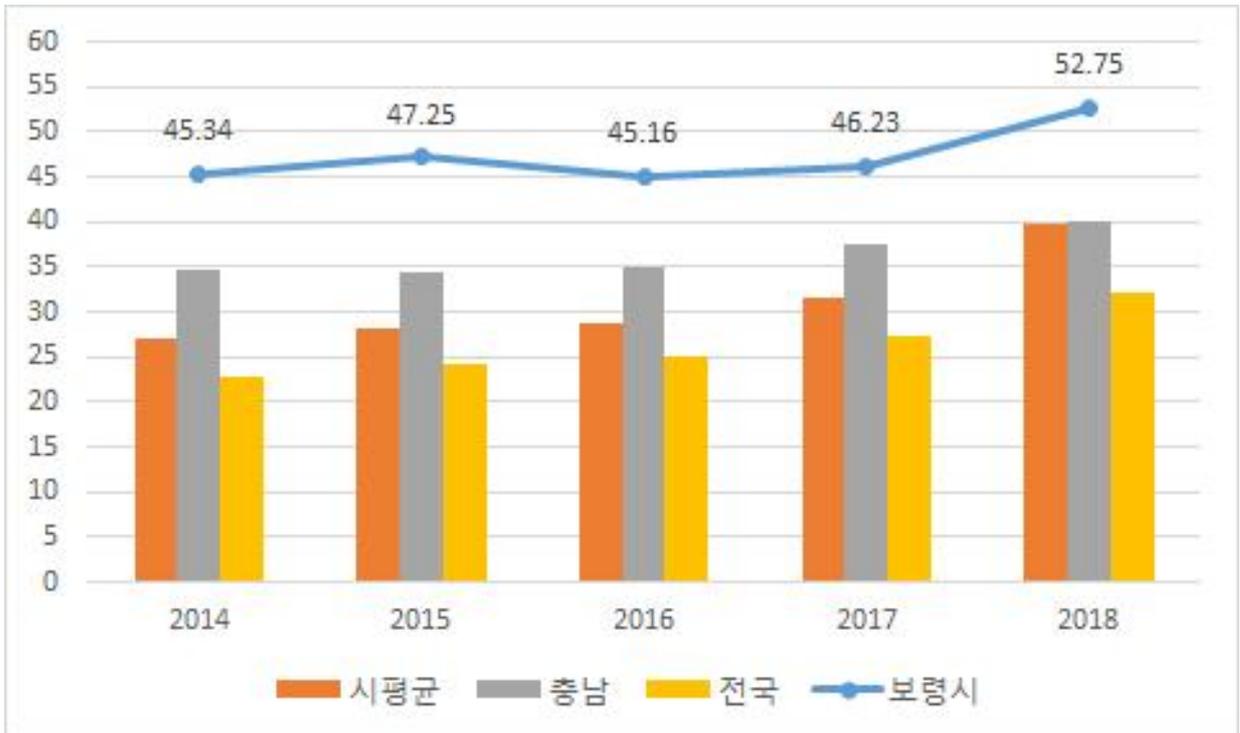


[그림 III-8] 14년-18년 인구 만명당 보령시 사망자수와 노인 사망자수

○ 같은 기간 도내 시 지역의 자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한 것에서는 중위수 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도내 시 지역들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때문으로 풀이됨

[표 III-7] 14년-18년 노인 교통사고 만명당 부상자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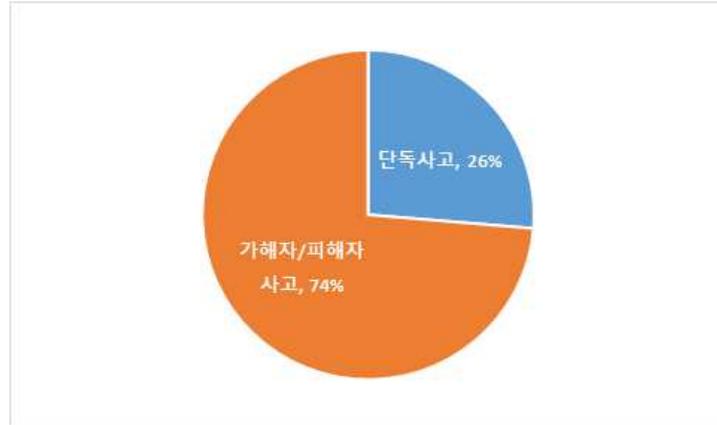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보령시	45.34	47.25	45.16	46.23	52.75
시평균	26.93	28.13	28.87	31.55	39.78
충남	34.57	34.41	35.02	37.53	40.01
전국	22.87	24.11	25.07	27.25	32.18



[그림 Ⅲ-9] 14년-18년 노인 교통사고 부상자수 비교

[표 III-8] 14년-18년 유형별 사망사고

구분	14-18 전체 사망	가해자 단독 사망	가해자/피해자 사고
건수	114	30	84
비율	100%	26%	74%



[그림 III-9] 가해자 단독 사망사고 비율

[표 III-9] 14년-18년 사고유형별 운전차량

구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원동기	자전거	건설기계	농기계	보행자
가해	54	4	16	0	4	1	0	2	3	0
피해	6	4	14	0	1	1	4	4	2	43
단독	10	1	7	0	7	1	0	0	4	0



[그림 III-11] 14년-18년 사고유형별 운전차량

[표 III-10] 14년-18년 가해자 단독사고 발생시기

구분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건수	108	60	65	81	85	74	81	100	66	76
비율 (%)	10.79	5.99	6.49	8.09	8.49	7.39	8.09	9.99	6.59	7.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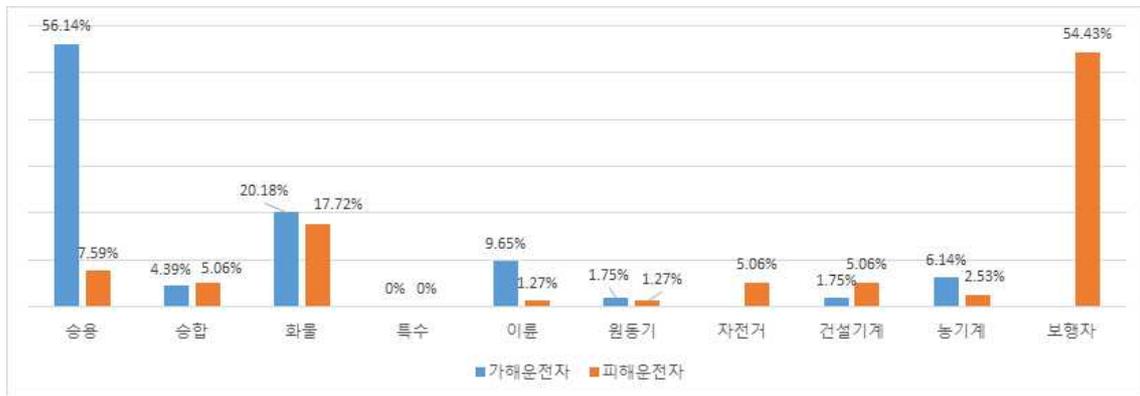


[그림 III-11] 14년-18년 가해자 단독사고 발생시기

[표 III-11] 14년-18년 사망자 발생사고 가해자/피해자 차종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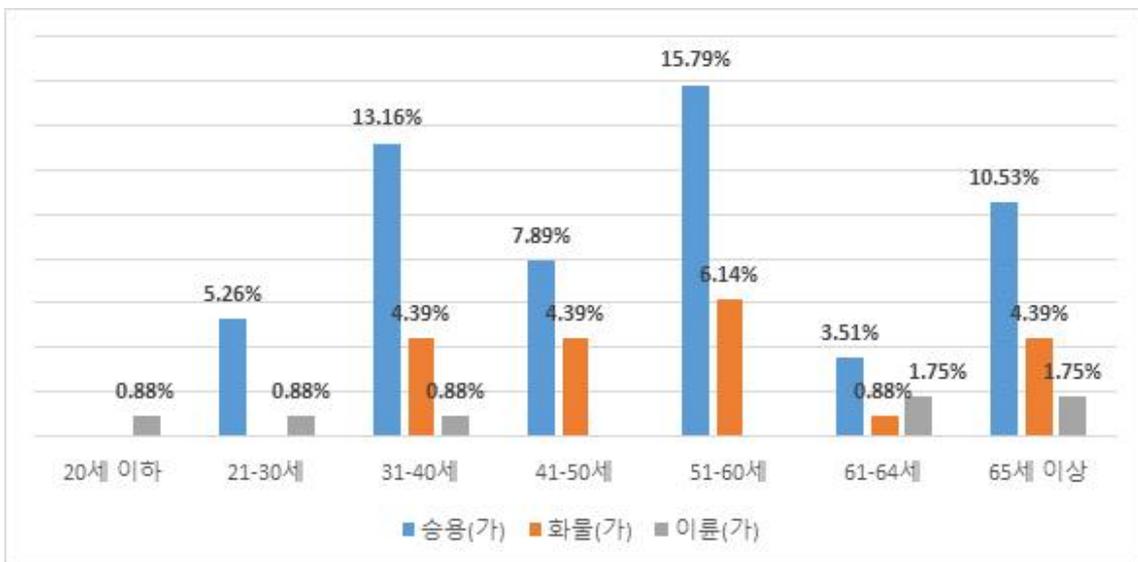
구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원동기	자전거	건설기계	농기계	보행자
가해운전자	56.14	4.39	20.18	0	9.65	1.75	0	1.75	6.14	0
피해운전자	7.59	5.06	17.72	0	1.27	1.27	5.06	5.06	2.53	54.43



[그림 III-13] 14년-18년 사망자 발생사고 가해자/피해자 차종비교

[표 III-12] 14-18년 사망자 발생사고 연령대별 가해자 차종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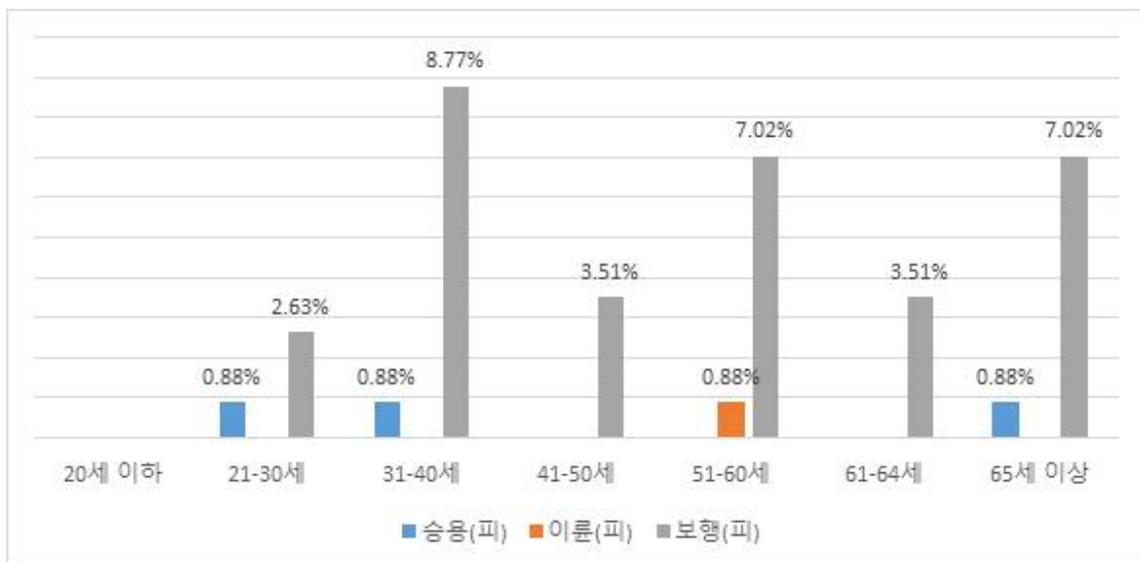
구분	승용(가)	화물(가)	이륜(가)
20세 이하	0%	0%	0.88%
21-30세	5.26%	0%	0.88%
31-40세	13.16%	4.39%	0.88%
41-50세	7.89%	4.39%	0%
51-60세	15.79%	6.14%	0%
61-64세	3.51%	0.88%	1.75%
65세 이상	10.53%	4.39%	1.75%



[그림 III-14] 14-18년 사망자 발생사고 연령대별 가해자 차종비교

[표 III-13] 14-18년 사망자 발생사고 연령대별 피해자 차종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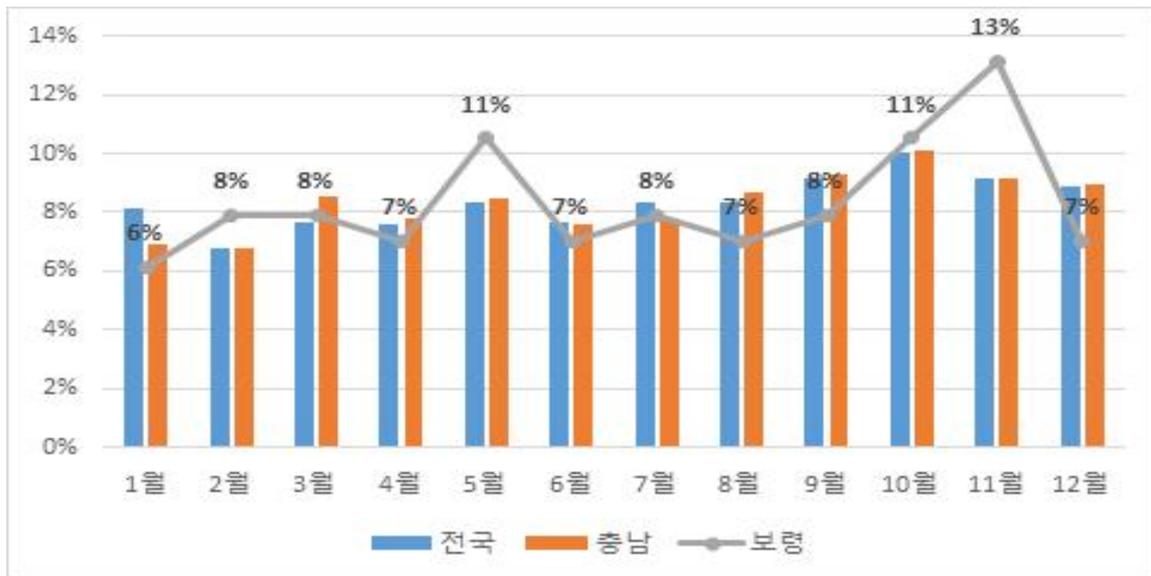
피해	승용(피)	이륜(피)	보행(피)
20세 이하	0%	0%	0%
21-30세	0.88%	0%	2.63%
31-40세	0.88%	0%	8.77%
41-50세	0%	0%	3.51%
51-60세	0%	0.88%	7.02%
61-64세	0%	0%	3.51%
65세 이상	0.88%	0%	7.02%



[그림 III-15] 14-18년 사망자 발생사고 연령대별 피해자 차종 비교

[표 Ⅲ-14] 14-18년 월별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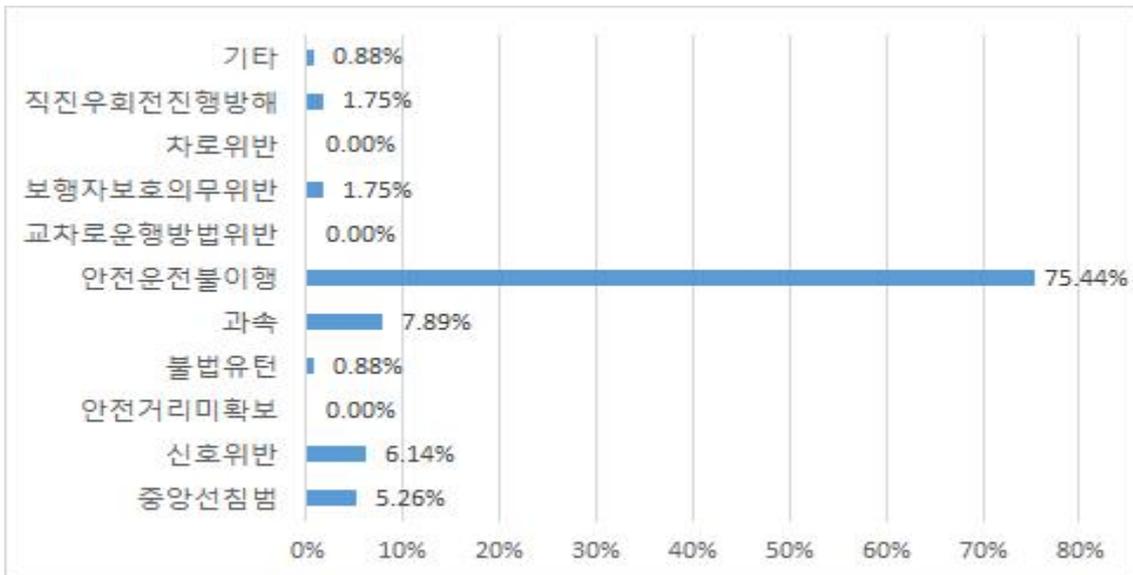
구분	전국	충남	보령
1월	8%	7%	6%
2월	7%	7%	8%
3월	8%	9%	8%
4월	8%	8%	7%
5월	8%	8%	11%
6월	8%	8%	7%
7월	8%	8%	8%
8월	8%	9%	7%
9월	9%	9%	8%
10월	10%	10%	11%
11월	9%	9%	13%
12월	9%	9%	7%



[그림 Ⅲ-15] 14-18년 월별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사고

[표 Ⅲ-15] 14-18년 법규위반별 사망자 사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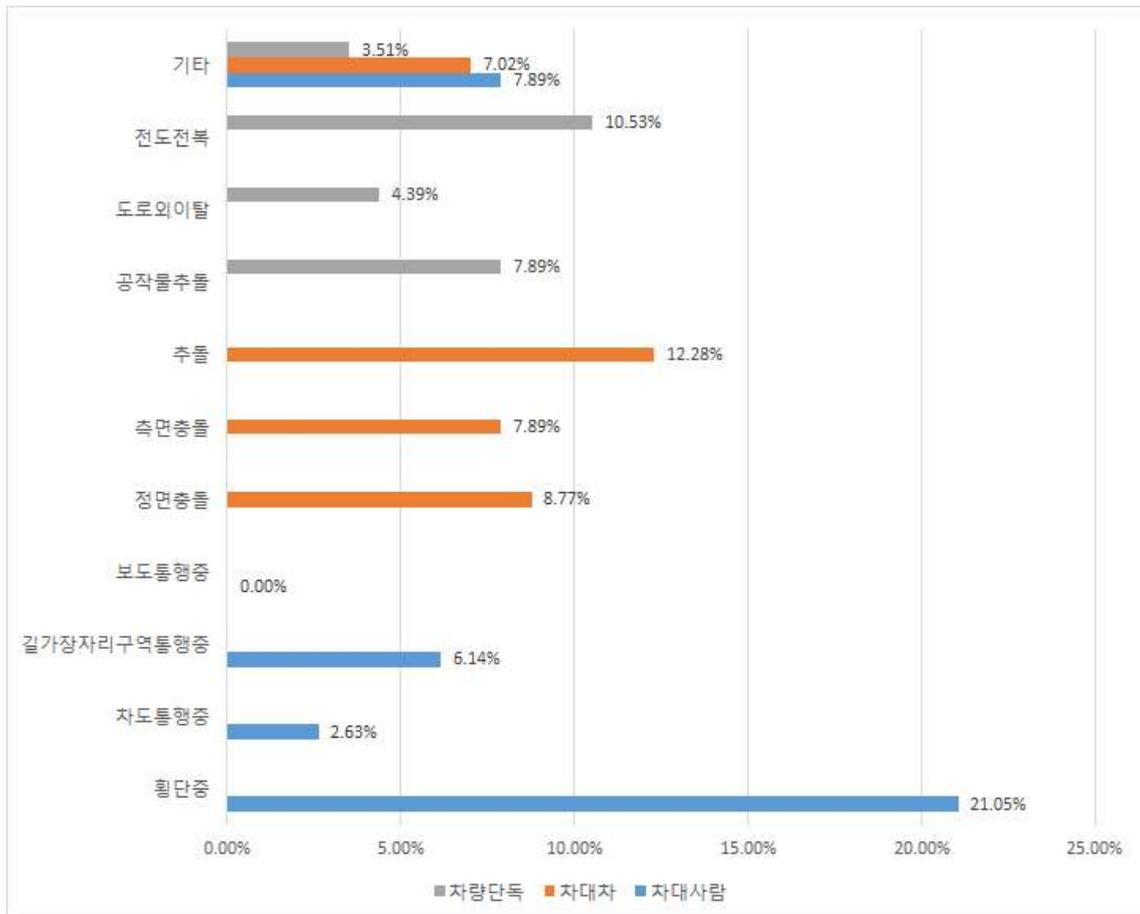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중앙선침범	9%	0%	8%	8%	0%
신호위반	5%	4%	13%	4%	6%
안전거리미확보	0%	0%	0%	0%	0%
불법유턴	0%	4%	0%	0%	0%
과속	9%	19%	8%	0%	0%
안전운전불이행	73%	73%	67%	79%	89%
교차로운행방법위반	0%	0%	0%	0%	0%
보행자보호의무위반	5%	0%	4%	0%	0%
차로위반	0%	0%	0%	0%	0%
직진우회전진행방해	0%	0%	0%	8%	0%
기타	0%	0%	0%	0%	6%
미분류	0%	0%	0%	0%	0%



[그림 Ⅲ-17] 14-18년 법규위반별 사망자 사고 비율

[표 III-16] 14-18년 사고유형별 사망자사고 비율

구분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횡단중	21.05%		
차도통행중	2.63%		
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	6.14%		
보도통행중	0.00%		
정면충돌		8.77%	
측면충돌		7.89%	
추돌		12.28%	
공작물추돌			7.89%
도로외이탈			4.39%
전도전복			10.53%
기타	7.89%	7.02%	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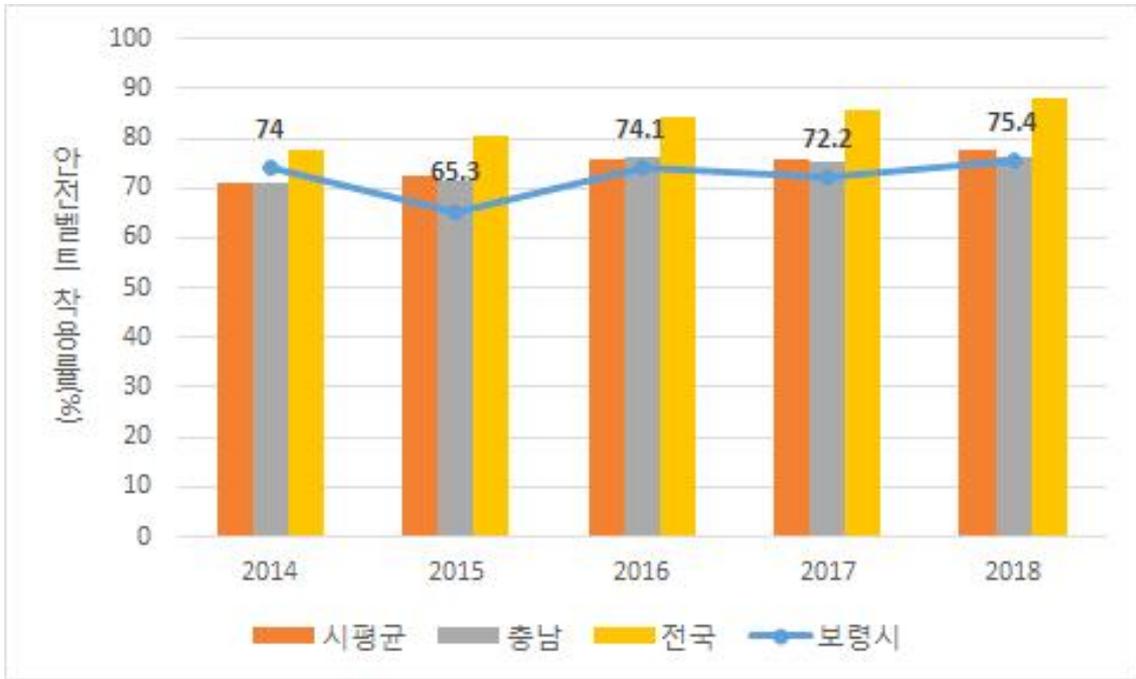


[그림 III-17] 14-18년 사고유형별 사망자 사고 비율

[표 III-17] 14년-18년 안전벨트 착용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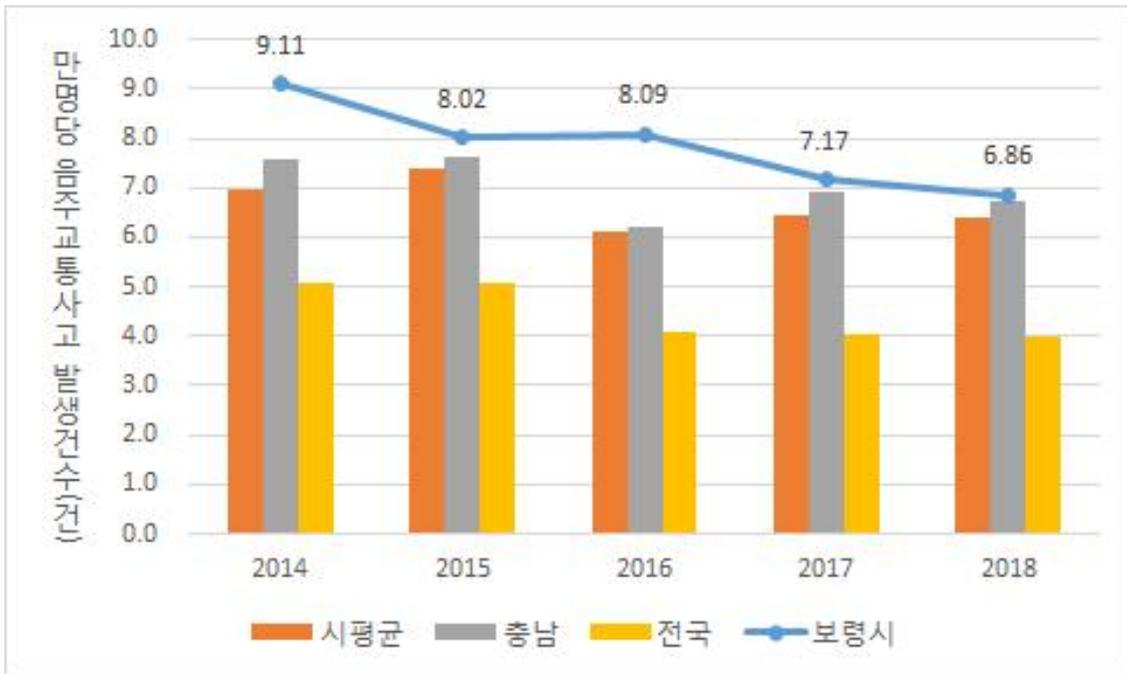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보령시	74	65.3	74.1	72.2	75.4
시평균	71	72.5	75.8	75.9	77.5
충남	70.9	71.7	76.2	75.5	76.3
전국	77.7	80.4	84.5	85.8	87.9



[그림 III-19] 14-18년 안전벨트 착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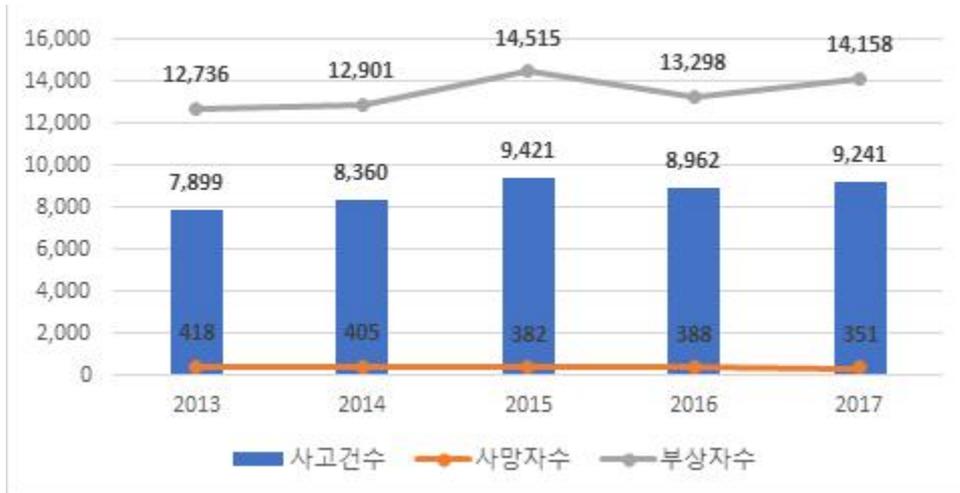
[표 III-18] 14-18년 만명당 음주교통사고 발생건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보령시	9.11	8.02	8.09	7.17	6.86
시평균	6.95	7.40	6.11	6.43	6.42
충남	7.57	7.62	6.20	6.90	6.73
전국	5.09	5.10	4.10	4.02	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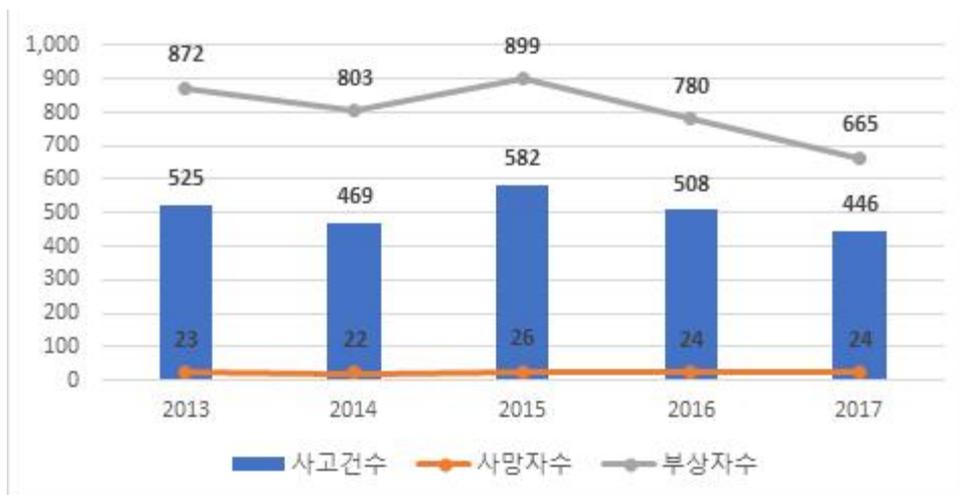
[그림 III-20] 14-18년 만명당 음주교통사고 발생건수

○ 충남도 전체의 교통사고 발생은 등락이 있으나 증가 추세에 있음



[그림 III-21] 충청남도 교통사고 발생현황 추이 (2013-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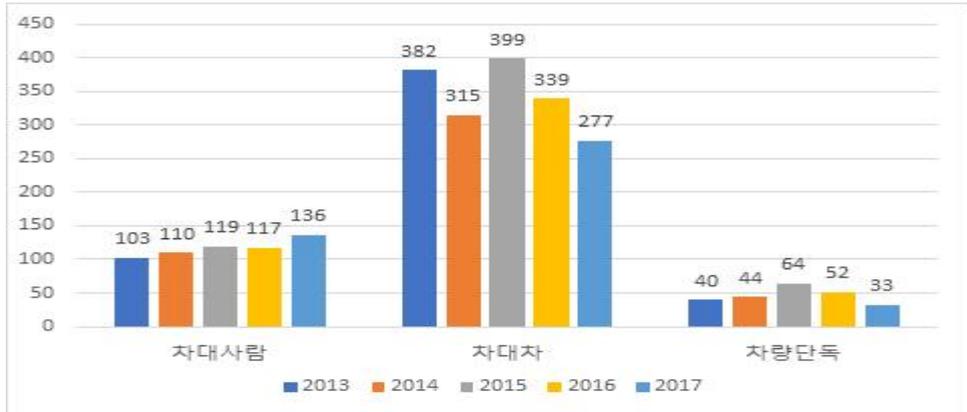
- 보령시는 2013년 이후 2017년 까지 지속적으로 지표가 감소하여 교통사고 발생과 이로 인한 부상자 수가 감소하고 있음
- 그러나 외부 관광객 등 사고 발생 변수가 상존하는 만큼 등락폭의 격차가 커 사고감소가 정책적 성공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림 III-22] 보령시 교통사고 발생현황 추이 (2013-2017)

## (2) 교통사고 유형별 발생건수 (2013~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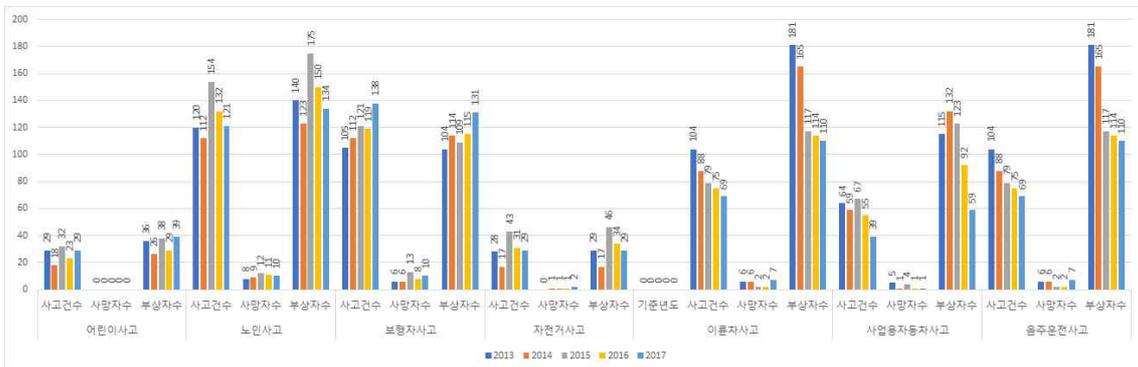
- 사고 유형별 발생은 차대차 사고가 가장 많으며, 차량단독과 함께 사고 발생이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차대 사람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그림 III-22] 유형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 (2013-2017)

### (3) 부문별 교통사고 발생현황 (2013-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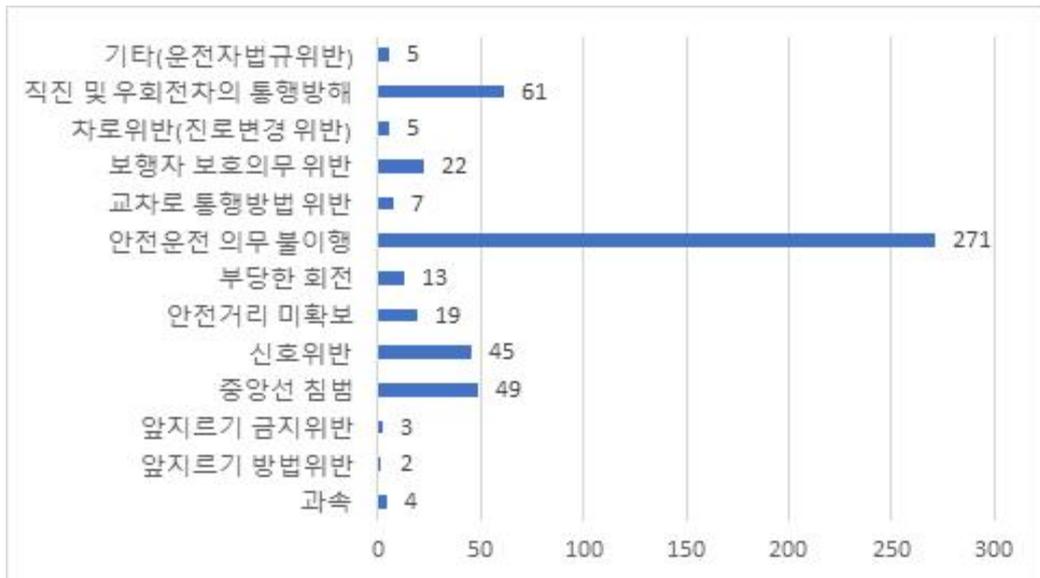
- 부문별로는 음주사고나 이륜차 사고, 사업용 자동차 사고는 발생과 사망 및 부상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노인사고, 어린이 사고 등은 변동양상이 적음
- 특히 보행자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차량 증가 및 이로인한 불법주정차 등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늘어나 보행자 사고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풀이됨
- 특히 자전거나 이륜차 사고의 경우, 사고발생 감소에도 사망자 감소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고 발생 시 사망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 유형으로 구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할 것임



[그림 III-24] 부문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2013-2017)

라. 교통사고 원인 (법규위반 기준) (2013~2017 평균)

- 법규위반 기준으로 교통사고 원인은 가장 많은 것이 안전의무불이행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 운전자가 운전 집중해 사고를 예방하는 적극적인 방어운전을 실천해야 하는데, 교통사고 조사 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 유형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분류함.
  - 중앙선침범이나 신호위반보다 현저히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조사됨.
- 돌발적인 상황에서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운전 집중하지 못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 30Km/h를 철저히 준수하고 차량 출발 및 주정차 시 주위를 꼼꼼하게 살피는 등의 안전운전 의무 이행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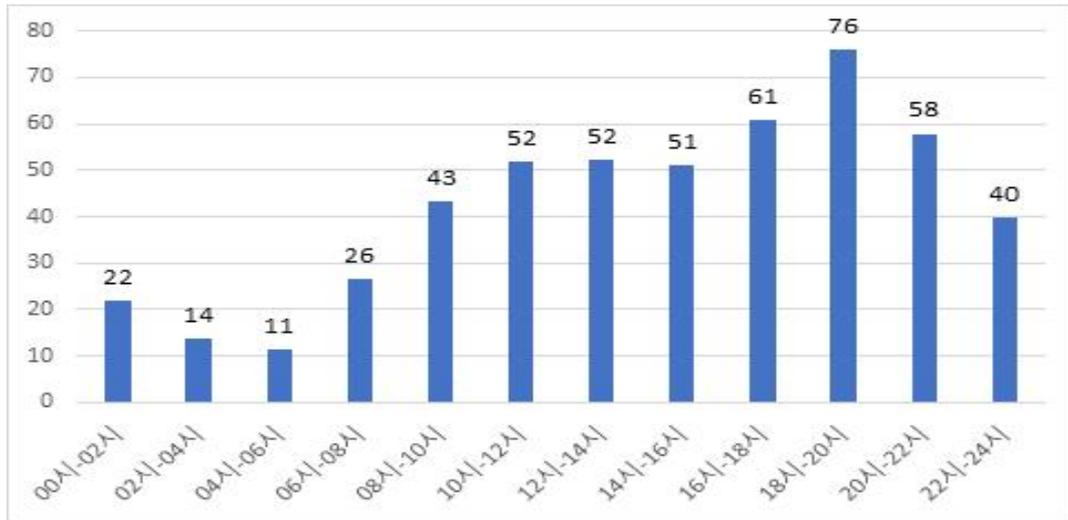


[그림 III-24] 법규위반 기준 교통사고 원인

마. 시간대별 교통사고 발생추이 (2013~2017 평균)

- 시간대별로는 18시~20시 퇴근시간 무렵 초저녁이 가장 높고, 그 외는 오후시간에 다발하고 있음

- 순찰 및 단속활동 필요성이 높은 시간대로 저녁 6시~ 8시 퇴근 시간대가 집중될 필요성이 있으며, 노인 사망이 많은 특성을 감안하면 보행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오후 4시~6시 구간에 대한 단속활동 필요성이 제기됨



[그림 III-25] 시간대별 교통사고 발생

## 2) 지역안전지수 핵심지표분석

- 지역안전지수의 핵심지표에 따라 보령시 핵심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교통사고 환산 사망자수는 충남도 평균값대비 1천명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안전벨트 착용과 같은 안전수칙 준수율이 떨어짐
  - 이는 유사규모와 여건을 가진 시군을 비교한 홍성군과 계룡시 사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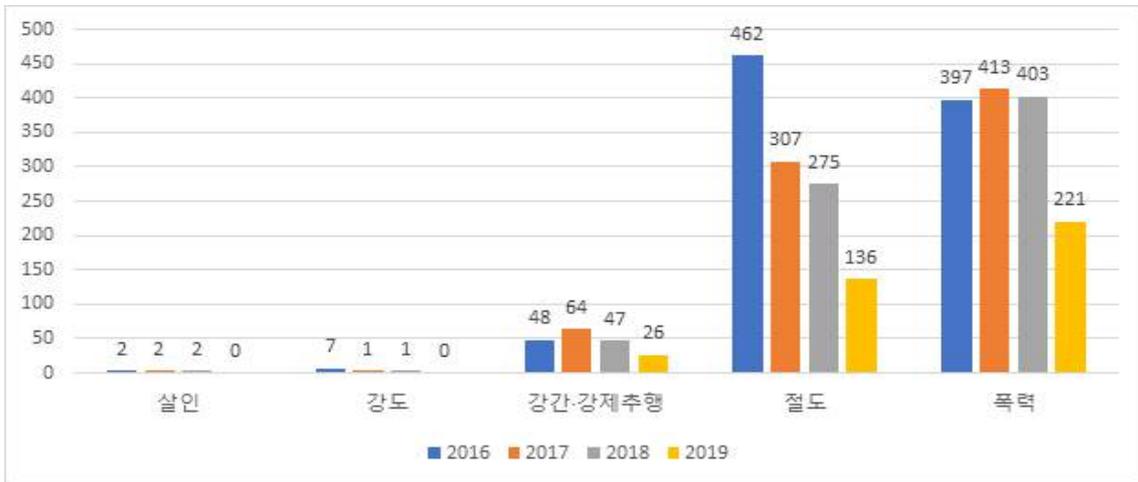
[표 III-19] 교통분야 핵심지표

지자체	등급	위해	취약			경감		
		교통사고사 망자수	재난약자수	의료보장 사업장수	자동차등록 대수	행정구역면 적당 응급의료기 관수	도로면적당 교통단속 CCTV대수	운전시 안전벨트 착용률
보령	5	2.264	2783.276	247.922	4784.861	0.002	1.807	72.3
충남	3	1.490	2,329.979	263.324	4,848.929	0.003	3.347	76.0
시평균		1.068	2186.766	280.385	4529.16	0.015	3.739	84.631
계룡시	2	0.226	1861.049	180.196	4805.315	0	1.834	85.2
홍성군	1	1.253	2785.498	251.527	4902.473	0.002	7.609	75.7

### 3. 범죄

#### 1) 범죄 현황분석

##### (1) 5대 범죄 발생현황 (2016~2019.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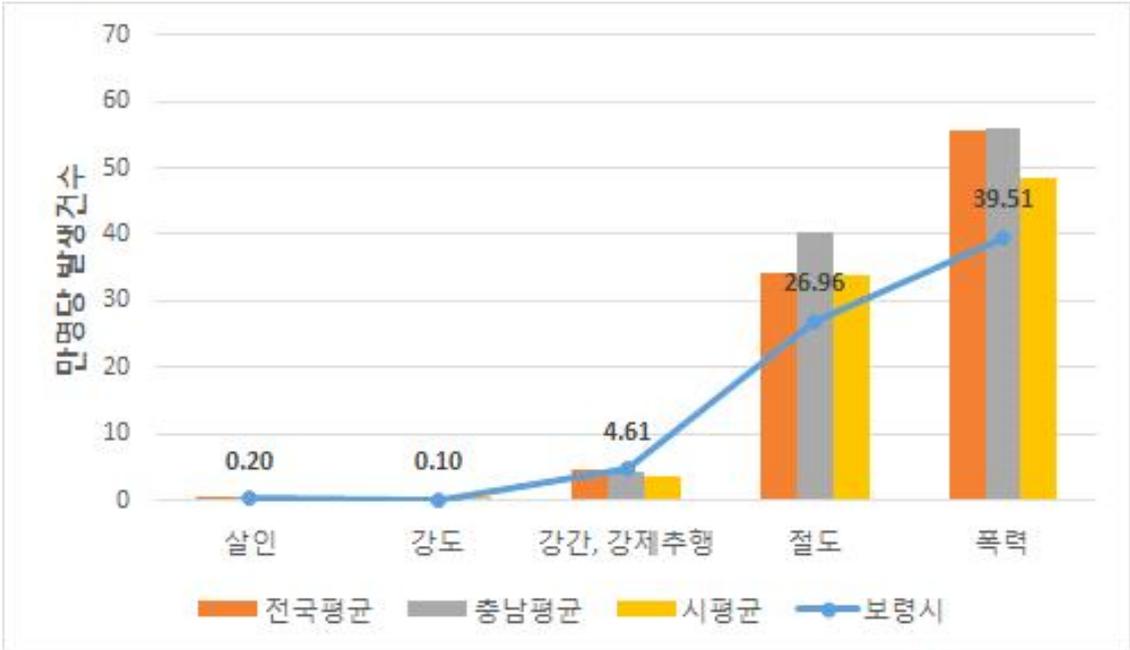
[그림 III-26] 5대 범죄 발생 현황

- 5대 범죄 발생건수로는 폭력과 절도가 높으며, 모든 유형에서 발생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전국평균 및 충남평균과 비교해볼 때, 충남의 범죄발생이 전국과 비교해서 높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령시의 강력범죄 발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종류별로는 살인, 강도 발생은 매우 낮으며, 비교적 높은 발생을 보이는 것은 폭력이나 절도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I-20] '18년 보령시 5대범죄 종류별 발생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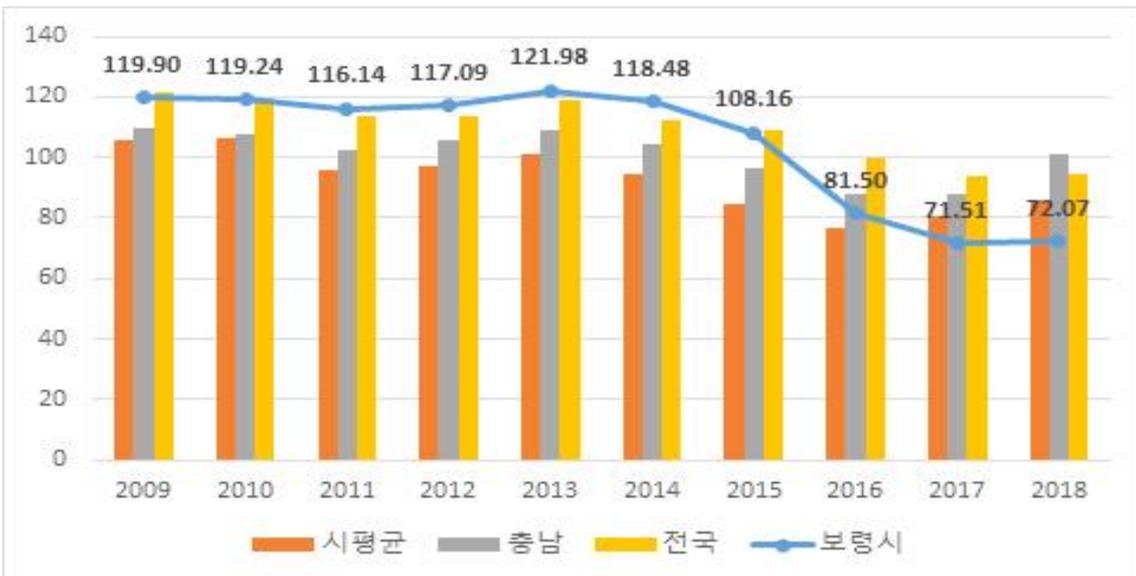
(단위: 인구 만명당 인)

구분	합계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절도	폭력
보령시	71.38	0.20	0.10	4.61	26.96	39.51
전국평균	94.41	0.15	0.16	4.53	34.10	55.47
충남평균	100.91	0.18	0.21	4.32	40.32	55.88
시평균	86.24	0.14	0.14	3.67	33.70	48.59



[그림 III-27] '18년 보령시 5대범죄 종류별 발생현황 비교

○ 지난 10년간 5대 강력범죄에 대한 발생건수를 인구 비중으로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범죄 발생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보령시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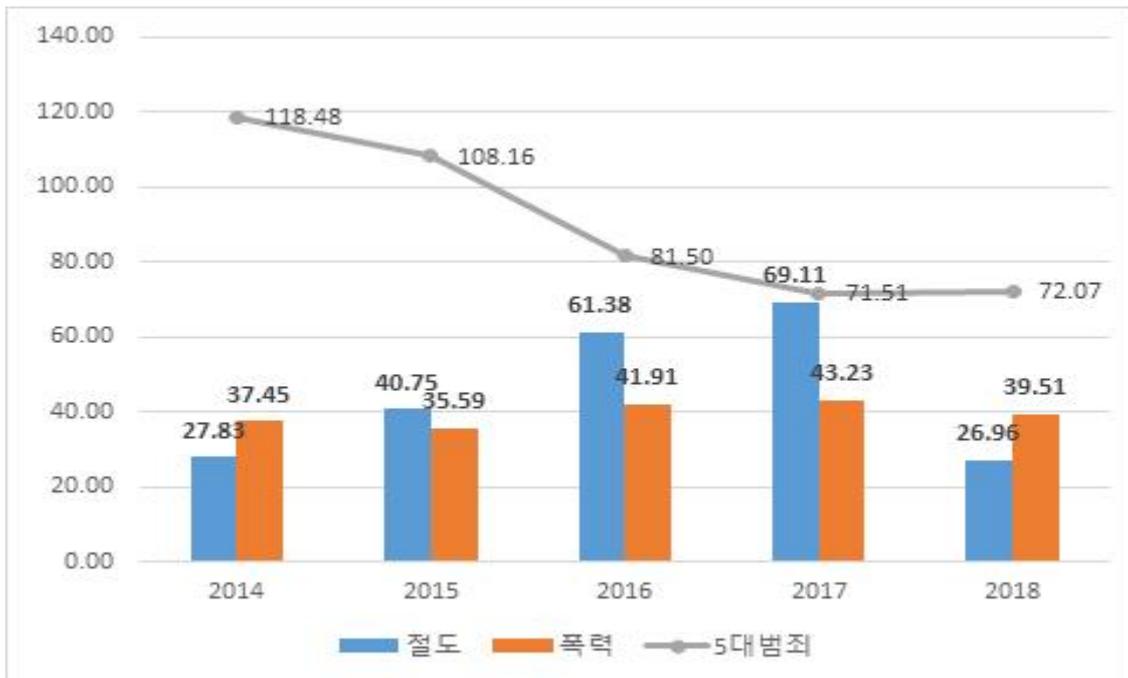


[그림 III-29] 09년-18년 만명당 5대 범죄발생건수

- 최근 5년간 범죄발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살인, 강도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발생규모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성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어린 자녀를 둔 30~40대 부모세대와 여성에서 특히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으로 풀이됨
- 이는 지속적인 범죄예방 노력의 결과로 판단해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감독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됨
- 반면, 강도, 절도, 폭력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표 III-21] 14년-18년(5년간) 만명당 범죄 종류별 발생패턴 비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살인	0.19	0.19	0.76	0.38	0.20
강간.강제추행	5.94	4.41	3.82	4.89	0.10
강도	0.09	0.56	0.29	0.86	4.61
절도	27.83	40.75	61.38	69.11	26.96
폭력	37.45	35.59	41.91	43.23	39.51
5대범죄	118.48	108.16	81.50	71.51	7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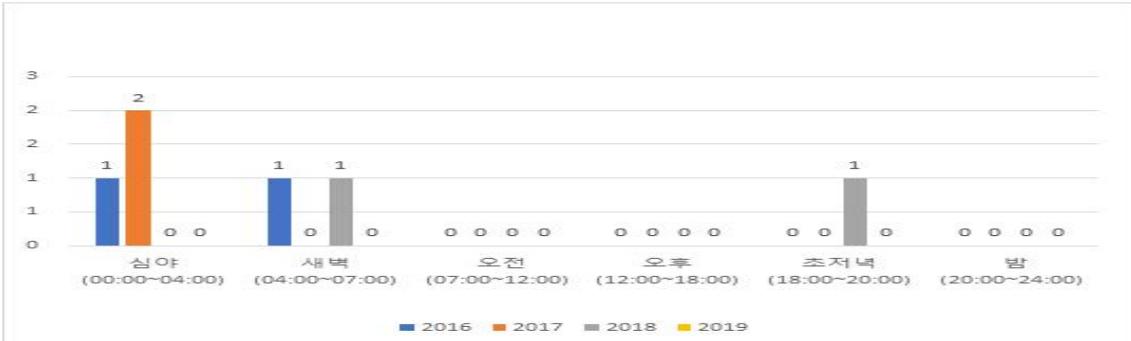


[그림 III-30] 14년-18년(5년간) 만명당 범죄 종류별 발생패턴 비교

(2) 시간대별 5대 범죄 발생현황 (2016~2019. 07.)

가. 살인

○ 살인의 경우 발생은 대부분 심야와 새벽 시간대로 야간에 일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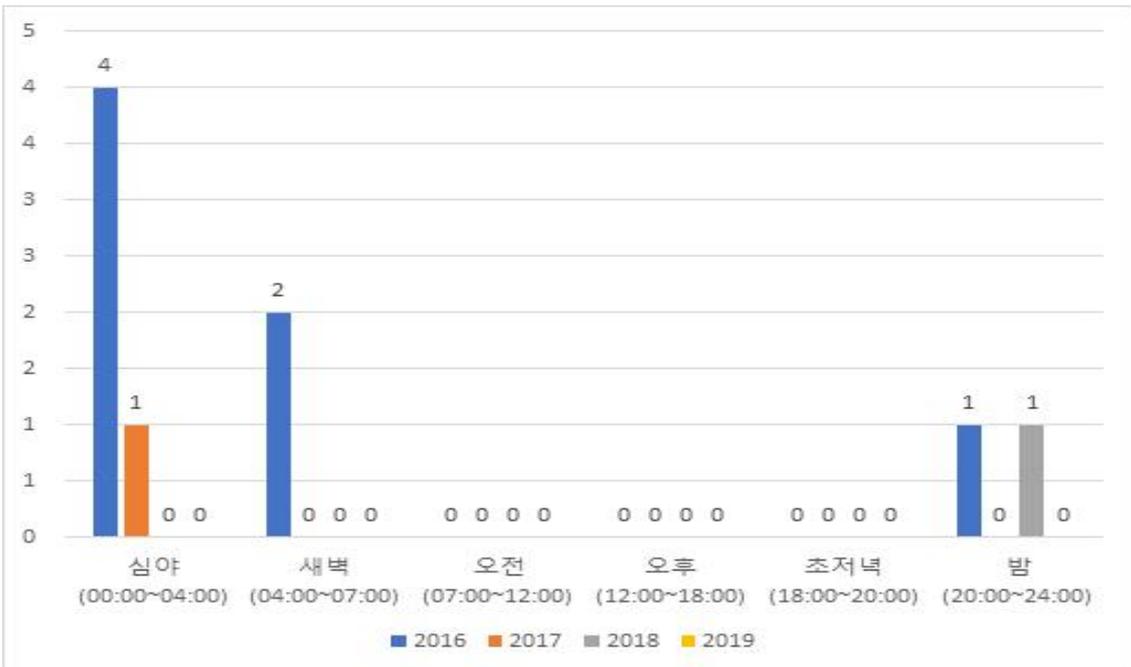


[그림 III-31] 연도별 살인 발생 시간

나. 강도

○ 강도발생도 대체로 심야와 새벽시간대로 최근 경향으로는 밤부터 새벽 4시경에 발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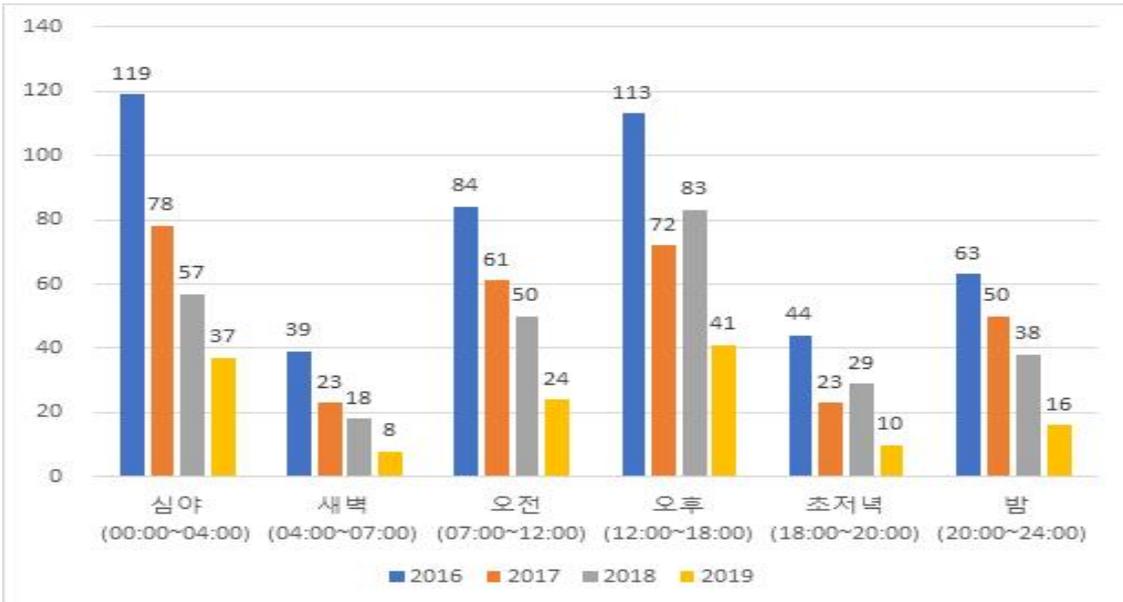
○ 강도 발생 위험은 낮으나 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순찰 등 관리가 요구됨



[그림 III-32] 연도별 강도 발생시간

다. 강간·강제추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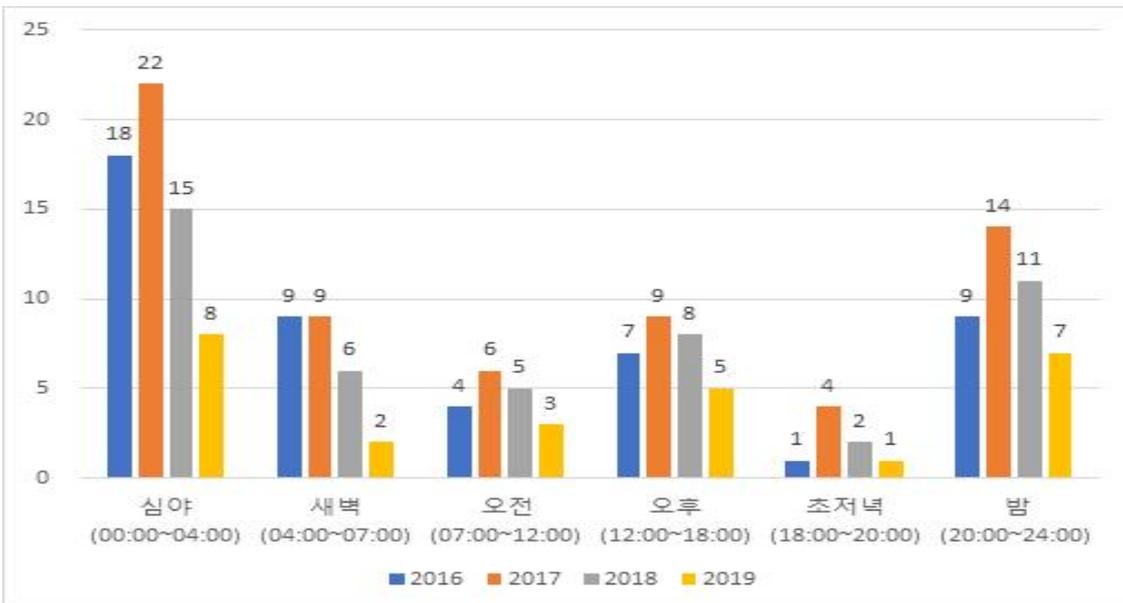
○ 강간 및 강제추행은 오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이어 심야와 오전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3] 연도별 강간·강제추행 발생시간

라. 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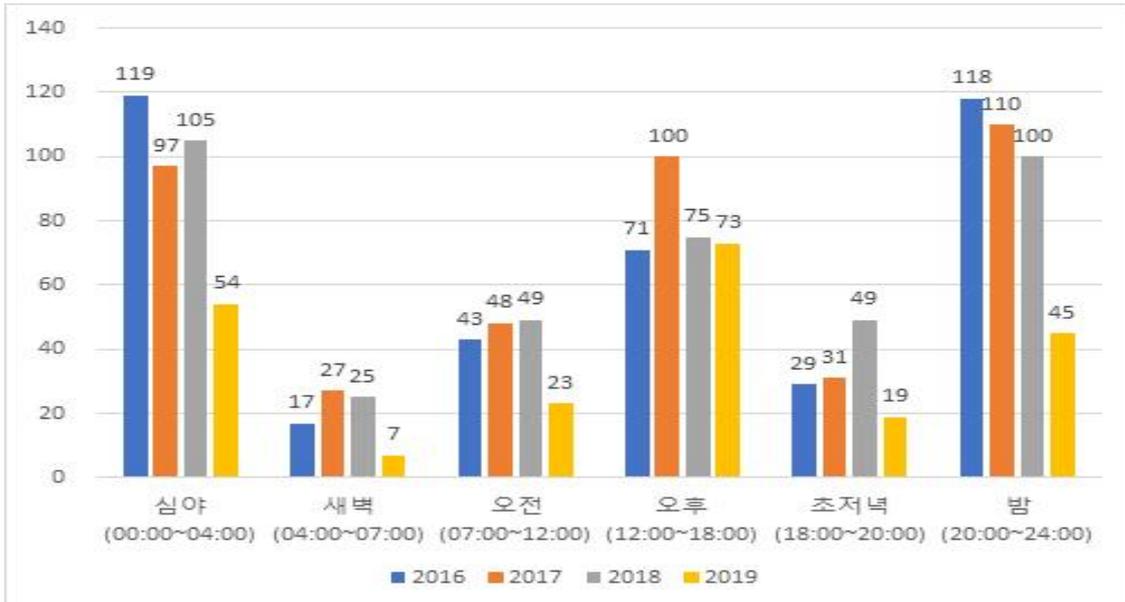
○ 절도발생은 심야, 밤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야간 절도 범죄 발생에 대비한 순찰활동이나 CCTV가동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됨



[그림 III-34] 연도별 절도 발생시간

마. 폭력

○ 폭력은 오후에 가장 많았으며, 심야와 밤 시간이 뒤를 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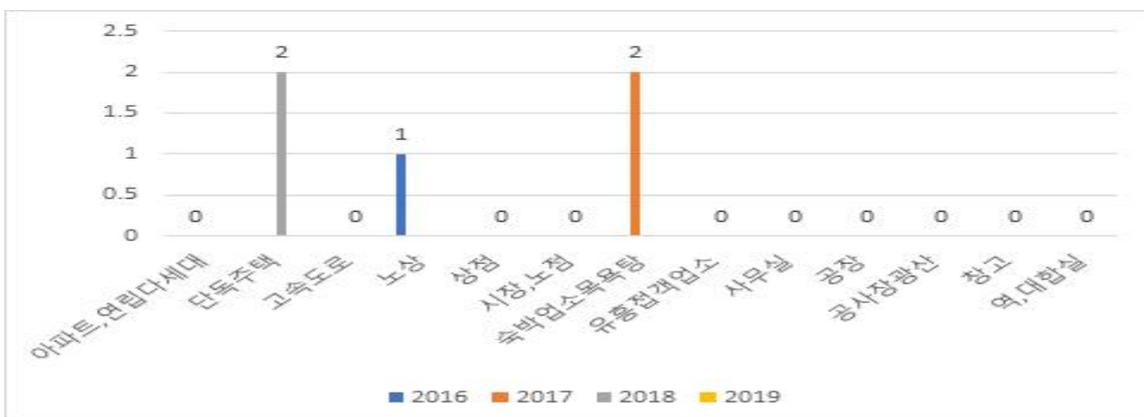


[그림 III-35] 연도별 폭력 발생시간

(3) 장소별 5대 범죄 발생현황 (2016~2019. 07.)

가. 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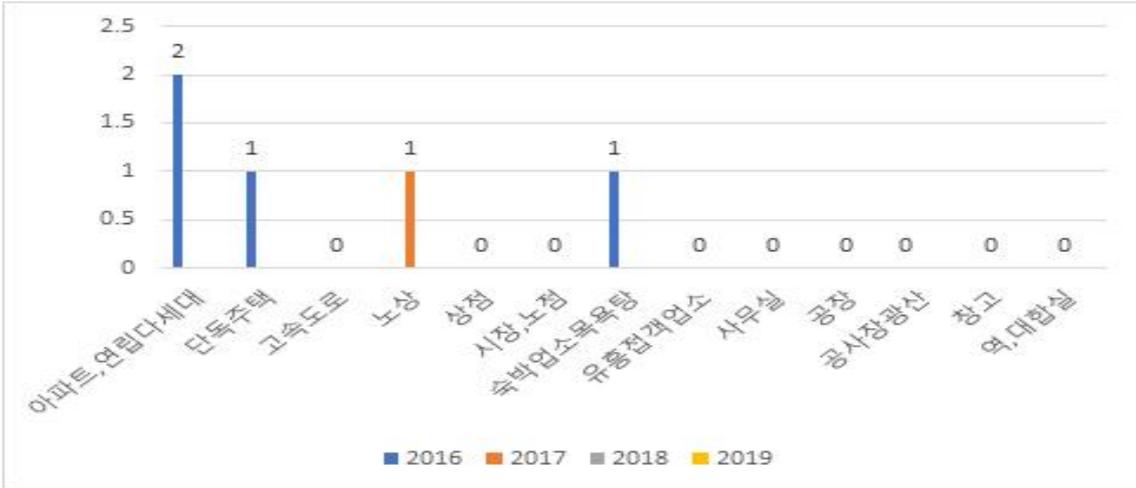
○ 발생장소로는 살인의 경우 숙박업소와 주택이 있었으며, 노상에서 살인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음



[그림 III-36] 연도별 살인사건 발생장소

나. 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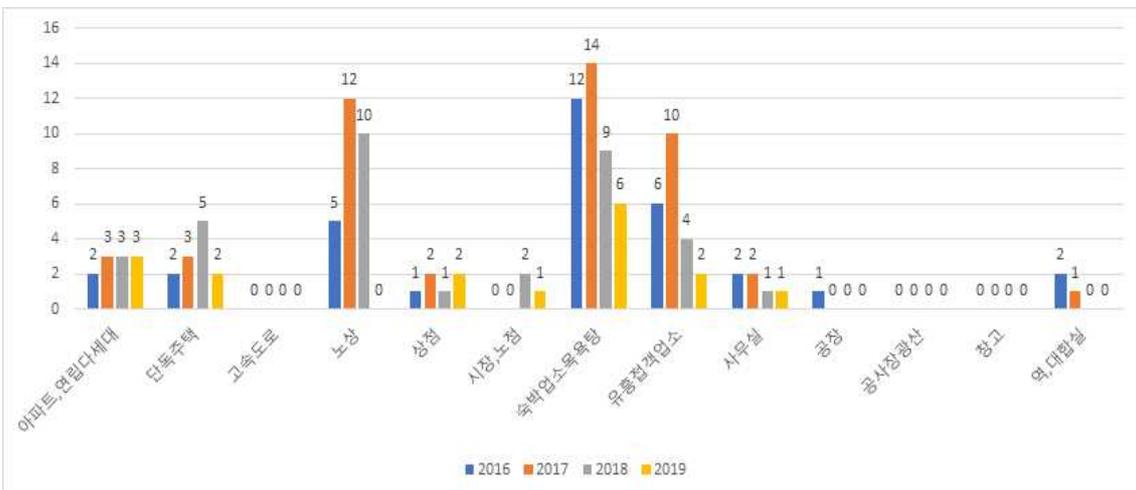
- 강도 발생은 아파트 단독주택, 숙박업소에서 나타나 강도와 살인 등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III-37] 연도별 강도사건 발생장소

다. 강간·강제추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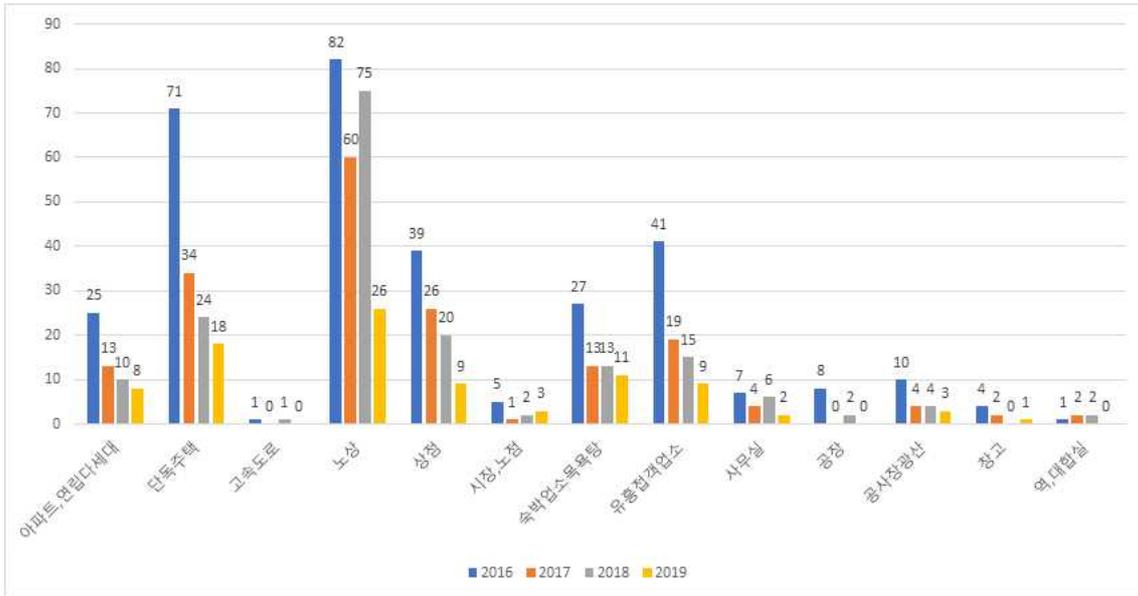
-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숙박업소에서 가장 빈발하고 있으며, 유흥업소나 주택가에서 주로 발생함
- 노상에서 일어나는 강간 및 강제추행은 현저히 줄어들어 금년 7월 현재 기준으로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38] 연도별 강간·강제추행 사건 발생장소

라. 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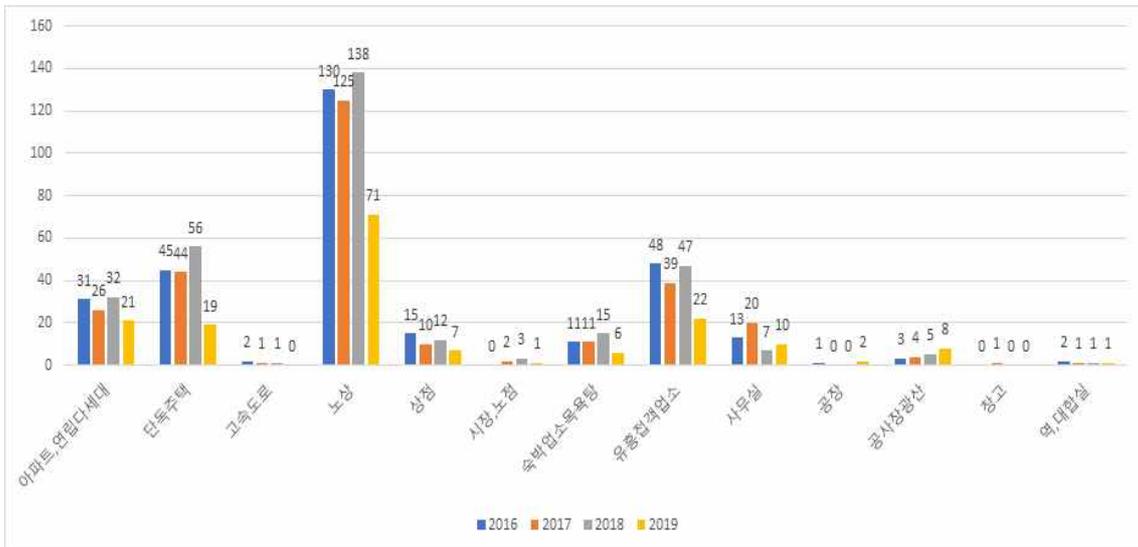
○ 절도는 노상에서 발생이 가장 많으며 이어 단독주택, 숙박업소나 목욕탕에서 일어나고 있음



[그림 III-39] 연도별 절도사건 발생장소

마. 폭력

○ 폭력사건역시 노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어서 유흥업소,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지역에서 일어남



[그림 III-40] 연도별 폭력사건 발생장소

## 2) 핵심지표분석

- 범죄분야 지역안전지수 지표 등급은 보령시의 경우 2등급으로 비교적 양호한 여건을 가지고 있음
-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에서는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제조업체수가 많을수록, 주점업 등 업체수가 많을수록 범죄발생에 취약하고, 경찰종사자수나 범죄예방 CCTV대수가 많을수록 범죄발생이 경감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계룡, 청양 등 범죄분야 지표 등급이 더 우수한 시군과 비교하였을 때, 보령시의 경우 주점업 등 업체수가 많으며, 범죄예방 CCTV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22] 범죄분야 핵심지표

지자체	등급	위해	취약			경감	
		5대 범죄 발생건수	인구밀도	제조업 업체수	주점업 등 업체수	경찰 종사자수	범죄예방 CCTV대수
보령	2	71.509	185.1	63.962	171.602	38.585	7,698
충남	3	87.775	264.04	81.195	146.066	22.243	55.724
시평균		87.767	1774.957	87.137	141.83	22.795	51.181
계룡시	1	26.033	728.11	24.222	100.738	4.075	31.919
청양군	1	43.679	68.41	95.734	151.379	41.884	255.49

## IV. 교통사고 및 범죄발생 체감안전도 실증분석

### 1. 응답자의 특성

- 보령시민 체감 안전도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체 응답자는 1,905명으로 성별과 연령, 거주지, 거주기간, 응답자 직업을 살펴보면 다음 [표 1-1]의 내용과 같음
- 전체 응답자 중 남성은 956명으로 50.18%를, 여성은 908명으로 47.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대의 경우 20세 미만이 593명으로 31.13%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은 응답 연령대에 해당함. 40대와 50대 또한 각각 277명과 295명으로 14.54%, 15.49%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80세 이상 응답자는 전체의 1.21%로 가장 적은 비중을 보임.
  - 응답자 거주지의 경우 시내권이 51.76%로 가장 많은 반면, 청소면의 경우 응답자 비중이 1.47%에 불과하여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거주 기간의 경우 10년 이상 20년 미만 응답자가 전체의 33.39%로 가장 많으며, 20년 이상 50년 미만 거주 응답자의 경우에도 25.77%로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보령시에 장기 거주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음.
  - 응답자 직업의 경우 (대)학생이 전체의 32.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 관련직 종사자는 전체의 0.68%로 가장 적은 비중을 보임.

[표 IV-1] 응답자 통계

(단위: 명, %)

		N	구성비
전체(N=1,905)		1,905	100.0
성별	남성	956	50.18
	여성	908	47.66
	무응답	41	2.15
연령	20세 미만	593	31.13
	20대	155	8.14
	30대	176	9.24
	40대	277	14.54
	50대	295	15.49
	60대	183	9.61

		N	구성비
	70대	79	4.15
	80세 이상	23	1.21
	무응답	124	6.51
거주지	시내권	986	51.76
	대천해수욕장	125	6.56
	웅천읍	98	5.14
	남포면	107	5.62
	주산면	27	1.42
	미산면	59	3.1
	성주면	61	3.2
	청라면	29	1.52
	주교면	38	1.99
	주포면	33	1.73
	청소면	28	1.47
	오천면	83	4.36
	천북면	83	4.36
	도서(섬) 지역	38	1.99
	기타	49	2.57
	무응답	61	3.2
거주기간	1년 미만	5	0.26
	1년 이상 ~ 3년 미만	168	8.82
	3년 이상 ~ 5년 미만	109	5.72
	5년 이상 ~ 10년 미만	196	10.29
	10년 이상 ~ 20년 미만	636	33.39
	20년 이상 ~ 50년 미만	491	25.77
	50년 이상	184	9.66
	무응답	116	6.09
응답자 직업	전문/기술직	150	7.87
	행정/관리직	169	8.87
	일반 사무직	159	8.35
	운수 관련직	27	1.42
	판매/서비스직	123	6.46
	생산 관련직	13	0.68
	농/어/임/축산업 종사자	219	11.5

		N	구성비
	자영업	146	7.66
	학생, 대학생	615	32.28
	전업 주부	95	4.99
	무직/은퇴	69	3.62
	기타	58	3.04
	무응답	62	3.25

○ 지파출소별로 분류하면 보령서가 37.7%로 가장 많았으며, 지구대 파출소 별로 분류하였을 때 동대지구대가 12.2%로 가장 많고, 해수욕장지구대(10.8%), 대천 파출소(10.5%), 주포 파출소(7.1%), 응천파출소(5.1%), 미산파출소(6.2%), 천북파출소(4.1%), 오천파출소(2.6%) 순으로 구성되었음

[표 IV-2] 응답자 통계(지파출소별)

(단위; 명, %)

		N	구성비
전체(N=1,905)		1,905	100.0
지파출소 별	동대지구대	232	12.2
	해수욕장지구대	205	10.8
	대천파출소	200	10.5
	주포파출소	136	7.1
	응천파출소	97	5.1
	미산파출소	118	6.2
	천북파출소	79	4.1
	오천파출소	50	2.6
	시민경찰	84	4.4
	보령경찰서	704	37.0

## 2.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도

### 1) 거주지역 교통사고 안전도

○ “귀하의 거주지역(읍면동)은 교통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 문항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위험하다는 응답에 비해 안전하다는 응답이 약간 우세하게 나타남

- 보령시 전체 교통사고 안전도 인식은 5점 만점 중 3.04로 보통을 약간 상회함
- 세부 지역별로는 섬 지역에서 3.47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포면과 미산면이 각각 3.36점과 3.34점으로 나타나 교통사고 안전도 인식이 비교적 높은 반면, 천북면이 2.58점으로 가장 낮은 안전도 인식을 보여줌

[표 IV-3] 거주지역 교통사고 안전도 인식

(단위: %, 점)

구분	빈도 (%)						5점 평균 (점)
	매우 위험	약간 위험	보통	대체로 안전	매우 안전	무응답	
시내권	6.09	27.18	30.02	29.41	6.09	1.22	3.02
대천해수욕장	4.00	22.40	41.60	26.40	4.80	0.80	3.06
웅천읍	11.22	23.47	28.57	26.53	6.12	4.08	2.93
남포면	6.54	20.56	33.64	29.91	8.41	0.93	3.13
주산면	18.52	22.22	25.93	29.63	3.70	0.00	2.78
미산면	1.69	28.81	22.03	28.81	18.64	0.00	3.34
성주면	6.56	24.59	31.15	21.31	16.39	0.00	3.16
청라면	10.34	27.59	24.14	34.48	3.45	0.00	2.93
주교면	5.26	23.68	28.95	26.32	13.16	2.63	3.19
주포면	3.03	27.27	15.15	39.39	15.15	0.00	3.36
청소면	10.71	32.14	28.57	25.00	3.57	0.00	2.79
오천면	9.64	16.87	27.71	34.94	10.84	0.00	3.20
천북면	15.66	36.14	26.51	18.07	3.61	0.00	2.58
도서(섬)지역	13.16	7.89	18.42	39.47	21.05	0.00	3.47
기타	2.04	22.45	28.57	28.57	14.29	4.08	3.32
무응답	4.92	9.84	21.31	8.20	1.64	54.10	2.82
<b>보령시 계</b>	<b>6.93</b>	<b>25.09</b>	<b>29.45</b>	<b>28.19</b>	<b>7.51</b>	<b>2.83</b>	<b>3.04</b>

주) 5점 평균(점)은 ‘매우위험’ 부터 ‘매우안전’ 까지 1부터 5의 값을 설정 후, 각 응답

의 평균값을 산출한 것임.

- 지구대파출소별로는 안전하다는 응답이 해수욕장지구대(44.1%), 미산파출소(42.3%), 오천파출소(42.0%), 보령경찰서(38.5%), 웅천파출소(36.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포파출소(35.6%), 대천파출소(34.0%), 시민경찰(32.5%), 동대지구대(31.5%), 천북파출소(20.3%)에서는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이 낮게 나타남

[표 IV -4] 지구대 및 파출소별 안전도 인식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명)/ 빈도(%)					전체
	매우위험	약간위험	보통	대체로안전	매우안전	
동대지구대	17	71	71	57	16	232
	7.3%	30.6%	30.6%	24.6%	6.9%	100.0%
해수욕장지구대	13	35	66	73	17	204
	6.4%	17.2%	32.4%	35.8%	8.3%	100.0%
대천파출소	17	51	62	62	5	197
	8.6%	25.9%	31.5%	31.5%	2.5%	100.0%
주포파출소	7	45	33	39	8	132
	5.3%	34.1%	25.0%	29.5%	6.1%	100.0%
웅천파출소	12	18	28	27	6	91
	13.2%	19.8%	30.8%	29.7%	6.6%	100.0%
미산파출소	7	29	28	31	16	111
	6.3%	26.1%	25.2%	27.9%	14.4%	100.0%
천북파출소	13	27	23	13	3	79
	16.5%	34.2%	29.1%	16.5%	3.8%	100.0%
오천파출소	5	11	13	18	3	50
	10.0%	22.0%	26.0%	36.0%	6.0%	100.0%
시민경찰	6	32	18	24	3	83
	7.2%	38.6%	21.7%	28.9%	3.6%	100.0%
보령경찰서	35	159	219	193	66	672
	5.2%	23.7%	32.6%	28.7%	9.8%	100.0%

- 성별로는 여성은 거주지역이 교통사고로부터 위험하다는 응답이 38.2%로 안전하다는 인식 32.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안전하다는 응답이 40.8%로 위험하다는 응답 27.8%보다 높게 나타나, 남성에 비해 여성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5] 응답자 성별 안전도 인식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명)/ 빈도(%)					전체
	매우위험	약간위험	보통	대체로안전	매우안전	
여자	74	265	260	238	50	887
	8.3%	29.9%	29.3%	26.8%	5.6%	100.0%
남자	58	205	296	294	92	945
	6.1%	21.7%	31.3%	31.1%	9.7%	100.0%

○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40.0%, 20대 37.6%, 60대 36.4%, 40대 34.5%로 거주지역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30대는 43.4%, 50대 36.1%, 70대 이상은 34.3%로 위험하다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남

[표 IV-6] 응답자 연령별 안전도 인식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명)/ 빈도(%)					전체
	매우위험	약간위험	보통	대체로안전	매우안전	
19세 이하	25	148	177	170	63	583
	4.3%	25.4%	30.4%	29.2%	10.8%	100.0%
20-29세	10	43	43	47	11	154
	6.5%	27.9%	27.9%	30.5%	7.1%	100.0%
30-39세	11	64	41	50	7	173
	6.4%	37.0%	23.7%	28.9%	4.0%	100.0%
40-49세	11	70	97	83	11	272
	4.0%	25.7%	35.7%	30.5%	4.0%	100.0%
50-59세	30	74	82	82	20	288
	10.4%	25.7%	28.5%	28.5%	6.9%	100.0%
60-69세	24	37	54	52	14	181
	13.3%	20.4%	29.8%	28.7%	7.7%	100.0%
70세 이상	12	22	32	25	8	99
	12.1%	22.2%	32.3%	25.3%	8.1%	100.0%

○ 거주기간별로는 60년 이상 거주(43.8%), 50~59년 거주(38.7%), 20~29년 거주(38.7%), 40~49년 거주(37.3%), 19년 이하 거주(37.0%)의 순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남. 다만, 30~39년 거주자의 경우 위험하다는 인식(41.6%)이 안전하다는 인식(28.5%)보다 높게 나타남

[표 IV-7] 응답자 거주기간별 안전도 인식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명)/ 빈도(%)					전체
	매우위험	약간위험	보통	대체로안전	매우안전	
19년 이하	64	290	337	313	93	1097
	5.8%	26.4%	30.7%	28.5%	8.5%	100.0%
20-29년	16	52	60	68	13	209
	7.7%	24.9%	28.7%	32.5%	6.2%	100.0%
30-39년	16	41	41	32	7	137
	11.7%	29.9%	29.9%	23.4%	5.1%	100.0%
40-49년	9	35	40	44	6	134
	6.7%	26.1%	29.9%	32.8%	4.5%	100.0%
50-59년	7	20	30	29	7	93
	7.5%	21.5%	32.3%	31.2%	7.5%	100.0%
60년 이상	11	17	22	31	8	89
	12.4%	19.1%	24.7%	34.8%	9.0%	100.0%

○ 직업별 응답에서는 농·어·임·축산업 종사자(45.7%), 학생·대학생(41.0%), 전업주부(39.8%)의 순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남. 반면, 생산 관련직은 위험하다는 응답이 50.0%로 위험하다는 인식이 절반을 차지하였고, 운수관련직(48.1%), 일반 사무직(45.6%), 행정·관리직(40.8%), 자영업(37.5%), 전문·기술직(35.9%)에서도 위험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IV-8] 응답자 직업별 안전도 인식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명)/ 빈도(%)					전체
	매우위험	약간위험	보통	대체로안전	매우안전	
전문/기술직	14	38	46	36	11	145
	9.7%	26.2%	31.7%	24.8%	7.6%	100.0%
행정/관리직	14	55	39	51	10	169
	8.3%	32.5%	23.1%	30.2%	5.9%	100.0%
일반 사무직	14	58	38	41	7	158
	8.9%	36.7%	24.1%	25.9%	4.4%	100.0%
운수 관련직	4	9	12	2	0	27
	14.8%	33.3%	44.4%	7.4%	0.0%	100.0%
판매/서비스직	10	29	44	37	3	123
	8.1%	23.6%	35.8%	30.1%	2.4%	100.0%
생산 관련직	2	4	4	2	0	12
	16.7%	33.3%	33.3%	16.7%	0.0%	100.0%
농/어/임/축산업 종사자	15	39	64	75	24	217
	6.9%	18.0%	29.5%	34.6%	11.1%	100.0%

자영업	12	42	46	39	5	144
	8.3%	29.2%	31.9%	27.1%	3.5%	100.0%
학생, 대학생	25	149	184	181	67	606
	4.1%	24.6%	30.4%	29.9%	11.1%	100.0%
전업주부	8	21	27	33	4	93
	8.6%	22.6%	29.0%	35.5%	4.3%	100.0%
무직/은퇴	8	14	25	13	8	68
	11.8%	20.6%	36.8%	19.1%	11.8%	100.0%
기타	3	16	18	17	3	57
	5.3%	28.1%	31.6%	29.8%	5.3%	100.0%

## 2) 거주지역 교통안전 활동

- 거주지역(읍면동) 경찰의 교통단속 및 순찰활동과 같은 교통안전 활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도서(섬) 지역의 경우 경찰의 교통안전 활동에 대해 아주 못함 혹은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무하며, 매우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5.26%로 상당히 큰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이와 달리 청라면과 청소면에서는 전체 5점 만점 중 평균이 2.26점으로 나타나 잘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표 IV-9] 거주지역 교통안전 활동 인식

(단위: %, 점)

구분	빈도 (%)						5점 평균 (점)
	아주 못함	못하는 편	보통	잘하는 편	매우 잘함	무응답	
시내권	3.04	16.13	46.55	25.46	8.22	0.61	3.20
대천해수욕장	1.60	8.80	40.00	39.20	9.60	0.80	3.47
웅천읍	0.00	8.16	24.49	53.06	12.24	2.04	3.71
남포면	4.67	5.61	40.19	41.12	8.41	0.00	3.43
주산면	0.00	11.11	44.44	22.22	22.22	0.00	3.56
미산면	1.69	8.47	18.64	49.15	18.64	3.39	3.77
성주면	1.64	9.84	36.07	29.51	21.31	1.64	3.60

청라면	13.79	13.79	51.72	13.79	6.90	0.00	2.86
주교면	2.63	31.58	18.42	39.47	7.89	0.00	3.18
주포면	3.03	6.06	39.39	39.39	9.09	3.03	3.47
청소면	3.57	32.14	46.43	10.71	7.14	0.00	2.86
오천면	3.61	6.02	28.92	42.17	19.28	0.00	3.67
천북면	0.00	3.61	30.12	55.42	10.84	0.00	3.73
도서(섬)지역	0.00	0.00	13.16	31.58	55.26	0.00	4.42
기타	2.04	26.53	22.45	30.61	14.29	4.08	3.30
무응답	4.92	8.20	21.31	16.39	4.92	44.26	3.15
<b>보령시 계</b>	<b>2.78</b>	<b>13.18</b>	<b>39.21</b>	<b>31.60</b>	<b>11.02</b>	<b>2.20</b>	<b>3.36</b>

주) 5점 평균(점)은 ‘아주못함’ 부터 ‘매우잘함’ 까지 1부터 5의 값을 설정 후, 각 응답의 평균값을 산출한 것임.

○ 지구대파출소별로는 잘한다는 응답이 웅천파출소(71.3%), 해수욕장지구대(69.1%), 천북파출소(67.1%), 미산파출소(65.4%), 오천파출소(64%) 순으로 대부분의 응답에서 잘한다는 응답이 못한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다만, 보령경찰서는 잘한다는 인식이 24.3%, 못한다는 인식이 28.5%로 잘한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남

[표 IV-10] 지구대 및 파출소별 교통안전 활동 인식

(단위: 명, %)

구분	빈도 (%)					전체
	아주 못함	못하는 편	보통	잘하는 편	매우 잘함	
동대지구대	3	26	89	78	36	232
	1.3%	11.2%	38.4%	33.6%	15.5%	100.0%
해수욕장지구대	0	7	56	100	41	204
	0.0%	3.4%	27.5%	49.0%	20.1%	100.0%
대천파출소	3	20	92	65	16	196
	1.5%	10.2%	46.9%	33.2%	8.2%	100.0%
주포파출소	2	17	52	50	10	131
	1.5%	13.0%	39.7%	38.2%	7.6%	100.0%
웅천파출소	0	4	23	50	17	94
	0.0%	4.3%	24.5%	53.2%	18.1%	100.0%
미산파출소	0	3	35	47	25	110
	0.0%	2.7%	31.8%	42.7%	22.7%	100.0%
천북파출소	0	3	23	43	10	79
	0.0%	3.8%	29.1%	54.4%	12.7%	100.0%

오천파출소	1	3	14	24	8	50
	2.0%	6.0%	28.0%	48.0%	16.0%	100.0%
시민경찰	1	16	40	18	8	83
	1.2%	19.3%	48.2%	21.7%	9.6%	100.0%
보령경찰서	43	152	323	127	39	684
	6.3%	22.2%	47.2%	18.6%	5.7%	100.0%

○ 성별로는 여성은 잘한다는 응답이 37.9%로 못한다는 인식 20.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도 잘한다는 응답이 48.9%로 못한다는 응답 12.9%보다 높게 나타남. 남성이 여성보다 경찰의 교통안전 활동을 더 잘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1] 성별 교통안전 활동 인식

(단위: 명, %)

구분	빈도 (%)					전체
	아주 못함	못하는 편	보통	잘하는 편	매우 잘함	
여자	28	152	376	261	79	896
	3.1%	17.0%	42.0%	29.1%	8.8%	100.0%
남자	25	98	361	335	129	948
	2.6%	10.3%	38.1%	35.3%	13.6%	100.0%

○ 연령별로는 60대가 63.8%, 50대가 62.6%, 40대가 53.6%, 70대 이상이 52.5%로 교통안전 활동을 잘 하고 있다는 인식이 절반을 넘었으며, 20대(46.4%)와 30대(39.3%) 또한 잘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다만, 19세 이하에서 잘한다는 응답(21.7%)이 못한다는 응답(31%)보다 낮게 나타나 19세 이하에서 교통안전 활동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12] 연령대별 교통안전 활동 인식

(단위: 명, %)

구분	빈도 (%)					전체
	아주 못함	못하는 편	보통	잘하는 편	매우 잘함	
19세 이하	38	145	279	88	40	590
	6.4%	24.6%	47.3%	14.9%	6.8%	100.0%
20-29세	1	23	59	47	25	155
	0.6%	14.8%	38.1%	30.3%	16.1%	100.0%
30-39세	1	30	74	52	16	173
	0.6%	17.3%	42.8%	30.1%	9.2%	100.0%

40-49세	4	19	104	110	37	274
	1.5%	6.9%	38.0%	40.1%	13.5%	100.0%
50-59세	1	14	93	140	41	289
	0.3%	4.8%	32.2%	48.4%	14.2%	100.0%
60-69세	2	8	56	86	30	182
	1.1%	4.4%	30.8%	47.3%	16.5%	100.0%
70세 이상	2	5	40	42	10	99
	2.0%	5.1%	40.4%	42.4%	10.1%	100.0%
시내권	30	159	459	251	81	980
	3.1%	16.2%	46.8%	25.6%	8.3%	100.0%

○ 거주기간별로는 잘한다는 응답이 60년 이상 거주(65.9%), 50~59년 거주(58.7%), 40~49년 거주(60.3%), 30~39년 거주(53.2%), 20~29년 거주(53.1%), 19년 이하 거주(35.9%)로 잘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남

[표 IV-13] 거주기간별 교통안전 활동 인식

(단위: 명, %)

구분	빈도 (%)					전체
	아주 못함	못하는 편	보통	잘하는 편	매우 잘함	
19년 이하	43	186	479	288	108	1104
	3.9%	16.8%	43.4%	26.1%	9.8%	100.0%
20-29년	3	19	76	84	27	209
	1.4%	9.1%	36.4%	40.2%	12.9%	100.0%
30-39년	2	16	47	57	17	139
	1.4%	11.5%	33.8%	41.0%	12.2%	100.0%
40-49년	2	7	45	64	18	136
	1.5%	5.1%	33.1%	47.1%	13.2%	100.0%
50-59년	0	4	34	37	17	92
	0.0%	4.3%	37.0%	40.2%	18.5%	100.0%
60년 이상	1	5	24	46	12	88
	1.1%	5.7%	27.3%	52.3%	13.6%	100.0%

○ 직업별 응답에서는 농·어·임·축산업 종사자(69.9%), 자영업(60.9%), 판매·서비스직(56.9%), 무직·은퇴(55.1%), 전업주부(51.6%)의 순으로 잘한다는 인식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음. 또한, 운수관련직(46.1%), 전문·기술직(45.1%), 일반 사무직(39.2%)에서도 잘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남. 반면, 생산 관련직은 잘한다는 응답과 못한다는 응답이 30.8%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학생·대학생은 잘한다는 인식(22.8%)이 못한다는 인식(29.9%)보다 낮게 나타남

[표 IV-14] 직업별 교통안전 활동 인식

(단위: 명, %)

구분	빈도 (%)					전체
	아주 못함	못하는 편	보통	잘하는 편	매우 잘함	
전문/기술직	2	16	61	51	14	144
	1.4%	11.1%	42.4%	35.4%	9.7%	100.0%
행정/관리직	2	16	60	62	29	169
	1.2%	9.5%	35.5%	36.7%	17.2%	100.0%
일반 사무직	1	24	71	50	12	158
	0.6%	15.2%	44.9%	31.6%	7.6%	100.0%
운수 관련직	0	4	10	11	1	26
	0.0%	15.4%	38.5%	42.3%	3.8%	100.0%
판매/서비스직	1	8	44	53	17	123
	0.8%	6.5%	35.8%	43.1%	13.8%	100.0%
생산 관련직	0	4	5	4	0	13
	0.0%	30.8%	38.5%	30.8%	0.0%	100.0%
농/어/임/축산업 종사자	2	7	56	113	38	216
	0.9%	3.2%	25.9%	52.3%	17.6%	100.0%
자영업	1	10	46	65	24	146
	0.7%	6.8%	31.5%	44.5%	16.4%	100.0%
학생, 대학생	38	145	290	94	45	612
	6.2%	23.7%	47.4%	15.4%	7.4%	100.0%
전업주부	1	5	39	36	12	93
	1.1%	5.4%	41.9%	38.7%	12.9%	100.0%
무직/은퇴	1	1	29	26	12	69
	1.4%	1.4%	42.0%	37.7%	17.4%	100.0%
기타	2	7	23	22	4	58
	3.4%	12.1%	39.7%	37.9%	6.9%	100.0%

### 3) 교통안전 활동 희망 시간대

○ 교통안전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희망 시간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침 등교 및 출근 시간대와 늦은 야간시간대를 희망하는 응답자가 각각 전체의 24.67%와 24.41%로 나타남

- 아침 등교 및 출근 시간대의 경우 어린이 및 학생에 대한 안전 위협을, 늦은 야간시간의 경우 야간 교통운전에 대한 안전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반면 비교적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적은 오전 시간이나 교통운전이 적게 이루어지는 새벽 시간에 대한 교통안전 활동 수요는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IV-15] 지역별 교통안전 활동 희망 시간대

(단위: %)

구분	빈도 (%)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시내권	28.19	3.04	8.82	14.40	4.06	27.28	3.04	1.12	10.04
대천해수욕장	12.80	4.00	9.60	13.60	7.20	28.80	3.20	1.60	19.20
웅천읍	29.59	5.10	13.27	12.24	8.16	14.29	2.04	2.04	13.27
남포면	15.89	1.87	12.15	9.35	16.82	28.04	4.67	2.80	8.41
주산면	25.93	7.41	7.41	3.70	14.81	22.22	0.00	3.70	14.81
미산면	22.03	11.86	18.64	13.56	8.47	13.56	3.39	0.00	8.47
성주면	29.51	3.28	6.56	14.75	4.92	26.23	1.64	0.00	13.11
청라면	31.03	3.45	3.45	13.79	6.90	17.24	3.45	0.00	20.69
주교면	18.42	0.00	15.79	15.79	10.53	31.58	2.63	0.00	5.26
주포면	21.21	12.12	9.09	6.06	12.12	30.30	3.03	0.00	6.06
청소면	25.00	7.14	14.29	14.29	10.71	17.86	3.57	0.00	7.14
오천면	18.07	4.82	25.30	9.64	3.61	19.28	3.61	2.41	13.25
천북면	31.33	6.02	10.84	10.84	13.25	20.48	2.41	1.20	3.61
도서(섬)지역	5.26	5.26	5.26	10.53	2.63	13.16	0.00	0.00	57.89
기타	22.45	2.04	18.37	14.29	8.16	24.49	2.04	0.00	8.16
무응답	13.11	6.56	6.56	9.84	1.64	6.56	1.64	1.64	52.46
<b>보령시 계</b>	<b>24.67</b>	<b>3.99</b>	<b>10.55</b>	<b>13.07</b>	<b>6.30</b>	<b>24.41</b>	<b>2.89</b>	<b>1.21</b>	<b>12.91</b>

주) ① 아침 등교 및 출근시간, ② 오전시간, ③ 오후 및 하교시간, ④ 저녁 퇴근시간, ⑤ 초저녁시간, ⑥ 늦은 야간시간, ⑦ 새벽시간, ⑧ 기타를 의미

○ 지구대파출소 별로 대천파출소(37.2%), 웅천파출소(37%), 시민경찰(36.1%), 주포파출소(33.6%), 미산파출소(30.3%), 천북파출소(30.3%), 동대지구대(29.4%) 순으로 아침 등교 및 출근시간대를 응답하였고, 뒤이어 늦은 야간시간대를 희망함. 다만 해수욕장지구대는 늦은 야간시간이 32.3%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오천파출소는 오후 및 하교시간이 34%로 가장 높게 응답함

[표 IV-16] 지구대 및 파출소별 교통안전 활동 희망 시간대

(단위: %)

구분	빈도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무응답
동대지구대	62	5	24	38	9	60	6	7	211
	29.4%	2.4%	11.4%	18.0%	4.3%	28.4%	2.8%	3.3%	100.0%
해수욕장지구대	32	5	18	22	22	50	5	1	155
	20.6%	3.2%	11.6%	14.2%	14.2%	32.3%	3.2%	0.6%	100.0%
대천파출소	71	4	13	31	12	53	3	4	191
	37.2%	2.1%	6.8%	16.2%	6.3%	27.7%	1.6%	2.1%	100.0%
주포파출소	41	7	16	16	9	29	4	0	122
	33.6%	5.7%	13.1%	13.1%	7.4%	23.8%	3.3%	0.0%	100.0%
웅천파출소	30	7	9	8	7	16	3	1	81
	37.0%	8.6%	11.1%	9.9%	8.6%	19.8%	3.7%	1.2%	100.0%
미산파출소	30	9	13	16	7	20	4	0	99
	30.3%	9.1%	13.1%	16.2%	7.1%	20.2%	4.0%	0.0%	100.0%
천북파출소	23	3	8	11	10	17	3	1	76
	30.3%	3.9%	10.5%	14.5%	13.2%	22.4%	3.9%	1.3%	100.0%
오천파출소	5	4	17	8	2	10	2	2	50
	10.0%	8.0%	34.0%	16.0%	4.0%	20.0%	4.0%	4.0%	100.0%
시민경찰	26	3	4	10	10	19	0	0	72
	36.1%	4.2%	5.6%	13.9%	13.9%	26.4%	0.0%	0.0%	100.0%
보령경찰서	150	29	79	89	32	191	25	7	602
	24.9%	4.8%	13.1%	14.8%	5.3%	31.7%	4.2%	1.2%	100.0%

○ 성별로는 여성은 늦은 야간시간 31.8%, 아침 등교 및 출근시간 27.5%, 저녁시간 14.3%, 오후시간 11%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남성은 아침 등교 및 출근시간 29%, 늦은 야간시간 24.7%, 저녁시간 15.8%, 오후시간 13%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표 IV-17] 성별 교통안전 활동 희망 시간대

(단위: %)

구분	빈도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무응답
여자	217	28	87	113	60	251	21	12	789
	27.5%	3.5%	11.0%	14.3%	7.6%	31.8%	2.7%	1.5%	100.0%

남자	248	46	111	135	59	211	34	11	855
	29.0%	5.4%	13.0%	15.8%	6.9%	24.7%	4.0%	1.3%	100.0%

○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는 늦은 야간시간(각각 33.6%, 30.8%), 아침 등교 및 출근시간(각각 23%, 20.3%)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30대, 40대 및 50대는 아침 등교 및 출근시간(각각 33.8%, 37.4%, 30.5%), 늦은 야간시간(각각 26.1%, 22.2%, 24.2%)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60대는 아침 등교시간 및 출근시간과 늦은 야간시간을 가장 많이 응답(26.3%)하였으며 70대 이상에서는 아침 등교 및 출근시간과 오후 및 하교시간을 가장 많이 응답(22.8%)하여 연령별 교통안전활동 희망시간에 대한 차이를 보임

[표 IV-18] 연령별 교통안전활동 희망 시간대

(단위: %)

구분	빈도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무응답
19세 이하	124	25	69	79	29	181	26	6	539
	23.0%	4.6%	12.8%	14.7%	5.4%	33.6%	4.8%	1.1%	100.0%
20-29세	29	5	19	26	11	44	5	4	143
	20.3%	3.5%	13.3%	18.2%	7.7%	30.8%	3.5%	2.8%	100.0%
30-39세	53	6	17	27	8	41	5	0	157
	33.8%	3.8%	10.8%	17.2%	5.1%	26.1%	3.2%	0.0%	100.0%
40-49세	89	7	32	32	20	53	3	2	238
	37.4%	2.9%	13.4%	13.4%	8.4%	22.3%	1.3%	0.8%	100.0%
50-59세	78	15	26	35	26	62	7	7	256
	30.5%	5.9%	10.2%	13.7%	10.2%	24.2%	2.7%	2.7%	100.0%
60-69세	40	10	16	25	13	40	4	4	152
	26.3%	6.6%	10.5%	16.4%	8.6%	26.3%	2.6%	2.6%	100.0%
70세 이상	18	5	18	13	7	16	2	0	79
	22.8%	6.3%	22.8%	16.5%	8.9%	20.3%	2.5%	0.0%	100.0%

○ 직업별 응답에서는 전문·기술직(39.5%), 행정·관리직(37.1%), 일반 사무직(34.3%), 전업주부(34.2%), 자영업(27.9%), 판매·서비스직(27.4%), 무직·은퇴(25.8%)의 순으로 아침 등교 및 출근시간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고, 운수관련직은 저녁 퇴근시간을 가장 높게 응답(41.2%)하였으며, 생산관련직은 오후 및 하교시간과 늦은 야간시간을 23.1%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학생·대학생 역시 늦은 야간시간을 35.6%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

[표 IV-19] 연령대별 교통안전 활동 인식

(단위: 명, %)

구분	빈도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무응답
전문/기술직	51	2	9	19	9	37	2	0	129
	39.5%	1.6%	7.0%	14.7%	7.0%	28.7%	1.6%	0.0%	100.0%
행정/관리직	59	4	12	27	7	44	3	3	159
	37.1%	2.5%	7.5%	17.0%	4.4%	27.7%	1.9%	1.9%	100.0%
일반 사무직	49	5	12	17	12	41	2	5	143
	34.3%	3.5%	8.4%	11.9%	8.4%	28.7%	1.4%	3.5%	100.0%
운수 관련직	4	0	1	7	2	2	0	1	17
	23.5%	0.0%	5.9%	41.2%	11.8%	11.8%	0.0%	5.9%	100.0%
판매/서비스직	31	4	15	24	7	26	5	1	113
	27.4%	3.5%	13.3%	21.2%	6.2%	23.0%	4.4%	0.9%	100.0%
생산 관련직	2	2	3	1	1	3	0	1	13
	15.4%	15.4%	23.1%	7.7%	7.7%	23.1%	0.0%	7.7%	100.0%
농어임축산업 종사자	47	20	25	27	21	34	3	2	179
	26.3%	11.2%	14.0%	15.1%	11.7%	19.0%	1.7%	1.1%	100.0%
자영업	36	5	15	23	11	33	4	2	129
	27.9%	3.9%	11.6%	17.8%	8.5%	25.6%	3.1%	1.6%	100.0%
학생, 대학생	126	25	69	79	28	199	27	6	559
	22.5%	4.5%	12.3%	14.1%	5.0%	35.6%	4.8%	1.1%	100.0%
전업주부	27	2	14	7	10	18	1	0	79
	34.2%	2.5%	17.7%	8.9%	12.7%	22.8%	1.3%	0.0%	100.0%
무직/은퇴	16	1	12	11	7	9	5	1	62
	25.8%	1.6%	19.4%	17.7%	11.3%	14.5%	8.1%	1.6%	100.0%
기타	12	2	10	2	4	15	3	1	49
	24.5%	4.1%	20.4%	4.1%	8.2%	30.6%	6.1%	2.0%	100.0%

#### 4) 희망 교통안전 활동

- 희망 교통안전 활동 유형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위험지역 교통계도 활동에 대한 수요가 41.21%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교통법규위반 단속활동에 대한 수요가 23.2%로, 음주단속 활동에 대한 수요가 13.49% 순으로 나타남
- 다만 교통안전 활동 유형에 대한 수요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임
  - 주산면의 경우 위험지역 교통계도 활동에 대한 수요가 70% 이상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라면의 경우 24% 수준에 불과해 약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임
  - 마찬가지로 성주면이나 시내권, 기타지역의 경우 교통법규위반 단속활동과 음주단속 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천북면과 도서(섬) 지역의 경우 교통법규위반 단속 활동에 대한 수요가 낮고 주포면이나 오천면의 경우 음주단속 활동에 대한 수요가 낮음을 알 수 있음

[표 IV-20] 희망 교통안전 활동

(단위: 명, %, 점)

구분	빈도 (%)				
	교통법규위반 단속활동	위험지역 교통계도 활동	음주단속 활동	기타	무응답
시내권	28.40	39.96	15.42	3.45	12.78
대천해수욕장	19.20	41.60	16.80	4.00	18.40
웅천읍	10.20	43.88	11.22	4.08	30.61
남포면	21.50	45.79	14.95	4.67	13.08
주산면	14.81	70.37	3.70	0.00	11.11
미산면	18.64	66.10	1.69	3.39	10.17
성주면	24.59	32.79	21.31	0.00	21.31
청라면	24.14	24.14	10.34	13.79	27.59
주교면	10.53	57.89	7.89	0.00	23.68
주포면	24.24	45.45	6.06	0.00	24.24
청소면	28.57	32.14	10.71	3.57	25.00
오천면	25.30	42.17	7.23	2.41	22.89
천북면	6.02	45.78	14.46	3.61	30.12
도서(섬)지역	7.89	39.47	7.89	5.26	39.47
기타	30.61	36.73	18.37	0.00	14.29
무응답	6.56	16.39	1.64	1.64	73.77
<b>보령시 계</b>	<b>23.2</b>	<b>41.21</b>	<b>13.49</b>	<b>3.31</b>	<b>18.79</b>

○ 조사대상별로는 웅천파출소(75.8%), 주포파출소(67%), 천북파출소(64.8%), 미산파출소(64.1%), 해수욕장지구대(58.5%), 대천파출소(55.4%), 오천파출소(52.3%), 동대지구대(51.7%), 시민경찰(47%), 보령경찰서(38.1%) 순으로 모든 조사대상에서 위험지역 교통계도 활동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시민경찰(39.4%), 보령경찰서(37.8%), 오천파출소(31.8%), 동대지구대(27.8), 해수욕장지구대(24.5%), 대천파출소(22%), 미산파출소(20.7%)는 음주단속 활동을 뒤이어 응답하였으며, 천북파출소(18.5%), 주포파출소(17%), 웅천파출소(13.6%)는 음주단속활동을 뒤이어 응답하였음

[표 IV-21] 지구대 및 파출소별 희망 교통안전 활동

(단위: 명, %)

구분	빈도 (%)				
	교통법규위반 단속활동	위험지역 교통계도 활동	음주단속 활동	기타	무응답
동대지구대	60	112	32	12	216
	27.8%	51.9%	14.8%	5.6%	100.0%
해수욕장지구대	39	93	23	4	159
	24.5%	58.5%	14.5%	2.5%	100.0%
대천파출소	37	93	27	11	168
	22.0%	55.4%	16.1%	6.5%	100.0%
주포파출소	16	67	17	0	100
	16.0%	67.0%	17.0%	0.0%	100.0%
웅천파출소	5	50	9	2	66
	7.6%	75.8%	13.6%	3.0%	100.0%
미산파출소	19	59	13	1	92
	20.7%	64.1%	14.1%	1.1%	100.0%
천북파출소	6	35	10	3	54
	11.1%	64.8%	18.5%	5.6%	100.0%
오천파출소	14	23	6	1	44
	31.8%	52.3%	13.6%	2.3%	100.0%
시민경찰	26	31	7	2	66
	39.4%	47.0%	10.6%	3.0%	100.0%
보령경찰서	220	222	113	27	582
	37.8%	38.1%	19.4%	4.6%	100.0%

○ 성별로는 여성 51.4%, 남성 49.9%로 위험지도 교통계도 활동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뒤이어 교통법규위반 단속활동, 음주단속 활동의 순으로 동일하게 응답하였음

[표 IV-22] 성별 희망 교통안전 활동

(단위: 명, %)

구분	빈도 (%)				
	교통법규위반 단속활동	위험지역 교통계도 활동	음주단속 활동	기타	무응답
여자	212	379	117	30	738
	28.7%	51.4%	15.9%	4.1%	100.0%
남자	227	398	139	33	797
	28.5%	49.9%	17.4%	4.1%	100.0%

○ 연령별로는 10대는 교통법규위반 단속활동을 38.8%로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20대 39%, 30대 55.1%, 40대 69%, 50대 67.9%, 60대 69.7%, 70대 이상 32.9%로 위험지역 교통계도 활동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

[표 IV-23] 연령별 희망 교통안전 활동

(단위: 명, %)

구분	빈도 (%)				
	교통법규위반 단속활동	위험지역 교통계도 활동	음주단속 활동	기타	무응답
19세 이하	204	192	107	23	526
	38.8%	36.5%	20.3%	4.4%	100.0%
20-29세	53	55	24	9	141
	37.6%	39.0%	17.0%	6.4%	100.0%
30-39세	37	81	24	5	147
	25.2%	55.1%	16.3%	3.4%	100.0%
40-49세	36	156	27	5	224
	16.1%	69.6%	12.1%	2.2%	100.0%
50-59세	44	161	24	8	237
	18.6%	67.9%	10.1%	3.4%	100.0%
60-69세	30	71	14	4	119
	25.2%	59.7%	11.8%	3.4%	100.0%
70세 이상	22	26	24	7	79
	27.8%	32.9%	30.4%	8.9%	100.0%

○ 직업별 응답에서는 일반사무직(66.7%), 자영업(66.4), 전업주부(64.7%), 농·어·임·축산업 종사자(62.7%), 행정·관리직(60.7%), 판매·서비스직(55.1%), 전문·기술직(53.7%), 생산관련직(50%), 운수 관련직(47.1%)에서 위험지역 교통계도 활동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 다만 학생 39.4%, 무직·은퇴 41.8%로 교통법규위반 단속 활동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

[표 IV-24] 직업별 희망 교통안전 활동

(단위: 명, %)

구분	빈도 (%)				
	교통법규위반 단속활동	위험지역 교통계도 활동	음주단속 활동	기타	무응답
전문/기술직	34	66	21	2	123
	27.6%	53.7%	17.1%	1.6%	100.0%
행정/관리직	31	88	17	9	145
	21.4%	60.7%	11.7%	6.2%	100.0%

일반 사무직	25	90	13	7	135
	18.5%	66.7%	9.6%	5.2%	100.0%
운수 관련직	7	8	2	0	17
	41.2%	47.1%	11.8%	0.0%	100.0%
판매/서비스직	19	54	22	3	98
	19.4%	55.1%	22.4%	3.1%	100.0%
생산 관련직	4	6	1	1	12
	33.3%	50.0%	8.3%	8.3%	100.0%
농/어/임축산업 종사자	33	96	16	8	153
	21.6%	62.7%	10.5%	5.2%	100.0%
자영업	18	81	22	1	122
	14.8%	66.4%	18.0%	0.8%	100.0%
학생, 대학생	217	204	108	22	551
	39.4%	37.0%	19.6%	4.0%	100.0%
전업주부	13	44	9	2	68
	19.1%	64.7%	13.2%	2.9%	100.0%
무직/은퇴	23	17	10	5	55
	41.8%	30.9%	18.2%	9.1%	100.0%
기타	14	22	10	1	47
	29.8%	46.8%	21.3%	2.1%	100.0%

### 5) 교통사고 우려 이유

- 거주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과속이 22.78%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불법 주정차와 신호 위반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차선 도색 지워짐이나 농기계 도로 운행 등은 각각 1.99%와 4.62%로 낮은 응답 비중을 보이고 있음
- 불법 주정차의 경우 시내권은 약 20%의 응답을 보인 반면, 주교면, 주포면에서는 응답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마찬가지로 도서(섬) 지역은 무단 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가 전혀 없는 반면, 주포면은 20% 이상의 응답을 보이고 있어 지역 간 편차가 큼

[표 IV-25] 교통사고 우려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N (명)	빈도 (%)										
		과속	신호 위반	음주 운전	불법 주정차	무단 횡단	난폭 운전	시설 불부족	농기계 운행	도색 지워짐	어둠	기타
시내권	986	19.07	15.21	9.43	19.78	14.50	8.11	11.66	1.62	1.42	10.14	6.49
해수욕장	125	29.60	14.40	15.20	18.40	12.00	15.20	6.40	1.60	2.40	7.20	4.00
응천읍	98	28.57	13.27	11.22	16.33	11.22	10.20	18.37	7.14	1.02	6.12	6.12

남포면	107	16.82	10.28	17.76	7.48	10.28	10.28	19.63	15.89	3.74	28.04	1.87
주산면	27	37.04	7.41	3.70	3.70	7.41	22.22	18.52	3.70	0.00	11.11	11.11
미산면	59	38.98	5.08	3.39	5.08	5.08	11.86	8.47	8.47	1.69	6.78	5.08
성주면	61	32.79	3.28	6.56	11.48	8.20	11.48	19.67	1.64	1.64	9.84	4.92
청라면	29	27.59	10.34	6.90	10.34	6.90	6.90	6.90	3.45	0.00	13.79	3.45
주교면	38	21.05	10.53	5.26	0.00	5.26	15.79	15.79	10.53	0.00	7.89	5.26
주포면	33	30.30	27.27	6.06	0.00	21.21	9.09	9.09	15.15	3.03	9.09	6.06
청소면	28	32.14	7.14	7.14	3.57	7.14	0.00	7.14	10.71	0.00	14.29	3.57
오천면	83	28.92	6.02	4.82	12.05	4.82	8.43	12.05	9.64	1.20	14.46	2.41
천북면	83	31.33	0.00	7.23	12.05	9.64	13.25	14.46	14.46	7.23	16.87	7.23
도서지역	38	13.16	2.63	23.68	0.00	0.00	5.26	7.89	10.53	2.63	21.05	0.00
기타	49	22.45	18.37	8.16	14.29	12.24	10.20	4.08	2.04	6.12	10.20	0.00
무응답	61	14.75	13.11	11.48	6.56	13.11	4.92	4.92	1.64	3.28	4.92	0.00
<b>보령시 계</b>	<b>1,905</b>	<b>22.78</b>	<b>12.60</b>	<b>9.82</b>	<b>15.12</b>	<b>12.02</b>	<b>9.40</b>	<b>11.92</b>	<b>4.62</b>	<b>1.99</b>	<b>11.23</b>	<b>5.25</b>

## 6) 교통사고 발생 관련 요청사항

○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요청사항을 살펴보면, 과속 단속 카메라의 설치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수요가 각각 14.59%와 14.44%로 나타나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음. 그 다음으로는 신호등·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보강과 가로등 설치의 순임

- 이와 달리 중앙분리대 설치나 차선 도색에 대한 수요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26] 교통사고 발생 관련 요청사항(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N (명)	빈도 (%)										
		단속 카메라	중앙 분리 대	주정 차 단속	도로 개선 공사	과속 방지 턱	시설 물 보강	가로 등 설치	차선 도색	교통 단속	교통 계도	기타
시내권	986	13.69	5.17	19.27	5.78	6.39	15.92	11.05	2.64	16.84	6.09	4.67
해수욕장	125	12.80	3.20	20.00	10.40	13.60	11.20	10.40	4.00	17.60	8.80	1.60
웅천읍	98	21.43	2.04	11.22	10.20	11.22	16.33	6.12	0.00	8.16	11.22	6.12
남포면	107	14.95	0.93	3.74	22.43	13.08	20.56	36.45	4.67	12.15	5.61	0.00
주산면	27	29.63	0.00	3.70	3.70	22.22	14.81	7.41	0.00	3.70	11.11	0.00
미산면	59	18.64	0.00	5.08	15.25	10.17	16.95	11.86	1.69	10.17	8.47	3.39
성주면	61	13.11	0.00	11.48	13.11	11.48	11.48	16.39	1.64	11.48	3.28	6.56
청라면	29	17.24	0.00	6.90	17.24	6.90	6.90	13.79	13.79	6.90	0.00	0.00

주교면	38	10.53	0.00	2.63	7.89	13.16	10.53	13.16	2.63	7.89	7.89	13.16
주포면	33	12.12	0.00	3.03	9.09	15.15	12.12	9.09	3.03	18.18	6.06	9.09
청소면	28	10.71	3.57	3.57	7.14	3.57	7.14	7.14	7.14	21.43	14.29	14.29
오천면	83	22.89	0.00	6.02	9.64	13.25	10.84	16.87	3.61	6.02	12.05	2.41
천북면	83	19.28	1.20	8.43	21.69	24.10	13.25	18.07	9.64	8.43	10.84	0.00
도서지역	38	2.63	0.00	0.00	26.32	10.53	15.79	21.05	0.00	23.68	13.16	2.63
기타	49	16.33	2.04	22.45	2.04	6.12	4.08	12.24	6.12	22.45	6.12	2.04
무응답	61	4.92	3.28	9.84	8.20	8.20	3.28	8.20	0.00	6.56	1.64	3.28
<b>보령시 계</b>	<b>1,905</b>	<b>14.59</b>	<b>3.31</b>	<b>14.44</b>	<b>9.29</b>	<b>9.45</b>	<b>14.28</b>	<b>13.02</b>	<b>3.15</b>	<b>14.49</b>	<b>7.09</b>	<b>4.09</b>

### 3. 범죄안전도에 대한 인식도

#### 1) 거주지역 여성 안전도

○ 거주지역에서 여성의 야간 활동에 대한 안전도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보다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 미산면, 성주면, 오천면, 도서(섬)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평균이 3점 이하로 나타나 여성 안전에 대한 수준이 보통 이하인 것을 알 수 있음
- 그 중에서도 웅천읍, 주산면의 경우 여성 안전에 대한 응답이 각각 2.61점과 2.71점으로 나타나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음

[표 IV-27] 거주지역 여성 안전도 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N (명)	빈도 (%)						평균 (점)
		매우 위험	다소 위험	보통	다소 안전	매우 안전	무응답	
시내권	986	9.23	29.92	30.73	20.49	5.88	3.75	2.83
대천해수욕장	125	7.20	31.20	34.40	21.60	3.20	2.40	2.82
웅천읍	98	14.29	31.63	28.57	15.31	4.08	6.12	2.61
남포면	107	15.89	21.50	27.10	25.23	6.54	3.74	2.84
주산면	27	11.11	33.33	18.52	22.22	3.70	11.11	2.71
미산면	59	6.78	20.34	28.81	32.20	11.86	0.00	3.22
성주면	61	4.92	22.95	26.23	31.15	13.11	1.64	3.25
청라면	29	6.90	31.03	34.48	17.24	10.34	0.00	2.93
주교면	38	5.26	34.21	21.05	28.95	5.26	5.26	2.94
주포면	33	12.12	33.33	12.12	30.30	6.06	6.06	2.84
청소면	28	0.00	39.29	32.14	21.43	3.57	3.57	2.89
오천면	83	4.82	16.87	18.07	27.71	27.71	4.82	3.59
천북면	83	8.43	33.73	31.33	20.48	6.02	0.00	2.82
도서(섬)지역	38	0.00	10.53	18.42	52.63	18.42	0.00	3.79
기타	49	10.20	34.69	18.37	26.53	8.16	2.04	2.88
무응답	61	4.92	9.84	11.48	6.56	1.64	65.57	2.71
<b>보령시 계</b>	<b>1,905</b>	<b>8.82</b>	<b>28.14</b>	<b>28.14</b>	<b>22.26</b>	<b>7.19</b>	<b>5.46</b>	<b>2.90</b>

주) 5점 평균(점)은 ‘매우위험’ 부터 ‘매우안전’ 까지 1부터 5의 값을 설정 후, 각 응답의 평균값을 산출한 것임

○ 지구대별로는 오천파출소, 미산파출소, 해수욕장지구대에서 보통수준 이하로 위험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28] 지구대 및 파출소별 여성 안전도 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빈도 (%)					평균
	매우 위험	다소 위험	보통	다소 안전	매우 안전	
동대지구대	14	42	98	62	14	3.09
	6.1%	18.3%	42.6%	27.0%	6.1%	
해수욕장 지구대	22	59	60	45	13	2.84
	11.1%	29.6%	30.2%	22.6%	6.5%	
대천파출소	3	29	72	70	17	3.36
	1.6%	15.2%	37.7%	36.6%	8.9%	
주포파출소	4	41	34	44	8	3.08
	3.1%	31.3%	26.0%	33.6%	6.1%	
웅천파출소	3	16	27	30	12	3.36
	3.4%	18.2%	30.7%	34.1%	13.6%	
미산파출소	12	37	34	25	2	2.71
	10.9%	33.6%	30.9%	22.7%	1.8%	
천북파출소	4	18	25	26	5	3.13
	5.1%	23.1%	32.1%	33.3%	6.4%	
오천파출소	12	15	6	13	3	2.59
	24.5%	30.6%	12.2%	26.5%	6.1%	
시민경찰	3	9	27	32	10	3.46
	3.7%	11.1%	33.3%	39.5%	12.3%	
보령경찰서	60	158	153	189	84	3.12
	9.3%	24.5%	23.8%	29.3%	13.0%	

○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위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조사 결과에서는 지역의 여성 안전도에 대하여 남성이 더 위험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29] 성별 여성 안전도 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빈도 (%)					전체
	매우 위험	다소 위험	보통	다소 안전	매우 안전	
여자	35	136	266	310	111	3.38
	4.1%	15.9%	31.0%	36.1%	12.9%	
남자	101	283	265	220	56	2.83
	10.9%	30.6%	28.6%	23.8%	6.1%	

○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노년층에서 여성안전에 대하여 가장 위험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30] 연령별 여성 안전도 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빈도 (%)					전체
	매우 위험	다소 위험	보통	다소 안전	매우 안전	
19세 이하	57	140	123	166	80	3.13
	10.1%	24.7%	21.7%	29.3%	14.1%	
20-29세	14	20	54	50	14	3.20
	9.2%	13.2%	35.5%	32.9%	9.2%	
30-39세	5	45	58	48	14	3.12
	2.9%	26.5%	34.1%	28.2%	8.2%	
40-49세	12	60	95	85	14	3.11
	4.5%	22.6%	35.7%	32.0%	5.3%	
50-59세	20	65	91	91	15	3.06
	7.1%	23.0%	32.3%	32.3%	5.3%	
60-69세	13	45	55	44	17	3.04
	7.5%	25.9%	31.6%	25.3%	9.8%	
70세 이상	9	24	28	28	6	2.98
	9.5%	25.3%	29.5%	29.5%	6.3%	

○ 직업별로는 농림, 어업, 임업, 축산업 종사자에서 가장 위험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생산관련직과 은퇴 또는 무직인 계층에서 보통 수준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31] 직업별 여성 안전도 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빈도 (%)					전체
	매우 위험	다소 위험	보통	다소 안전	매우 안전	
전문/기술직	9	27	54	45	9	3.13
	6.3%	18.8%	37.5%	31.3%	6.3%	
행정/관리직	8	45	57	47	10	3.04
	4.8%	26.9%	34.1%	28.1%	6.0%	
일반 사무직	3	20	57	63	14	3.41
	1.9%	12.7%	36.3%	40.1%	8.9%	
운수 관련직	0	6	12	5	1	3.04
	0.0%	25.0%	50.0%	20.8%	4.2%	
판매/서비스직	4	24	37	43	6	3.20
	3.5%	21.1%	32.5%	37.7%	5.3%	
생산 관련직	0	4	5	3	0	2.92
	0.0%	33.3%	41.7%	25.0%	0.0%	
농/어/임/축산 업 종사자	28	69	60	39	16	2.75
	13.2%	32.5%	28.3%	18.4%	7.5%	
자영업	7	29	56	39	11	3.13
	4.9%	20.4%	39.4%	27.5%	7.7%	
학생, 대학생	62	142	124	178	84	3.14
	10.5%	24.1%	21.0%	30.2%	14.2%	
전업주부	5	22	27	29	4	3.06
	5.7%	25.3%	31.0%	33.3%	4.6%	
무직/은퇴	9	16	18	17	6	2.92
	13.6%	24.2%	27.3%	25.8%	9.1%	
기타	2	11	20	19	4	3.21
	3.6%	19.6%	35.7%	33.9%	7.1%	

## 2) 심야 시간대 불안 이유

- “귀하의 거주지역(읍면동)에서 밤중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불안하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 문항에 대한 질문에는 ‘밤에 술취한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어서’ 라는 응답과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이 순찰을 잘 돌지 않아서’ 의 응답이 가장 많았음

[표 IV-32] 심야 시간대 불안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N (명)	빈도 (%)									
		범죄 피해 이웃 많음	나와 가족의 범죄피 해 경험	술 취한 사람의 목격 찾음	싸움하 는 사람의 목격 찾음	도박 하는 사람의 목격 찾음	경찰관 순찰 빈도 낮음	불량배 , 불량청 소년 목격 찾음	외국인 모임의 목격 찾음	언론의 찾은 우리지 역 범죄보 도	기타
시내권	986	2.03	0.91	39.05	9.43	1.52	18.36	13.29	8.22	6.49	10.55
해수욕장	125	3.20	0.80	50.40	11.20	0.00	7.20	11.20	18.40	4.00	8.80
웅천읍	98	4.08	2.04	22.45	3.06	3.06	7.14	7.14	10.20	5.10	10.20
남포면	107	0.93	5.61	13.08	10.28	0.93	19.63	0.93	2.80	7.48	13.08
주산면	27	3.70	0.00	7.41	0.00	3.70	11.11	3.70	0.00	0.00	22.22
미산면	59	0.00	0.00	8.47	1.69	0.00	5.08	0.00	5.08	5.08	22.03
성주면	61	4.92	1.64	14.75	4.92	1.64	9.84	4.92	1.64	8.20	22.95
청라면	29	3.45	10.34	6.90	3.45	3.45	31.03	6.90	6.90	3.45	17.24
주교면	38	2.63	0.00	10.53	2.63	0.00	15.79	0.00	15.79	2.63	15.79
주포면	33	3.03	3.03	6.06	0.00	0.00	12.12	0.00	6.06	0.00	27.27
청소면	28	3.57	7.14	0.00	0.00	0.00	14.29	0.00	21.43	7.14	14.29
오천면	83	1.20	1.20	12.05	6.02	0.00	6.02	3.61	2.41	2.41	10.84
천북면	83	2.41	1.20	9.64	2.41	0.00	2.41	0.00	32.53	6.02	13.25
도서지역	38	0.00	0.00	21.05	0.00	0.00	0.00	0.00	2.63	7.89	0.00
기타	49	2.04	0.00	16.33	0.00	0.00	20.41	10.20	4.08	6.12	18.37
무응답	61	0.00	0.00	11.48	9.84	3.28	8.20	3.28	6.56	3.28	3.28
보령시 계	1,905	2.15	1.42	28.82	7.35	1.26	14.44	8.87	9.08	5.72	11.92

- 야간에 혼자 이동하는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 지구대파출소 별 응답을 보면 웅천파출소, 미산파출소, 천북파출소, 오천파출소를 제외한 모든 지구대 파출소에서 음주자로 인한 불안을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미산파출소와 웅천파출소, 오천파출소에서는 기타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천북 파출소는 외국인 목격에 따른 불안 빈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남

[표 IV-33] 지구대 및 파출소별 심야 시간대 불안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N (명)	빈도 (%)									
		범죄 피해 이웃 많음	나와 가족의 범죄피 해 경험	술 취한 사람의 목격 찾음	싸움하 는 사람의 목격 찾음	도박 하는 사람의 목격 찾음	경찰관 순찰 빈도 낮음	불량배 , 불량청 소년 목격 찾음	외국인 모임의 목격 찾음	언론의 찾은 우리지 역 범죄보 도	기타
동대 지구대	226	6	2	87	16	3	26	32	23	8	23

해수욕장지구대	154	3	4	64	19	1	10	11	12	18	12
대천파출소	244	5	2	88	20	1	34	24	28	17	25
주포파출소	98	5	3	27	6	1	12	5	14	11	14
웅천파출소	62	3	1	14	2	3	6	5	9	4	15
미산파출소	72	2	1	16	4	2	5	3	5	8	26
천북파출소	56	2	1	9	2	0	2	0	24	6	10
오천파출소	28	1	1	6	3	0	4	3	1	0	9
시민경찰보령경찰서	96	1	2	24	6	2	15	15	10	7	14
	717	13	10	214	62	11	161	71	47	30	98

○ 성별 구분과 무관하게 주취자의 목격으로 안전에 많은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경찰관 순찰 빈도로 인한 불안감을 나타냄

[표 IV-34] 성별 심야 시간대 불안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N (명)	빈도 (%)									
		범죄 피해 당한 이웃 많음	나와 가족의 범죄피해 경험	술 취한 사람의 목격 잦음	싸움 하는 사람의 목격 잦음	도박 하는 사람의 목격 잦음	경찰관 순찰 빈도 낮음	불량배, 불량청소년 목격 잦음	외국인 모임의 목격 잦음	언론의 잦은 우리지역 범죄보도	기타
여자	636	20	15	321	82	17	172	102	97	72	146
남자	490	21	12	225	55	7	102	67	75	36	98

○ 연령별로도 가장 낮은 불안감을 느끼는 원인으로 주취자의 목격에 의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대 ~ 30대는 순찰빈도가 낮은 것을, 40대 이상에서는 외국인이 모여있는것에대한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간 차이를 나타냄

○ 이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나 공포심이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쪽에서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외국인에 의한 범죄 발생 사실관계를 떠나 사고

의 개방성이나 다양성에 대한 인정 등에서 보다 보수적인 층에서 외국인이 모여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더 강한 것으로 풀이됨

[표 IV-35] 연령별 심야 시간대 불안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N (명)	빈도 (%)									
		범죄 피해 당한 이웃 많음	나와 가족의 범죄피 해 경험	술 취한 사람의 목격 자됨	싸움 하는 사람의 목격 자됨	도박 하는 사람의 목격 자됨	경찰관 순찰 빈도 낮음	불량배 , 불량청 소년 목격 자됨	외국인 모임의 목격 자됨	언론의 찾은 우리지 역 범죄보 도	기타
19세이하	357	11	7	195	48	7	154	63	44	19	87
20-29세	110	3	2	65	14	1	21	16	14	11	21
30-39세	115	3	1	58	18	3	21	23	12	11	24
40-49세	188	7	6	91	26	2	28	30	32	24	31
50-59세	166	7	3	61	12	2	25	12	31	16	44
60-69세	94	7	3	29	8	7	9	13	25	13	18
70세이상	52	1	2	20	7	1	10	7	4	10	7

- 직업별로도 전 직업군에서 술취한 사람을 자주 볼 때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차 순위 응답으로는 행정관리직 일반 사무관리직, 농림어업, 축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등의 경우 외국인에 의한 불안감이 높은 반면 전문기술직이나 판매서비스직, 학생 군에서는 경찰관의 순찰 빈도가 낮은 것을 불안요인으로 응답함
- 주부나 은퇴계층에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통해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36] 직업별 심야 시간대 불안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N (명)	빈도 (%)									
		범죄 피해 이웃 많음	나와 가족의 범죄피 해 경험	술 취한 사람의 목격 자됨	싸움 하는 사람의 목격 자됨	도박 하는 사람의 목격 자됨	경찰관 순찰 빈도 낮음	불량배 , 불량청 소년 목격 자됨	외국인 모임의 목격 자됨	언론의 자른 우리지 역 범죄보 도	기타
전문/기술직	97	7	5	42	13	6	20	13	9	14	21
행정/관리직	107	5	1	49	7	0	17	18	18	11	28
일반 사무직	120	4	3	52	8	1	25	24	29	9	26
운수 관련직	13	0	0	7	1	0	2	1	3	3	2
판매/서비스직	78	1	0	43	7	3	17	10	12	10	13
생산 관련직	5	1	2	2	1	1	2	1	2	1	2
농/어/임 /축산업 종사자	90	9	6	25	13	1	8	5	18	9	18
자영업	92	1	1	40	18	2	6	7	18	11	18
학생, 대학생	379	11	6	216	51	6	157	64	46	17	91
전업 주부	53	0	1	26	4	0	6	7	7	12	8
무직 /은퇴	38	0	0	15	3	1	4	6	2	5	11
기타	41	2	2	20	9	1	7	12	6	5	5

### 3) 지역행사에 대한 위험 인식: 불안감

- 지역행사 개최에 따른 외부인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응답자 비중은 전체의 10.07%에 불과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함

- 특히 주산면, 오천면, 청라면의 세 지역의 경우 외부인 불안감의 평균값이 5점 만점 대비 2점 이하를 기록함
- 나머지 지역에서도 모두 외부인 증가로 인한 불안 인식이 3점 이하로 나타나 지역행사 개최로 인한 외부인 증가가 반드시 안전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음

[표 IV-37] 지역행사 안전도 인식: 외부인 불안감

(단위: 명, %, 점)

구분	N (명)	빈도 (%)						평균 (점)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시내권	986	26.17	34.99	24.54	9.13	1.42	3.75	2.22
대천해수욕장	125	21.60	33.60	26.40	10.40	4.00	4.00	2.39
웅천읍	98	29.59	37.76	14.29	6.12	2.04	10.20	2.03
남포면	107	19.63	31.78	24.30	10.28	5.61	8.41	2.46
주산면	27	62.96	25.93	7.41	0.00	0.00	3.70	1.42
미산면	59	45.76	30.51	20.34	3.39	0.00	0.00	1.81
성주면	61	36.07	31.15	29.51	3.28	0.00	0.00	2.00
청라면	29	41.38	41.38	3.45	6.90	6.90	0.00	1.97
주교면	38	34.21	26.32	28.95	2.63	0.00	7.89	2.00
주포면	33	27.27	39.39	15.15	6.06	0.00	12.12	2.00
청소면	28	35.71	21.43	25.00	14.29	0.00	3.57	2.19
오천면	83	53.01	19.28	13.25	13.25	1.20	0.00	1.90
천북면	83	26.51	33.73	24.10	9.64	0.00	6.02	2.18
도서(섬)지역	38	44.74	15.79	34.21	5.26	0.00	0.00	2.00
기타	49	22.45	36.73	22.45	14.29	0.00	4.08	2.30
무응답	61	6.56	9.84	19.67	1.64	0.00	62.30	2.43
<b>보령시 계</b>	<b>1,905</b>	<b>28.50</b>	<b>32.39</b>	<b>22.99</b>	<b>8.50</b>	<b>1.57</b>	<b>6.04</b>	<b>2.17</b>

주) 5점 평균(점)은 ‘전혀 아니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1부터 5의 값을 설정 후, 각 응답의 평균값을 산출한 것임.

#### 4) 지역행사에 대한 위험 인식: 절도

- 지역행사에 따른 외지인 절도에 대한 불안 또한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
  - 외지인 절도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은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10.92%,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1.63%로 전체의 13% 이하 수준임
  - 전반적으로 외지인 증가에 따른 절도 문제와 그에 대한 안전 인식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IV-38] 지역행사 안전도 인식: 절도

(단위: 명, %, 점)

구분	N (명)	빈도 (%)						평균 (점)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시내권	986	24.24	32.66	26.67	10.85	1.42	4.16	2.30
대천해수욕장	125	20.80	29.60	27.20	12.80	4.80	4.80	2.49
웅천읍	98	22.45	31.63	27.55	6.12	2.04	10.20	2.26
남포면	107	18.69	32.71	23.36	14.95	4.67	5.61	2.51
주산면	27	51.85	33.33	3.70	7.41	0.00	3.70	1.65
미산면	59	42.37	37.29	18.64	1.69	0.00	0.00	1.80
성주면	61	34.43	22.95	29.51	13.11	0.00	0.00	2.21
청라면	29	41.38	27.59	13.79	13.79	3.45	0.00	2.10
주교면	38	34.21	31.58	15.79	10.53	0.00	7.89	2.03
주포면	33	27.27	42.42	6.06	9.09	3.03	12.12	2.07
청소면	28	35.71	17.86	21.43	17.86	3.57	3.57	2.33
오천면	83	44.58	25.30	15.66	12.05	1.20	1.20	1.99
천북면	83	22.89	42.17	19.28	9.64	0.00	6.02	2.17
도서(섬)지역	38	23.68	34.21	26.32	15.79	0.00	0.00	2.34
기타	49	20.41	40.82	20.41	14.29	0.00	4.08	2.30
무응답	61	8.20	16.39	19.67	8.20	0.00	47.54	2.53
<b>보령시 계</b>	<b>1,905</b>	<b>25.77</b>	<b>31.92</b>	<b>24.04</b>	<b>10.92</b>	<b>1.63</b>	<b>5.72</b>	<b>2.27</b>

주) 5점 평균(점)은 ‘전혀 아니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1부터 5의 값을 설정 후, 각 응답의 평균값을 산출한 것임.

## 5) 지역행사에 대한 위협 인식: 폭행 및 살인

○ 지역행사에 따른 외지 관광객 폭행 및 살인에 대한 불안 인식은 전체 5점 만점에 2.39점으로 나타나 역시 대체로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음

- 다만 이는 외지인 절도의 2.39점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에 해당함
- 지역별로는 주산면, 미산면, 오천면, 성주면은 2점 이하를 기록한 반면, 대천해수욕장과 남포면의 경우 2.5점 이상을 기록하여 지역 간 차이를 보여줌

[표 IV-39] 지역행사 안전도 인식: 외지 관광객 폭행 및 살인

(단위: 명, %, 점)

구분	N (명)	빈도 (%)						평균 (점)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시내권	986	20.99	28.80	25.66	17.65	2.54	4.36	2.50
대천해수욕장	125	15.20	28.80	28.80	20.00	4.00	3.20	2.68
웅천읍	98	13.27	41.84	22.45	10.20	0.00	12.24	2.34
남포면	107	19.63	29.91	23.36	15.89	4.67	6.54	2.53
주산면	27	48.15	37.04	7.41	3.70	0.00	3.70	1.65
미산면	59	38.98	33.90	23.73	1.69	0.00	1.69	1.88
성주면	61	37.70	36.07	19.67	6.56	0.00	0.00	1.95
청라면	29	31.03	31.03	6.90	27.59	3.45	0.00	2.41
주교면	38	26.32	34.21	15.79	10.53	5.26	7.89	2.29
주포면	33	27.27	30.30	12.12	15.15	0.00	15.15	2.18
청소면	28	35.71	17.86	21.43	21.43	0.00	3.57	2.30
오천면	83	40.96	33.73	16.87	7.23	1.20	0.00	1.94
천북면	83	21.69	39.76	20.48	10.84	0.00	7.23	2.22
도서(섬)지역	38	36.84	26.32	15.79	15.79	5.26	0.00	2.26
기타	49	22.45	30.61	28.57	12.24	2.04	4.08	2.38
무응답	61	8.20	16.39	16.39	8.20	1.64	49.18	2.58
<b>보령시 계</b>	<b>1,905</b>	<b>23.04</b>	<b>30.34</b>	<b>23.25</b>	<b>15.07</b>	<b>2.26</b>	<b>6.04</b>	<b>2.39</b>

주) 5점 평균(점)은 ‘전혀 아니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1부터 5의 값을 설정 후, 각 응답의 평균값을 산출한 것임.

- 지역행사로 인해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에 의한 폭행 및 살인에 대해서는 대체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우세하였으며, 미산파출소에서 불안정도가 가장 낮았음
- 상대적으로 대천파출소, 동대지구대, 주포파출소, 해수욕장지구대에서 2.5점 이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표 IV-40] 지구대 파출소별 지역행사 안전도 인식: 외지 관광객 폭행 및 살인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동대지구대	32	79	63	48	6	2.64
해수욕장지구대	39	68	48	37	8	2.54
대천파출소	25	62	50	50	6	2.74
주포파출소	25	41	28	25	8	2.61
응천파출소	15	39	21	9	0	2.29
미산파출소	43	39	21	7	0	1.93
천북파출소	15	35	15	7	0	2.19
오천파출소	24	9	11	5	1	2.00
시민경찰	18	19	25	17	3	2.61
보령경찰서	203	187	161	82	11	2.24

-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다소 불안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41] 성별 지역행사 안전도 인식: 외지 관광객 폭행 및 살인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여자	144	253	251	176	29	2.64
남자	291	320	190	107	13	2.17

- 연령별로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50~60대 보다는 30~40대에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42] 연령별 지역행사 안전도 인식: 외지 관광객 폭행 및 살인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19세 이하	185	149	137	71	12	2.23
20-29세	41	40	39	30	5	2.47
30-39세	18	51	49	48	7	2.86
40-49세	43	96	72	53	3	2.54
50-59세	62	109	68	41	7	2.38
60-69세	42	72	34	18	2	2.20
70세 이상	19	33	25	11	3	2.41

## 6) 지역행사에 대한 위험 인식: 성희롱 및 성폭력

- 외지 관광객으로 인한 성희롱 및 성폭력 위험 인식의 경우 전체적으로 2.52점을 기록하여 지역행사에 대한 위험 인식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줌
  - 이는 외지인 증가에 따른 다양한 불안 유형 중 성희롱이나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불안이 비교적 전 지역에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줌
  - 이는 향후 지역행사 개최로 인한 안전 문제에 있어 성범죄 관련 문제에 보다 집중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함

[표 IV-43] 지역행사 안전도 인식: 외지 관광객 성희롱 및 성폭력

(단위: 명, %, 점)

구분	N (명)	빈도 (%)						평균 (점)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시내권	986	18.76	24.95	26.17	22.11	3.65	4.36	2.65
대천해수욕장	125	13.60	25.60	21.60	28.00	7.20	4.00	2.89
웅천읍	98	14.29	34.69	27.55	11.22	1.02	11.22	2.44
남포면	107	16.82	30.84	20.56	16.82	7.48	7.48	2.65
주산면	27	37.04	44.44	11.11	3.70	0.00	3.70	1.81
미산면	59	35.59	37.29	23.73	3.39	0.00	0.00	1.95
성주면	61	40.98	31.15	26.23	1.64	0.00	0.00	1.89
청라면	29	31.03	31.03	6.90	20.69	6.90	3.45	2.39
주교면	38	26.32	36.84	15.79	10.53	2.63	7.89	2.20

주포면	33	24.24	33.33	12.12	15.15	3.03	12.12	2.31
청소면	28	32.14	17.86	25.00	21.43	0.00	3.57	2.37
오천면	83	38.55	31.33	19.28	9.64	0.00	1.20	2.00
천북면	83	22.89	32.53	21.69	14.46	1.20	7.23	2.34
도서(섬)지역	38	31.58	34.21	13.16	18.42	2.63	0.00	2.26
기타	49	24.49	22.45	30.61	18.37	0.00	4.08	2.45
무응답	61	8.20	11.48	19.67	11.48	0.00	49.18	2.68
<b>보령시 계</b>	<b>1,905</b>	<b>21.31</b>	<b>27.35</b>	<b>23.73</b>	<b>18.37</b>	<b>3.15</b>	<b>6.09</b>	<b>2.52</b>

주) 5점 평균(점)은 ‘전혀 아니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1부터 5의 값을 설정 후, 각 응답의 평균값을 산출한 것임.

○ 지구대파출소별로는 대천파출소, 시민경찰, 동대지구대, 해수욕장지구대에서는 2.5점 이상을 나타내 상대적으로 위험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미산파출소는 2.0 미만으로 성희롱·성폭행 등 관련 위험에 대해 비교적 낮은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44] 지구대 및 파출소별 지역행사 안전도 인식: 외지 관광객 성희롱 및 성폭력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동대지구대	34	64	66	52	12	2.75
해수욕장지구대	38	67	37	47	10	2.62
대천파출소	23	54	50	55	11	2.88
주포파출소	22	39	28	34	5	2.70
웅천파출소	14	36	28	8	0	2.35
미산파출소	43	38	22	6	0	1.92
천북파출소	16	28	17	10	1	2.33
오천파출소	19	10	13	7	0	2.16
시민경찰	16	12	31	18	5	2.80
보령경찰서	181	173	160	113	16	2.39

○ 성희롱·성폭력 위험에 대한 불안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45] 성별 지역행사 안전도 인식: 외지 관광객 성희롱 및 성폭력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여자	132	213	241	226	40	2.80
남자	269	305	208	121	19	2.26

○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40대로 나타났고 60대 이상에서는 불안감이 다소 낮았음. 30~40대가 각종 범죄나 위험 우려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어린자녀를 둔 세대의 민감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됨

[표 IV-46] 연령별 지역행사 안전도 인식: 외지 관광객 성희롱 및 성폭력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19세 이하	170	135	129	102	18	2.39
20-29세	37	40	37	36	5	2.56
30-39세	15	48	51	48	11	2.95
40-49세	42	76	76	65	9	2.71
50-59세	63	89	78	45	10	2.47
60-69세	35	69	39	22	3	2.34
70세 이상	19	33	28	9	2	2.36

## 7) 지역행사에 대한 위험 인식: 시설물 파손

○ 지역행사에 따른 외지 관광객 시설물 파손에 대한 불안 인식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9.08%가 시설물 파손이 우려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불안 수준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산면의 경우 5점 만점 대비 1.85점을 기록하여 가장 낮은 불안 인식을 보여주는 반면, 대천 해수욕장의 경우 2.79점으로 약 1.5배 가까운 차이를 보임

[표 IV-47] 지역행사 안전도 인식: 외지 관광객 시설물 파손

(단위: 명, %, 점)

구분	N (명)	빈도 (%)						평균 (점)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시내권	986	19.07	27.79	29.82	16.84	2.13	4.36	2.53
대천해수욕장	125	13.60	24.00	33.60	20.80	4.80	3.20	2.79
웅천읍	98	17.35	37.76	22.45	9.18	2.04	11.22	2.33
남포면	107	16.82	29.91	22.43	19.63	4.67	6.54	2.63
주산면	27	37.04	48.15	3.70	3.70	3.70	3.70	1.85
미산면	59	32.20	28.81	25.42	13.56	0.00	0.00	2.20
성주면	61	22.95	21.31	34.43	19.67	1.64	0.00	2.56
청라면	29	31.03	27.59	20.69	10.34	6.90	3.45	2.32
주교면	38	26.32	36.84	13.16	10.53	5.26	7.89	2.26
주포면	33	24.24	33.33	21.21	9.09	0.00	12.12	2.17
청소면	28	35.71	10.71	17.86	32.14	0.00	3.57	2.48
오천면	83	40.96	25.30	20.48	8.43	4.82	0.00	2.11
천북면	83	21.69	39.76	12.05	19.28	0.00	7.23	2.31
도서(섬)지역	38	23.68	26.32	28.95	15.79	2.63	2.63	2.46
기타	49	28.57	26.53	28.57	12.24	0.00	4.08	2.26
무응답	61	9.84	8.20	21.31	9.84	1.64	49.18	2.71
<b>보령시 계</b>	<b>1,905</b>	<b>21.05</b>	<b>28.03</b>	<b>26.61</b>	<b>15.91</b>	<b>2.41</b>	<b>5.98</b>	<b>2.47</b>

주) 5점 평균(점)은 ‘전혀 아니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1부터 5의 값을 설정 후, 각 응답의 평균값을 산출한 것임.

## 8) 지역행사에 대한 위험 인식: 풍기문란

○ 외지인의 풍기문란으로 인한 영향을 우려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20.32%로 낮은 수준임

- 그러나 풍기문란으로 인한 위험 인식은 5점 만점 대비 2.5점으로 외지 관광객의 성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냄
- 특히 주산면의 경우 풍기문란을 우려하는 응답자의 비중은 3.7%에 불과한 반면, 대천 해수욕장의 경우 30.4%로 약 8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 간 편차가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IV-48] 지역행사 안전도 인식: 풍기문란

(단위: 명, %, 점)

구분	N (명)	빈도 (%)						평균 (점)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시내권	986	20.69	26.37	26.37	18.46	4.06	4.06	2.57
대천해수욕장	125	14.40	22.40	28.80	22.40	8.00	4.00	2.87
웅천읍	98	15.31	33.67	27.55	11.22	1.02	11.22	2.43
남포면	107	15.89	30.84	23.36	14.95	7.48	7.48	2.65
주산면	27	37.04	40.74	14.81	3.70	0.00	3.70	1.85
미산면	59	30.51	38.98	20.34	10.17	0.00	0.00	2.10
성주면	61	27.87	34.43	24.59	11.48	1.64	0.00	2.25
청라면	29	37.93	31.03	13.79	10.34	6.90	0.00	2.17
주교면	38	31.58	26.32	21.05	13.16	0.00	7.89	2.17
주포면	33	24.24	36.36	6.06	18.18	3.03	12.12	2.31
청소면	28	32.14	14.29	17.86	28.57	3.57	3.57	2.56
오천면	83	40.96	22.89	24.10	12.05	0.00	0.00	2.07
천북면	83	22.89	28.92	22.89	16.87	2.41	6.02	2.44
도서(섬)지역	38	28.95	15.79	31.58	18.42	2.63	2.63	2.49
기타	49	22.45	32.65	30.61	10.20	0.00	4.08	2.30
무응답	61	13.11	6.56	16.39	16.39	1.64	45.90	2.76
<b>보령시 계</b>	<b>1,905</b>	<b>22.15</b>	<b>26.93</b>	<b>24.88</b>	<b>16.75</b>	<b>3.57</b>	<b>5.72</b>	<b>2.50</b>

주) 5점 평균(점)은 ‘전혀 아니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1부터 5의 값을 설정 후, 각 응답의 평균값을 산출한 것임.

○ 지구대파출소별로는 시민경찰, 대천파출소, 동대지구대, 주포파출소 해수욕장지구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불안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보령경찰서, 미산파출소, 오천파출소는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낮았음

[표 IV-49] 지구대 및 파출소별 지역행사 안전도 인식: 풍기문란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동대지구대	33	60	70	51	15	2.80
해수욕장지구대	40	44	58	43	15	2.75
대천파출소	21	57	52	49	15	2.90
주포파출소	24	35	22	39	8	2.78
웅천파출소	15	35	26	9	1	2.37
미산파출소	32	40	21	17	1	2.23
천북파출소	16	25	17	13	2	2.45
오천파출소	19	10	12	9	0	2.22
시민경찰	10	15	31	22	3	2.91
보령경찰서	212	192	165	67	8	2.17

○ 풍기문란 등 외지인으로 인하여 자녀세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우려하는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음

[표 IV-50] 성별 지역행사 안전도 인식: 풍기문란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여자	148	226	248	188	45	2.71
남자	269	282	224	127	22	2.30

○ 연령별 구분에서도 30~40대가 가장 높은 불안을 나타냈으며, 10에서는 가장 낮았음

[표 IV-51] 지역행사 안전도 인식: 풍기문란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19세 이하	197	158	135	54	8	2.13
20-29세	37	40	41	26	11	2.57
30-39세	17	46	55	46	10	2.92

40-49세	38	65	79	74	14	2.86
50-59세	52	85	78	56	14	2.63
60-69세	34	62	41	30	4	2.46
70세 이상	22	29	29	11	3	2.40

### 9) 거주지역 범죄 발생가능성: 외부 강도

○ 향후 1년 간 집밖에서 강도를 경험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중은 전체의 3.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외부 강도 발생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볼 때에도 전체 5점 만점 중 전체 응답 값은 2.03을 기록하고 있어 보통 수준인 3점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여줌
- 세부적으로는 미산면과 성주면이 각각 1.54와 1.64로 외부 강도 발생 가능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는 반면, 남포면과 청소면의 경우 각각 2.22점과 2.18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강도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중이 큼

[표 IV-52] 거주지역 범죄 발생가능성: 외부 강도

(단위: 명, %, 점)

구분	N (명)	빈도 (%)						평균 (점)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응답	
시내권	986	26.06	37.12	28.19	4.06	0.41	4.16	2.12
대천해수욕장	125	20.00	49.60	24.00	1.60	0.80	4.00	2.10
웅천읍	98	28.57	40.82	19.39	1.02	0.00	10.20	1.92
남포면	107	24.30	31.78	29.91	7.48	0.00	6.54	2.22
주산면	27	44.44	33.33	18.52	0.00	0.00	3.70	1.73
미산면	59	59.32	28.81	10.17	1.69	0.00	0.00	1.54
성주면	61	47.54	42.62	8.20	1.64	0.00	0.00	1.64
청라면	29	37.93	34.48	20.69	0.00	0.00	6.90	1.81
주교면	38	26.32	36.84	28.95	0.00	0.00	7.89	2.03
주포면	33	33.33	48.48	9.09	0.00	0.00	9.09	1.73
청소면	28	21.43	42.86	32.14	3.57	0.00	0.00	2.18
오천면	83	51.81	32.53	13.25	1.20	1.20	0.00	1.67
천북면	83	30.12	48.19	12.05	3.61	0.00	6.02	1.88

도서(섬)지역	38	47.37	36.84	7.89	2.63	2.63	2.63	1.73
기타	49	24.49	42.86	26.53	2.04	0.00	4.08	2.06
무응답	61	8.20	22.95	16.39	4.92	0.00	47.54	2.34
<b>보령시 계</b>	<b>1,905</b>	<b>29.03</b>	<b>37.90</b>	<b>23.67</b>	<b>3.31</b>	<b>0.37</b>	<b>5.72</b>	<b>2.03</b>

주) 5점 평균(점)은 ‘매우낮음’ 부터 ‘매우높음’ 까지 1부터 5의 값을 설정 후, 각 응답의 평균값을 산출한 것임.

## 10) 거주지역 범죄 발생가능성: 성폭행 및 성추행

- 향후 1년 간 성폭행 및 성추행 등 성범죄를 경험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전체의 약 7.3%만이 관련 범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산면의 응답자 평균이 1.64점으로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오천면과 도서(섬) 지역이 각각 1.66점과 1.74점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함
  - 반면, 대천 해수욕장 및 시내권의 경우 각각 2.32점과 2.31점을 기록하여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냄

[표 IV-53] 거주지역 범죄 발생가능성: 성폭행 및 성추행

(단위: 명, %, 점)

구분	N (명)	빈도 (%)						평균 (점)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응답	
시내권	986	22.01	33.06	30.73	8.72	1.22	4.26	2.31
대천해수욕장	125	21.60	35.20	28.00	11.20	0.80	3.20	2.32
웅천읍	98	22.45	35.71	27.55	2.04	0.00	12.24	2.10
남포면	107	24.30	26.17	35.51	6.54	0.93	6.54	2.29
주산면	27	37.04	48.15	7.41	3.70	0.00	3.70	1.77
미산면	59	57.63	23.73	15.25	3.39	0.00	0.00	1.64
성주면	61	40.98	40.98	16.39	0.00	0.00	1.64	1.75
청라면	29	27.59	31.03	27.59	3.45	3.45	6.90	2.19
주교면	38	23.68	47.37	18.42	2.63	0.00	7.89	2.00
주포면	33	24.24	48.48	15.15	0.00	0.00	12.12	1.90
청소면	28	25.00	35.71	35.71	3.57	0.00	0.00	2.18
오천면	83	54.22	27.71	15.66	2.41	0.00	0.00	1.66
천북면	83	28.92	37.35	26.51	2.41	0.00	4.82	2.03

도서(섬)지역	38	42.11	34.21	13.16	2.63	0.00	7.89	1.74
기타	49	24.49	38.78	26.53	6.12	0.00	4.08	2.15
무응답	61	3.28	21.31	21.31	1.64	0.00	52.46	2.45
<b>보령시 계</b>	<b>1,905</b>	<b>25.83</b>	<b>33.44</b>	<b>27.30</b>	<b>6.51</b>	<b>0.79</b>	<b>6.14</b>	<b>2.18</b>

주) 5점 평균(점)은 ‘매우낮음’ 부터 ‘매우높음’ 까지 1부터 5의 값을 설정 후, 각 응답의 평균값을 산출한 것임.

## 11) 거주지역 범죄 발생가능성: 구타

○ 향후 1년 이내 거주지역에서 구타 범죄를 경험할 가능성은 전체 5점 만점 중 2.13점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천 해수욕장과 시내권이 각각 2.43점과 2.22점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구타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오천면과 주포면의 경우 각각 1.73점과 1.76점을 기록해 낮은 구타 범죄 발생 가능성을 보여줌

– 전체적으로 볼 때 활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IV-54] 거주지역 범죄 발생가능성: 구타

(단위: 명, %, 점)

구분	N (명)	빈도 (%)						평균 (점)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응답	
시내권	986	22.62	37.12	28.70	6.59	0.61	4.36	2.22
대천해수욕장	125	16.00	35.20	34.40	6.40	3.20	4.80	2.43
웅천읍	98	25.51	38.78	23.47	1.02	0.00	11.22	2.00
남포면	107	22.43	28.97	31.78	10.28	0.00	6.54	2.32
주산면	27	40.74	40.74	11.11	3.70	0.00	3.70	1.77
미산면	59	50.85	28.81	16.95	1.69	0.00	1.69	1.69
성주면	61	32.79	42.62	18.03	0.00	0.00	6.56	1.84
청라면	29	31.03	37.93	20.69	0.00	3.45	6.90	2.00
주교면	38	28.95	39.47	23.68	0.00	0.00	7.89	1.94
주포면	33	30.30	48.48	9.09	0.00	0.00	12.12	1.76
청소면	28	28.57	32.14	28.57	10.71	0.00	0.00	2.21

오천면	83	48.19	33.73	15.66	1.20	1.20	0.00	1.73
천북면	83	32.53	37.35	22.89	2.41	0.00	4.82	1.95
도서(섬)지역	38	42.11	34.21	10.53	10.53	0.00	2.63	1.89
기타	49	28.57	44.90	20.41	2.04	0.00	4.08	1.96
무응답	61	6.56	21.31	14.75	4.92	0.00	52.46	2.38
<b>보령시 계</b>	<b>1,905</b>	<b>25.83</b>	<b>36.27</b>	<b>25.62</b>	<b>5.30</b>	<b>0.63</b>	<b>6.35</b>	<b>2.13</b>

주) 5점 평균(점)은 ‘매우낮음’ 부터 ‘매우높음’ 까지 1부터 5의 값을 설정 후, 각 응답의 평균값을 산출한 것임.

## 12) 거주지역 범죄 발생가능성: 도난

○ 향후 1년 간 가정내에 도난을 당할 가능성에 대한 문항에 대해 보령시 대부분의 응답자가 범죄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은 전체 5점 만점 대비 2.29점으로 나타남

- 집 내부 도난 범죄 가능성에 대한 응답의 경우 범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응답한 오천면의 경우 1.96점을, 가장 높다고 응답한 지역인 청소면의 경우 2.75점을 보여줌
- 오천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평균 점수가 2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거주지역의 집 내부 도난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지역별 편차가 비교적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표 IV-55] 거주지역 범죄 발생가능성: 도난

(단위: 명, %, 점)

구분	N (명)	빈도 (%)						평균 (점)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응답	
시내권	986	22.62	33.37	30.93	6.80	1.83	4.46	2.29
대천해수욕장	125	20.00	33.60	36.00	6.40	0.00	4.00	2.30
웅천읍	98	21.43	32.65	28.57	6.12	2.04	9.18	2.28
남포면	107	13.08	30.84	33.64	14.95	1.87	5.61	2.59
주산면	27	29.63	37.04	22.22	3.70	3.70	3.70	2.12
미산면	59	32.20	23.73	35.59	6.78	0.00	1.69	2.17
성주면	61	16.39	42.62	36.07	1.64	0.00	3.28	2.24
청라면	29	20.69	10.34	51.72	17.24	0.00	0.00	2.66
주교면	38	23.68	28.95	26.32	13.16	0.00	7.89	2.31

주포면	33	30.30	36.36	18.18	6.06	0.00	9.09	2.00
청소면	28	17.86	14.29	46.43	17.86	3.57	0.00	2.75
오천면	83	40.96	30.12	22.89	3.61	2.41	0.00	1.96
천북면	83	20.48	33.73	33.73	8.43	0.00	3.61	2.31
도서(섬)지역	38	18.42	52.63	18.42	7.89	0.00	2.63	2.16
기타	49	28.57	32.65	26.53	8.16	0.00	4.08	2.15
무응답	61	0.00	22.95	21.31	6.56	0.00	49.18	2.68
<b>보령시 계</b>	<b>1,905</b>	<b>22.15</b>	<b>32.49</b>	<b>30.81</b>	<b>7.40</b>	<b>1.36</b>	<b>5.77</b>	<b>2.29</b>

주) 5점 평균(점)은 ‘매우낮음’ 부터 ‘매우높음’ 까지 1부터 5의 값을 설정 후, 각 응답의 평균값을 산출한 것임.

### 13) 거주지역 범죄 발생가능성: 내부 강도 침입

- 향후 1년간 내부 강도 침입을 겪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03%만이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함. 그에 따라 전체적으로 내부 강도 침입에 대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함을 알 수 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내부 강도 침입을 경험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한 지역은 남포면이며(2.4점), 가장 낮다고 응답한 지역은 미산면(1.76점)으로 나타남
  - 다양한 범죄 유형 중 내부 강도 침입의 경우에도 그 발생가능성 인식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지 않고 있음

[표 IV-56] 거주지역 범죄 발생가능성: 내부 강도 침입

(단위: 명, %, 점)

구분	N (명)	빈도 (%)						평균 (점)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응답	
시내권	986	25.15	36.31	27.69	4.87	1.42	4.56	2.17
대천해수욕장	125	22.40	37.60	30.40	5.60	0.00	4.00	2.20
웅천읍	98	23.47	40.82	21.43	1.02	1.02	12.24	2.03
남포면	107	23.36	25.23	31.78	13.08	0.93	5.61	2.40
주산면	27	25.93	55.56	11.11	3.70	0.00	3.70	1.92
미산면	59	52.54	20.34	22.03	3.39	0.00	1.69	1.76
성주면	61	36.07	37.70	22.95	0.00	0.00	3.28	1.86
청라면	29	34.48	24.14	27.59	13.79	0.00	0.00	2.21

주교면	38	31.58	28.95	23.68	7.89	0.00	7.89	2.09
주포면	33	27.27	45.45	12.12	3.03	0.00	12.12	1.90
청소면	28	17.86	32.14	35.71	10.71	3.57	0.00	2.50
오천면	83	45.78	28.92	19.28	2.41	1.20	2.41	1.81
천북면	83	25.30	34.94	30.12	4.82	0.00	4.82	2.15
도서(섬)지역	38	36.84	39.47	15.79	5.26	0.00	2.63	1.89
기타	49	30.61	36.73	22.45	6.12	0.00	4.08	2.04
무응답	61	1.64	26.23	18.03	3.28	0.00	50.82	2.47
<b>보령시 계</b>	<b>1,905</b>	<b>26.72</b>	<b>34.96</b>	<b>26.04</b>	<b>5.09</b>	<b>0.94</b>	<b>6.25</b>	<b>2.13</b>

주) 5점 평균(점)은 ‘매우낮음’ 부터 ‘매우높음’ 까지 1부터 5의 값을 설정 후, 각 응답의 평균값을 산출한 것임.

#### 14) 거주지역 범죄 발생가능성: 납치 및 유괴

- 향후 1년 간 납치 및 유괴 범죄를 경험할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5.19%만이 범죄 가능성인 높다고 응답함
- 평균은 전체 5점 만점 대비 2.05점으로, 보령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외부 강도와 더불어 가장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
  - 특히 응천읍과 성주면, 주포면 및 도서(섬) 지역의 경우 납치 및 유괴 범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0%로 전무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IV-57] 거주지역 범죄 발생가능성: 납치 및 유괴

(단위: 명, %, 점)

구분	N (명)	빈도 (%)						평균 (점)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응답	
시내권	986	27.89	34.38	26.37	5.88	0.81	4.67	2.13
대천해수욕장	125	27.20	40.00	24.00	2.40	0.80	5.60	2.04
응천읍	98	25.51	37.76	22.45	0.00	0.00	14.29	1.96
남포면	107	28.04	23.36	30.84	9.35	1.87	6.54	2.29
주산면	27	44.44	40.74	7.41	3.70	0.00	3.70	1.69
미산면	59	54.24	27.12	15.25	3.39	0.00	0.00	1.68
성주면	61	40.98	42.62	13.11	0.00	0.00	3.28	1.71
청라면	29	34.48	41.38	13.79	10.34	0.00	0.00	2.00

주교면	38	23.68	42.11	23.68	2.63	0.00	7.89	2.06
주포면	33	36.36	39.39	9.09	0.00	0.00	15.15	1.68
청소면	28	28.57	35.71	28.57	7.14	0.00	0.00	2.14
오천면	83	55.42	26.51	15.66	1.20	1.20	0.00	1.66
천북면	83	31.33	36.14	24.10	1.20	0.00	7.23	1.95
도서(섬)지역	38	39.47	44.74	13.16	0.00	0.00	2.63	1.73
기타	49	34.69	30.61	22.45	6.12	2.04	4.08	2.06
무응답	61	4.92	22.95	19.67	1.64	0.00	50.82	2.37
<b>보령시 계</b>	<b>1,905</b>	<b>30.39</b>	<b>34.28</b>	<b>23.57</b>	<b>4.51</b>	<b>0.68</b>	<b>6.56</b>	<b>2.05</b>

주) 5점 평균(점)은 ‘매우낮음’ 부터 ‘매우높음’ 까지 1부터 5의 값을 설정 후, 각 응답의 평균값을 산출한 것임.

### 15) 거주지역 범죄 발생가능성: 소매치기 및 날치기

○ 향후 1년간 소매치기 및 날치기 범죄를 경험할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은 범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음

- 전체 평균은 5점 만점 대비 2.09점으로 나타나는데, 다른 범죄 유형과 마찬가지로 거주지역에서 소매치기 및 날치기 범죄를 경험할 위험성에 대해 낮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지역별로는 오천면과 도서(섬) 지역의 응답자가 범죄 발생가능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반대로 대천 해수욕장 및 시내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범죄 발생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표 IV-58] 거주지역 범죄 발생가능성: 소매치기 및 날치기

(단위: 명, %, 점)

구분	N (명)	빈도 (%)						평균 (점)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무응답	
시내권	986	23.73	36.11	29.51	5.07	0.91	4.67	2.20
대천해수욕장	125	20.00	41.60	25.60	8.00	0.80	4.00	2.25
웅천읍	98	27.55	39.80	21.43	0.00	0.00	11.22	1.93
남포면	107	25.23	28.97	30.84	8.41	0.00	6.54	2.24
주산면	27	40.74	37.04	14.81	3.70	0.00	3.70	1.81
미산면	59	55.93	23.73	18.64	1.69	0.00	0.00	1.66

성주면	61	40.98	39.34	16.39	0.00	0.00	3.28	1.75
청라면	29	41.38	37.93	13.79	6.90	0.00	0.00	1.86
주교면	38	26.32	39.47	23.68	2.63	0.00	7.89	2.03
주포면	33	42.42	39.39	6.06	0.00	0.00	12.12	1.59
청소면	28	32.14	35.71	28.57	3.57	0.00	0.00	2.04
오천면	83	49.40	32.53	16.87	0.00	1.20	0.00	1.71
천북면	83	27.71	40.96	22.89	2.41	0.00	6.02	2.00
도서(섬)지역	38	36.84	47.37	13.16	0.00	0.00	2.63	1.76
기타	49	32.65	28.57	22.45	12.24	0.00	4.08	2.15
무응답	61	3.28	24.59	16.39	1.64	1.64	52.46	2.45
<b>보령시 계</b>	<b>1,905</b>	<b>27.45</b>	<b>35.85</b>	<b>25.41</b>	<b>4.41</b>	<b>0.63</b>	<b>6.25</b>	<b>2.09</b>

주) 5점 평균(점)은 ‘매우낮음’ 부터 ‘매우높음’ 까지 1부터 5의 값을 설정 후, 각 응답의 평균값을 산출한 것임.

#### 16) 거주지역 인식: 이웃 교류

○ “나는 지역에 사는 이웃들을 잘 아는 편이다.” 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46.24%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5점 만점 대비 평균은 3.41점으로, 보통 수준인 3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이웃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함
- 그 중에서도 도서(섬) 지역과 웅천읍의 경우 평균이 각각 4.58점과 4.22점으로 나타나 이웃과의 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반면 시내권의 경우 3.02점으로 보통 수준임

[표 IV -59] 거주지역 인식: 이웃 교류

(단위: 명, %, 점)

구분	N (명)	빈도 (%)						평균 (점)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시내권	986	6.49	21.70	38.74	22.82	6.69	3.55	3.02
대천해수욕장	125	5.60	13.60	33.60	32.80	11.20	3.20	3.31
웅천읍	98	1.02	3.06	12.24	36.73	41.84	5.10	4.22
남포면	107	2.80	7.48	25.23	44.86	14.02	5.61	3.63

주산면	27	3.70	11.11	7.41	55.56	18.52	3.70	3.77
미산면	59	0.00	6.78	22.03	30.51	40.68	0.00	4.05
성주면	61	1.64	1.64	19.67	44.26	31.15	1.64	4.03
청라면	29	0.00	6.90	24.14	44.83	24.14	0.00	3.86
주교면	38	5.26	10.53	21.05	44.74	10.53	7.89	3.49
주포면	33	0.00	3.03	15.15	45.45	30.30	6.06	4.10
청소면	28	0.00	3.57	28.57	42.86	25.00	0.00	3.89
오천면	83	0.00	6.02	16.87	28.92	48.19	0.00	4.19
천북면	83	0.00	3.61	14.46	44.58	36.14	1.20	4.15
도서(섬)지역	38	0.00	0.00	2.63	36.84	60.53	0.00	4.58
기타	49	12.24	20.41	28.57	24.49	10.20	4.08	3.00
무응답	61	0.00	6.56	18.03	21.31	6.56	47.54	3.53
<b>보령시 계</b>	<b>1,905</b>	<b>4.46</b>	<b>14.70</b>	<b>29.92</b>	<b>29.76</b>	<b>16.48</b>	<b>4.67</b>	<b>3.41</b>

주) 5점 평균(점)은 ‘전혀 아니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1부터 5의 값을 설정 후, 각 응답의 평균값을 산출한 것임.

### 17) 거주지역 인식: 장기 거주 희망

○ 현재의 지역에서 오래 살고 싶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은 전체의 51.86%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현재 거주지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도서(섬) 지역의 경우 장기 거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응답자는 전체의 2.63%에 불과한 반면, 응답자의 90% 이상이 해당 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IV-60] 거주지역 인식: 장기 거주 희망

(단위: 명, %, 점)

구분	N (명)	빈도 (%)						평균 (점)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시내권	986	7.51	13.59	32.05	31.34	12.17	3.35	3.28
대천해수욕장	125	8.00	10.40	32.80	34.40	11.20	3.20	3.31
웅천읍	98	1.02	3.06	13.27	36.73	37.76	8.16	4.17
남포면	107	3.74	11.21	27.10	35.51	16.82	5.61	3.53
주산면	27	11.11	0.00	22.22	37.04	25.93	3.70	3.69

미산면	59	0.00	6.78	18.64	30.51	44.07	0.00	4.12
성주면	61	4.92	0.00	24.59	42.62	26.23	1.64	3.87
청라면	29	6.90	20.69	27.59	13.79	31.03	0.00	3.41
주교면	38	5.26	13.16	18.42	36.84	15.79	10.53	3.50
주포면	33	3.03	3.03	15.15	27.27	42.42	9.09	4.13
청소면	28	7.14	7.14	28.57	42.86	14.29	0.00	3.50
오천면	83	0.00	2.41	18.07	30.12	49.40	0.00	4.27
천북면	83	2.41	2.41	19.28	40.96	33.73	1.20	4.02
도서(섬)지역	38	0.00	2.63	5.26	34.21	57.89	0.00	4.47
기타	49	14.29	10.20	36.73	26.53	8.16	4.08	3.04
무응답	61	3.28	8.20	11.48	18.03	11.48	47.54	3.50
<b>보령시 계</b>	<b>1,905</b>	<b>5.93</b>	<b>10.24</b>	<b>27.14</b>	<b>32.28</b>	<b>19.58</b>	<b>4.83</b>	<b>3.52</b>

주) 5점 평균(점)은 ‘전혀 아니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1부터 5의 값을 설정 후, 각 응답의 평균값을 산출한 것임.

### 18) 거주지역 인식: 행사 참석

- 지역행사 참석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32.23%만이 지역에서 하는 행사, 모임, 회의에 잘 참석한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저조한 참석 수준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
- 행사 참석에 대한 응답은 5점 만점 대비 3점 수준으로 전체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중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남
- 이로 미루어 볼 때 실제 거주 지역에 대한 호감이나 긍정적 인식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사, 모임 참석과 같이 시간적·물질적 노력이 필요한 활동에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IV-61] 거주지역 인식: 행사 참석

(단위: 명, %, 점)

구분	N (명)	빈도 (%)						평균 (점)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시내권	986	14.20	30.22	32.45	14.40	5.17	3.55	2.65
대천해수욕장	125	13.60	26.40	27.20	19.20	10.40	3.20	2.86
웅천읍	98	1.02	12.24	20.41	35.71	22.45	8.16	3.72

남포면	107	10.28	14.02	29.91	28.97	10.28	6.54	3.16
주산면	27	11.11	11.11	29.63	37.04	7.41	3.70	3.19
미산면	59	1.69	11.86	25.42	30.51	30.51	0.00	3.76
성주면	61	8.20	9.84	39.34	22.95	18.03	1.64	3.33
청라면	29	6.90	34.48	34.48	10.34	13.79	0.00	2.90
주교면	38	10.53	15.79	39.47	15.79	10.53	7.89	3.00
주포면	33	3.03	12.12	24.24	30.30	21.21	9.09	3.60
청소면	28	14.29	7.14	28.57	35.71	14.29	0.00	3.29
오천면	83	1.20	7.23	28.92	21.69	39.76	1.20	3.93
천북면	83	3.61	4.82	21.69	38.55	28.92	2.41	3.86
도서(섬)지역	38	0.00	0.00	15.79	36.84	47.37	0.00	4.32
기타	49	22.45	16.33	36.73	18.37	2.04	4.08	2.60
무응답	61	6.56	6.56	18.03	18.03	6.56	44.26	3.21
<b>보령시 계</b>	<b>1,905</b>	<b>10.92</b>	<b>21.94</b>	<b>29.97</b>	<b>20.31</b>	<b>11.92</b>	<b>4.93</b>	<b>3.00</b>

주) 5점 평균(점)은 ‘전혀 아니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1부터 5의 값을 설정 후, 각 응답의 평균값을 산출한 것임.

### 19) 거주지역 인식: 주민 의식

- “나는 스스로 우리 지역의 진정한 주민이라고 생각한다.” 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6.62%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주체적인 주민 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특히 도서(섬) 지역의 경우 전체 5점 만점 대비 4.42점으로 가장 높은 응답 수준을 보이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도서(섬) 지역에서 주민 의식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반면 시내권 지역 응답자의 주민 의식은 비교적 낮은 수준임(3.22점)

[표 IV-62] 거주지역 인식: 주민 의식

(단위: 명, %, 점)

구분	N (명)	빈도 (%)						평균 (점)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시내권	986	5.07	10.55	45.84	27.28	7.51	3.75	3.22
대천해수욕장	125	1.60	11.20	41.60	27.20	15.20	3.20	3.45

웅천읍	98	0.00	2.04	13.27	43.88	32.65	8.16	4.17
남포면	107	3.74	6.54	33.64	32.71	18.69	4.67	3.59
주산면	27	3.70	11.11	14.81	44.44	22.22	3.70	3.73
미산면	59	0.00	3.39	27.12	35.59	33.90	0.00	4.00
성주면	61	1.64	4.92	26.23	40.98	24.59	1.64	3.83
청라면	29	0.00	24.14	27.59	34.48	13.79	0.00	3.38
주교면	38	5.26	5.26	28.95	39.47	13.16	7.89	3.54
주포면	33	0.00	0.00	30.30	33.33	27.27	9.09	3.97
청소면	28	0.00	7.14	35.71	42.86	14.29	0.00	3.64
오천면	83	2.41	2.41	14.46	38.55	39.76	2.41	4.14
천북면	83	2.41	0.00	21.69	44.58	26.51	4.82	3.97
도서(섬)지역	38	0.00	0.00	5.26	47.37	47.37	0.00	4.42
기타	49	14.29	4.08	44.90	28.57	4.08	4.08	3.04
무응답	61	0.00	3.28	19.67	19.67	8.20	49.18	3.65
<b>보령시 계</b>	<b>1,905</b>	<b>3.73</b>	<b>7.98</b>	<b>36.43</b>	<b>31.50</b>	<b>15.12</b>	<b>5.25</b>	<b>3.49</b>

주) 5점 평균(점)은 ‘전혀 아니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1부터 5의 값을 설정 후, 각 응답의 평균값을 산출한 것임.

## 20) 거주지역 인식: 이웃 도움

- “나는 내가 위험에 처하면 이웃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 믿는다” 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체 5점 만점 중 3.34점으로 나타나, 응답자 중 상당수가 이웃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다른 문항과 마찬가지로 도서(섬) 지역에서 이웃 도움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크며(4.29점), 시내권에서 기대 가능성이 가장 낮음(3.01점)
  - 다만, 앞서 지역 이웃을 잘 안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3.41점을 기록한데 반해, 실제 이웃의 도움을 기대하는 응답은 3.34점으로 약간 낮은 수준임

[표 IV-63] 거주지역 인식: 이웃 도움

(단위: 명, %, 점)

구분	N (명)	빈도 (%)					평균 (점)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시내권	986	6.69	19.98	40.57	24.24	5.07	3.45	3.01

대천해수욕장	125	2.40	15.20	32.80	32.00	14.40	3.20	3.42
웅천읍	98	0.00	2.04	18.37	46.94	24.49	8.16	4.02
남포면	107	2.80	6.54	38.32	34.58	13.08	4.67	3.51
주산면	27	3.70	3.70	14.81	59.26	14.81	3.70	3.81
미산면	59	0.00	6.78	32.20	38.98	22.03	0.00	3.76
성주면	61	1.64	6.56	31.15	40.98	16.39	3.28	3.66
청라면	29	3.45	13.79	31.03	41.38	10.34	0.00	3.41
주교면	38	0.00	10.53	39.47	23.68	18.42	7.89	3.54
주포면	33	0.00	3.03	21.21	36.36	30.30	9.09	4.03
청소면	28	3.57	10.71	28.57	42.86	14.29	0.00	3.54
오천면	83	0.00	1.20	22.89	36.14	39.76	0.00	4.14
천북면	83	3.61	3.61	20.48	51.81	19.28	1.20	3.80
도서(섬)지역	38	0.00	2.63	13.16	36.84	47.37	0.00	4.29
기타	49	12.24	6.12	32.65	40.82	4.08	4.08	3.19
무응답	61	0.00	4.92	26.23	14.75	6.56	47.54	3.44
<b>보령시 계</b>	<b>1,905</b>	<b>4.46</b>	<b>13.49</b>	<b>34.33</b>	<b>30.81</b>	<b>12.07</b>	<b>4.83</b>	<b>3.34</b>

주) 5점 평균(점)은 ‘전혀 아니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1부터 5의 값을 설정 후, 각 응답의 평균값을 산출한 것임.

## 21) 거주지역 인식: 경찰 도움

-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중은 전체의 59.06%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냄
  - 특히 전체 평균은 3.74점으로 전체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데, 이는 응답자들이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웃이나 지역 기관 등보다 경찰로부터 도움을 얻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인식함을 의미함
  - 이러한 결과는 최소한 범죄 발생과 안전 측면에 있어서는 경찰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음을 보여주는 것임

[표 IV-64] 거주지역 인식: 경찰 도움

(단위: 명, %, 점)

구분	N (명)	빈도 (%)						평균 (점)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시내권	986	2.74	8.42	34.79	36.51	14.00	3.55	3.52
대천해수욕장	125	0.80	5.60	24.80	40.80	25.60	2.40	3.87
웅천읍	98	0.00	1.02	9.18	53.06	29.59	7.14	4.20
남포면	107	2.80	2.80	26.17	39.25	24.30	4.67	3.83
주산면	27	0.00	11.11	22.22	44.44	18.52	3.70	3.73
미산면	59	0.00	1.69	22.03	45.76	30.51	0.00	4.05
성주면	61	0.00	0.00	18.03	55.74	24.59	1.64	4.07
청라면	29	3.45	3.45	31.03	37.93	24.14	0.00	3.76
주교면	38	0.00	5.26	23.68	36.84	26.32	7.89	3.91
주포면	33	0.00	0.00	21.21	33.33	33.33	12.12	4.14
청소면	28	3.57	14.29	35.71	35.71	10.71	0.00	3.36
오천면	83	0.00	2.41	13.25	27.71	56.63	0.00	4.39
천북면	83	0.00	1.20	24.10	45.78	26.51	2.41	4.00
도서(섬)지역	38	0.00	2.63	2.63	39.47	55.26	0.00	4.47
기타	49	4.08	8.16	36.73	38.78	8.16	4.08	3.40
무응답	61	0.00	0.00	21.31	22.95	6.56	49.18	3.71
<b>보령시 계</b>	<b>1,905</b>	<b>1.84</b>	<b>5.93</b>	<b>28.29</b>	<b>38.48</b>	<b>20.58</b>	<b>4.88</b>	<b>3.74</b>

주) 5점 평균(점)은 ‘전혀 아니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1부터 5의 값을 설정 후, 각 응답의 평균값을 산출한 것임.

## 22) 거주지역 인식: 지역기관 도움

○ 위험 상황 발생시 시청이나 읍면동 사무소 등 지역기관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 전체의 43.57%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천면의 경우 4.16점, 도서(섬) 지역의 경우 4.0점을 기록하고 있어 지역기관으로부터의 도움 가능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음

– 반면 시내권의 경우 3.18점, 주산면의 경우 3.2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임

[표 IV-65] 거주지역 인식: 지역기관 도움

(단위: 명, %, 점)

구분	N (명)	빈도 (%)						평균 (점)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시내권	986	4.77	14.71	43.71	24.34	8.82	3.65	3.18
대천해수욕장	125	5.60	11.20	33.60	32.80	14.40	2.40	3.40
웅천읍	98	0.00	4.08	22.45	42.86	23.47	7.14	3.92
남포면	107	4.67	12.15	35.51	30.84	12.15	4.67	3.35
주산면	27	0.00	25.93	33.33	25.93	11.11	3.70	3.23
미산면	59	0.00	6.78	32.20	38.98	22.03	0.00	3.76
성주면	61	0.00	1.64	27.87	52.46	16.39	1.64	3.85
청라면	29	3.45	3.45	31.03	51.72	10.34	0.00	3.62
주교면	38	2.63	5.26	23.68	34.21	21.05	13.16	3.76
주포면	33	0.00	3.03	30.30	24.24	30.30	12.12	3.93
청소면	28	3.57	10.71	39.29	39.29	7.14	0.00	3.36
오천면	83	0.00	2.41	22.89	30.12	43.37	1.20	4.16
천북면	83	1.20	8.43	26.51	46.99	15.66	1.20	3.68
도서(섬)지역	38	2.63	10.53	10.53	36.84	39.47	0.00	4.00
기타	49	8.16	14.29	32.65	36.73	4.08	4.08	3.15
무응답	61	0.00	8.20	19.67	16.39	4.92	50.82	3.37
<b>보령시 계</b>	<b>1,905</b>	<b>3.57</b>	<b>11.55</b>	<b>36.22</b>	<b>29.97</b>	<b>13.60</b>	<b>5.09</b>	<b>3.41</b>

주) 5점 평균(점)은 ‘전혀 아니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1부터 5의 값을 설정 후, 각 응답의 평균값을 산출한 것임.

### 23) 거주지역 위험발생 유형

○ 거주지역에서 가장 발생할 우려가 높은 범죄 유형에 대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인 14.17%가 성폭력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폭력(12.49%), 가정폭력(12.44%)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아동학대(1.99%)와 노인학대(7.56%)의 발생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려 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범죄발생 유형에 대한 인식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대천 해수욕장의 경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응답자는 전체의 36.8%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 반면, 아동 학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응답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66] 거주지역 위험발생 유형

(단위: 명, %, 점)

구분	N (명)	빈도 (%)						
		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 폭력	아동 학대	노인 학대	기타	없음/ 무응답
시내권	986	14.30	16.84	17.95	2.54	4.16	5.38	38.84
대천해수욕장	125	5.60	36.80	5.60	0.00	3.20	7.20	41.60
웅천읍	98	3.06	6.12	14.29	1.02	9.18	6.12	60.20
남포면	107	24.30	4.67	4.67	0.93	16.82	6.54	42.06
주산면	27	0.00	7.41	18.52	0.00	22.22	0.00	51.85
미산면	59	10.17	3.39	8.47	0.00	22.03	8.47	47.46
성주면	61	18.03	6.56	3.28	1.64	11.48	8.20	50.82
청라면	29	6.90	10.34	3.45	3.45	20.69	27.59	27.59
주교면	38	13.16	5.26	0.00	0.00	13.16	0.00	68.42
주포면	33	15.15	6.06	0.00	3.03	12.12	3.03	60.61
청소면	28	10.71	3.57	7.14	0.00	21.43	3.57	53.57
오천면	83	16.87	2.41	4.82	0.00	6.02	8.43	61.45
천북면	83	9.64	6.02	2.41	3.61	20.48	8.43	49.40
도서(섬)지역	38	2.63	15.79	0.00	0.00	2.63	7.89	71.05
기타	49	2.04	14.29	22.45	4.08	0.00	4.08	53.06
무응답	61	6.56	18.03	4.92	4.92	3.28	3.28	59.02
<b>보령시 계</b>	<b>1,905</b>	<b>12.44</b>	<b>14.17</b>	<b>12.49</b>	<b>1.99</b>	<b>7.56</b>	<b>6.09</b>	<b>45.25</b>

#### 24) 여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중점 업무

○ “여성,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경찰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0.97%가 순찰을 꼽은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피해자 보호(31.81%), 신속·공정한 수사(30.24%)가 뒤를 이어 나타났음

－ 반면 사후 모니터링(12.28%)이나 친절 상담(15.91%)에 대한 수요는 비교적 낮은 수준임

- 이로 미루어볼 때, 응답자의 상당수는 여성·청소년 범죄와 관련해서는 범죄 발생에 대한 사후적 노력보다는 사전적 예방과 함께 범죄수사 과정 상에서의 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음

[표 IV-67] 여성·청소년 보호 중점 업무(중복 응답)

(단위: 명, %, 점)

구분	N (명)	빈도 (%)							
		순찰	친절 상담	예방 홍보	산속공정 수사	사후 모니터링	피해자 보호	기타	없음
시내권	986	54.06	13.89	16.33	38.34	15.92	39.15	0.41	2.23
대천해수욕장	125	58.40	7.20	24.80	20.80	9.60	26.40	0.00	4.80
웅천읍	98	41.84	24.49	21.43	18.37	8.16	24.49	0.00	1.02
남포면	107	59.81	16.82	16.82	27.10	10.28	38.32	0.00	2.80
주산면	27	33.33	22.22	29.63	29.63	0.00	29.63	0.00	7.41
미산면	59	52.54	20.34	18.64	20.34	3.39	18.64	0.00	3.39
성주면	61	47.54	18.03	19.67	24.59	1.64	29.51	0.00	4.92
청라면	29	51.72	20.69	20.69	27.59	6.90	31.03	0.00	0.00
주교면	38	50.00	13.16	18.42	21.05	5.26	21.05	0.00	2.63
주포면	33	45.45	27.27	15.15	12.12	9.09	24.24	0.00	6.06
청소면	28	64.29	14.29	14.29	25.00	21.43	17.86	0.00	0.00
오천면	83	38.55	16.87	31.33	13.25	3.61	10.84	1.20	10.84
천북면	83	45.78	19.28	30.12	13.25	9.64	19.28	0.00	3.61
도서(섬)지역	38	42.11	36.84	36.84	21.05	10.53	10.53	0.00	5.26
기타	49	57.14	14.29	16.33	40.82	22.45	32.65	0.00	4.08
무응답	61	16.39	18.03	14.75	21.31	6.56	16.39	6.56	1.64
<b>보령시 계</b>	<b>1,905</b>	<b>50.97</b>	<b>15.91</b>	<b>19.21</b>	<b>30.24</b>	<b>12.28</b>	<b>31.81</b>	<b>0.47</b>	<b>3.10</b>

25) 거주지 우려 범죄발생 유형

○ 거주지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범죄 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폭행(15.54%), 성범죄(11.76%), 보이스피싱(8.71%)에 대한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마약(0.31%), 도박(1.89%), 살인(2.1%) 등의 범죄에 대한 우려 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68] 거주지 우려 범죄발생 유형(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N (명)	빈도 (%)															
		살인	강도	절도	폭행	성범죄	방화	마약	유괴	학대	가정폭력	몰래카메라	도박	보이스피싱	사기	외국인범죄	기타
시내권	986	3.04	4.26	5.17	18.97	15.21	1.52	0.51	5.68	3.45	3.14	5.48	2.33	5.88	3.55	2.23	2.23
대천해수욕장	125	4.00	3.20	11.20	30.40	24.00	4.00	0.80	4.00	5.60	0.80	12.00	1.60	4.80	3.20	8.80	0.00
웅천읍	98	0.00	1.02	10.20	9.18	6.12	3.06	0.00	0.00	2.04	1.02	2.04	1.02	16.33	5.10	2.04	2.04
남포면	107	1.87	4.67	24.30	18.69	4.67	0.00	0.00	2.80	7.48	8.41	1.87	0.93	25.23	2.80	2.80	4.67
주산면	27	0.00	0.00	11.11	14.81	0.00	0.00	0.00	3.70	3.70	0.00	3.70	7.41	25.93	3.70	0.00	0.00
미산면	59	0.00	3.39	6.78	3.39	0.00	0.00	0.00	3.39	3.39	3.39	0.00	0.00	8.47	1.69	0.00	3.39
성주면	61	1.64	4.92	8.20	4.92	3.28	0.00	0.00	0.00	4.92	0.00	0.00	1.64	14.75	4.92	0.00	3.28
청라면	29	3.45	3.45	10.34	10.34	6.90	0.00	0.00	0.00	13.79	0.00	0.00	0.00	0.00	6.90	0.00	3.45
주교면	38	0.00	7.89	13.16	2.63	5.26	0.00	0.00	2.63	0.00	0.00	0.00	0.00	13.16	0.00	7.89	5.26
주포면	33	0.00	3.03	12.12	6.06	3.03	6.06	0.00	3.03	0.00	3.03	0.00	0.00	12.12	6.06	0.00	3.03
청소면	28	0.00	3.57	14.29	0.00	0.00	7.14	0.00	0.00	3.57	0.00	3.57	0.00	14.29	0.00	3.57	0.00
오천면	83	0.00	0.00	14.46	2.41	2.41	3.61	0.00	2.41	2.41	2.41	2.41	0.00	16.87	7.23	1.20	6.02
천북면	83	0.00	1.20	12.05	6.02	4.82	0.00	0.00	0.00	2.41	1.20	2.41	2.41	8.43	0.00	15.66	2.41
도서(섬)지역	38	0.00	0.00	2.63	26.32	13.16	2.63	0.00	0.00	0.00	0.00	5.26	7.89	5.26	5.26	5.26	0.00
기타	49	0.00	6.12	12.24	12.24	16.33	0.00	0.00	4.08	8.16	4.08	2.04	0.00	2.04	6.12	0.00	2.04
무응답	61	1.64	1.64	3.28	6.56	11.48	1.64	0.00	3.28	1.64	4.92	1.64	1.64	1.64	3.28	3.28	0.00
<b>보령시 계</b>	<b>1,905</b>	<b>2.10</b>	<b>3.57</b>	<b>8.40</b>	<b>15.54</b>	<b>11.76</b>	<b>1.68</b>	<b>0.31</b>	<b>3.94</b>	<b>3.73</b>	<b>2.78</b>	<b>4.36</b>	<b>1.89</b>	<b>8.71</b>	<b>3.62</b>	<b>3.15</b>	<b>2.36</b>

26) 거주지 범죄발생 관련 요청사항

○ 거주지역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요청사항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자들은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그 다음으로는 가로등 설치(17.43%), 112 순찰 및 걸어서 순찰(14.12%)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 -69] 거주지 범죄발생 관련 요청사항(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N (명)	빈도 (%)							
		CCTV 설치	가로등 설치	비상벨 설치	범죄예방 홍보	112차량 순찰	걸어서 순찰	112+걸어서 순찰	기타
시내권	986	25.46	15.92	10.14	3.55	11.05	5.88	18.66	0.91
대천해수욕장	125	33.60	24.00	8.80	6.40	16.80	5.60	22.40	1.60
웅천읍	98	27.55	16.33	1.02	10.20	13.27	0.00	5.10	2.04
남포면	107	42.06	33.64	6.54	5.61	19.63	0.93	10.28	0.93
주산면	27	25.93	33.33	11.11	0.00	0.00	3.70	11.11	0.00
미산면	59	13.56	11.86	1.69	10.17	5.08	0.00	8.47	0.00
성주면	61	14.75	18.03	1.64	8.20	6.56	1.64	4.92	0.00
청라면	29	44.83	20.69	10.34	0.00	10.34	0.00	10.34	0.00
주교면	38	26.32	21.05	5.26	2.63	5.26	2.63	7.89	0.00
주포면	33	33.33	33.33	3.03	0.00	12.12	3.03	6.06	0.00
청소면	28	14.29	10.71	3.57	0.00	0.00	0.00	7.14	0.00
오천면	83	33.73	4.82	4.82	6.02	9.64	2.41	3.61	0.00
천북면	83	30.12	22.89	6.02	3.61	13.25	0.00	6.02	0.00
도서(섬)지역	38	39.47	5.26	7.89	15.79	23.68	0.00	0.00	0.00
기타	49	26.53	12.24	10.20	2.04	8.16	4.08	12.24	2.04
무응답	61	13.11	11.48	4.92	1.64	4.92	1.64	9.84	4.92
<b>보령시 계</b>	<b>1,905</b>	<b>27.09</b>	<b>17.43</b>	<b>7.93</b>	<b>4.57</b>	<b>11.29</b>	<b>3.94</b>	<b>14.12</b>	<b>0.94</b>

## 4. 범죄예방 활동

### 1) 경찰 안전활동 빈도

- “ 최근 1주일 간 거주지역(읍면동)에서 경찰관이나 경찰차량을 대략 몇 번 보셨습니까?” 의 문항에 대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인 31.81%가 1~2회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1주일에 7회 이상 경찰 안전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응답 또한 11.08%로 낮은 수치에 해당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서(섬) 지역의 경우 7회 이상 경찰 안전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응답자 비중은 전체의 84.21%로 나타나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그 차이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남. 반면, 청라면의 경우 3.45%만이 7회 이상 경찰 안전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하여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표 IV-70] 경찰 안전활동 빈도

(단위: 명, %)

구분	N (명)	빈도 (%)					
		0번	1~2번	3~4번	5~6번	7번 이상	무응답
시내권	986	25.96	35.40	18.26	6.59	7.81	5.98
대천해수욕장	125	9.60	36.80	28.80	11.20	8.80	4.80
웅천읍	98	7.14	24.49	26.53	16.33	11.22	14.29
남포면	107	24.30	41.12	19.63	2.80	5.61	6.54
주산면	27	14.81	37.04	25.93	7.41	11.11	3.70
미산면	59	3.39	28.81	28.81	11.86	25.42	1.69
성주면	61	18.03	21.31	32.79	13.11	11.48	3.28
청라면	29	55.17	27.59	6.90	6.90	3.45	0.00
주교면	38	23.68	34.21	21.05	2.63	7.89	10.53
주포면	33	12.12	45.45	15.15	9.09	6.06	12.12
청소면	28	21.43	39.29	25.00	10.71	3.57	0.00
오천면	83	8.43	12.05	25.30	30.12	19.28	4.82
천북면	83	2.41	20.48	26.51	21.69	25.30	3.61
도서(섬)지역	38	2.63	7.89	2.63	2.63	84.21	0.00
기타	49	34.69	40.82	12.24	2.04	6.12	4.08
무응답	61	9.84	9.84	9.84	3.28	3.28	63.93
<b>보령시 계</b>	<b>1,905</b>	<b>20.26</b>	<b>31.81</b>	<b>20.21</b>	<b>8.98</b>	<b>11.08</b>	<b>7.66</b>

## 2) 거주지역 순찰활동 인식

- “거주지역(읍면동) 경찰이 어두운 골목이나 인적이 뜸한 장소에 대한 순찰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평균은 5점 만점 대비 2.95점으로 나타나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 해당함
  - 이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약간 더 우세함을 보여줌
  -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서(섬) 지역의 경우 평균이 4.42점으로 나타나 순찰활동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청라면의 경우 2.31점으로 나타나 순찰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표 IV-71] 거주지역 순찰활동 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N (명)	빈도 (%)						평균 (점)
		아주 못함	대체로 못함	보통	대체로 잘함	매우 잘함	무응답	
시내권	986	11.97	25.15	39.76	13.39	4.16	5.58	2.71
대천해수욕장	125	6.40	12.00	44.80	29.60	1.60	5.60	3.08
웅천읍	98	9.18	4.08	35.71	29.59	7.14	14.29	3.25
남포면	107	12.15	14.02	36.45	26.17	5.61	5.61	2.99
주산면	27	3.70	7.41	40.74	33.33	3.70	11.11	3.29
미산면	59	1.69	8.47	28.81	42.37	16.95	1.69	3.66
성주면	61	4.92	14.75	31.15	37.70	8.20	3.28	3.31
청라면	29	27.59	31.03	27.59	10.34	3.45	0.00	2.31
주교면	38	15.79	5.26	44.74	21.05	2.63	10.53	2.88
주포면	33	3.03	18.18	39.39	21.21	6.06	12.12	3.10
청소면	28	10.71	28.57	46.43	7.14	7.14	0.00	2.71
오천면	83	3.61	6.02	26.51	44.58	13.25	6.02	3.62
천북면	83	1.20	3.61	42.17	38.55	12.05	2.41	3.58
도서(섬)지역	38	0.00	2.63	5.26	39.47	52.63	0.00	4.42
기타	49	16.33	22.45	42.86	12.24	0.00	6.12	2.54
무응답	61	6.56	11.48	11.48	13.11	3.28	54.10	2.89
<b>보령시 계</b>	<b>1,905</b>	<b>9.82</b>	<b>18.37</b>	<b>37.11</b>	<b>21.05</b>	<b>6.35</b>	<b>7.30</b>	<b>2.95</b>

주) 5점 평균(점)은 ‘아주 못함’ 부터 ‘매우 잘함’ 까지 1부터 5의 값을 설정 후, 각 응답의 평균값을 산출한 것임.

### 3) 희망 순찰 시간대

○ 하루 중 순찰이 가장 필요한 시간대에 대한 의향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가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를 희망 시간대로 꼽은 것으로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는 오후 6시부터 9시, 오전 0시부터 3시임

－ 즉, 범죄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IV-72] 희망 순찰 시간대

(단위: 명, %)

구분	N (명)	빈도 (%)								
		오전 0시~3시	오전 3시~6시	오전 6시~9시	오전 9시~12시	오후 12시~3시	오후 3시~6시	오후 6시~9시	오후 9시~자정	무응답
시내권	986	15.62	2.23	3.55	4.16	2.54	1.72	9.13	49.39	11.66
대천해수욕장	125	14.40	1.60	1.60	6.40	2.40	0.80	20.00	35.2	17.6
웅천읍	98	8.16	2.04	2.04	5.10	5.10	1.02	13.27	41.84	21.43
남포면	107	7.48	2.80	2.80	5.61	6.54	4.67	28.97	33.64	7.48
주산면	27	18.52	11.11	3.70	7.41	3.70	0.00	22.22	18.52	14.81
미산면	59	3.39	0.00	6.78	16.95	10.17	5.08	13.56	38.98	5.08
성주면	61	0.00	0.00	8.20	6.56	6.56	4.92	21.31	39.34	13.11
청라면	29	6.90	0.00	0.00	0.00	10.34	3.45	24.14	37.93	17.24
주교면	38	5.26	2.63	0.00	5.26	2.63	2.63	23.68	39.47	18.42
주포면	33	6.06	9.09	3.03	9.09	0.00	6.06	24.24	24.24	18.18
청소면	28	0.00	10.71	10.71	7.14	0.00	7.14	21.43	39.29	3.57
오천면	83	8.43	8.43	2.41	3.61	7.23	10.84	14.46	34.94	9.64
천북면	83	4.82	4.82	7.23	4.82	2.41	8.43	21.69	37.35	8.43
도서(섬)지역	38	5.26	0.00	0.00	2.63	18.42	10.53	7.89	26.32	28.95
기타	49	6.12	2.04	4.08	4.08	2.04	4.08	14.29	48.98	14.29
무응답	61	1.64	0.00	13.11	6.56	3.28	1.64	6.56	16.39	50.82
<b>보령시 계</b>	<b>1,905</b>	<b>11.44</b>	<b>2.68</b>	<b>3.88</b>	<b>5.09</b>	<b>3.83</b>	<b>3.10</b>	<b>13.65</b>	<b>42.47</b>	<b>13.86</b>

#### 4) 희망 순찰 방법

○ 희망 순찰 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8.08%가 112차량 및 걸어서 순찰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112 차량 순찰, 112차량 순찰 및 주민대화의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볼 때, 응답자의 대부분이 112차량 순찰을 중심으로 한 순찰 방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IV-73] 희망 순찰 방법

(단위: 명, %)

구분	N (명)	빈도 (%)								
		112차량 순찰	걸어서 순찰	자전거 순찰	오토바이 순찰	112차량 + 걸어서 순찰	112차량 + 주민 대화	위험지역 정차 근무	기타	무응답
시내권	986	24.85	6.80	2.54	2.84	38.13	9.23	6.39	0.41	8.82
대전해수욕장	125	24.80	5.60	1.60	2.40	32.00	20.80	5.60	0.00	7.20
웅천읍	98	35.71	2.04	2.04	5.10	20.41	14.29	2.04	2.04	16.33
남포면	107	31.78	2.80	2.80	0.93	24.30	22.43	5.61	0.00	9.35
주산면	27	48.15	11.11	3.70	3.70	3.70	11.11	7.41	0.00	11.11
미산면	59	40.68	0.00	0.00	0.00	22.03	16.95	16.95	0.00	3.39
성주면	61	29.51	6.56	0.00	0.00	24.59	27.87	4.92	0.00	6.56
청라면	29	34.48	10.34	3.45	10.34	10.34	27.59	3.45	0.00	0.00
주교면	38	47.37	2.63	0.00	2.63	7.89	7.89	10.53	2.63	18.42
주포면	33	42.42	0.00	3.03	3.03	21.21	0.00	9.09	3.03	18.18
청소면	28	35.71	3.57	10.71	3.57	17.86	14.29	7.14	0.00	7.14
오천면	83	36.14	13.25	3.61	4.82	10.84	14.46	4.82	2.41	9.64
천북면	83	44.58	3.61	2.41	3.61	16.87	21.69	2.41	0.00	4.82
도서(섬)지역	38	21.05	5.26	0.00	10.53	13.16	42.11	0.00	0.00	7.89
기타	49	12.24	8.16	2.04	4.08	40.82	16.33	8.16	0.00	8.16
무응답	61	3.28	4.92	1.64	1.64	16.39	6.56	1.64	8.20	55.74
<b>보령시 계</b>	<b>1,905</b>	<b>28.08</b>	<b>5.98</b>	<b>2.36</b>	<b>3.04</b>	<b>29.76</b>	<b>13.54</b>	<b>5.98</b>	<b>0.79</b>	<b>10.45</b>

### 5) 범죄예방 논의 횟수: 경범죄 대책

- 지난 1년 간 경범죄 발생에 대해 이웃과의 모임이나 단체를 통해 대책을 논의한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77%이상은 논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1~2번 수준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응답자 비중 또한 16.8%에 불과하며, 7번 이상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 전체의 1% 미만만 해당하는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줌
  - 이는 경범죄 대책과 관련하여 이웃과의 논의나 예방활동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임

[표 IV-74] 범죄예방 논의 횟수: 경범죄 대책

(단위: 명, %, 점)

구분	N (명)	빈도 (%)					
		없음	1~2번	3~4번	5~6번	7번 이상	무응답
시내권	986	76.06	10.95	3.45	0.30	0.51	8.72
대천해수욕장	125	62.40	24.80	4.80	0.80	0.00	7.20
웅천읍	98	36.73	26.53	8.16	1.02	3.06	24.49
남포면	107	66.36	16.82	10.28	0.00	0.00	6.54
주산면	27	74.07	11.11	7.41	0.00	3.70	3.70
미산면	59	44.07	49.15	3.39	1.69	0.00	1.69
성주면	61	49.18	36.07	6.56	1.64	1.64	4.92
청라면	29	75.86	17.24	6.90	0.00	0.00	0.00
주교면	38	68.42	10.53	5.26	0.00	0.00	15.79
주포면	33	51.52	18.18	3.03	3.03	0.00	24.24
청소면	28	53.57	25.00	3.57	7.14	0.00	10.71
오천면	83	67.47	14.46	3.61	1.20	8.43	4.82
천북면	83	40.96	32.53	14.46	2.41	1.20	8.43
도서(섬)지역	38	47.37	31.58	13.16	2.63	0.00	5.26
기타	49	77.55	12.24	2.04	0.00	0.00	8.16
무응답	61	26.23	6.56	3.28	0.00	0.00	63.93
<b>보령시 계</b>	<b>1,905</b>	<b>65.77</b>	<b>16.80</b>	<b>5.04</b>	<b>0.73</b>	<b>0.94</b>	<b>10.71</b>

## 6) 범죄예방 논의 횟수: 강력범죄 대책

○ 지난 1년 간 강력범죄 발생에 대해 이웃과의 모임이나 단체를 통해 대책을 논의한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91%이상은 논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1~2번 수준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응답자 비중 또한 10.24%에 불과하며, 7번 이상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 전체의 0.5% 미만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줌
- 경범죄 대책과 마찬가지로 강력범죄 또한 이웃과의 논의나 예방활동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책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IV-75] 범죄예방 논의 횟수: 강력범죄 대책

(단위: 명, %, 점)

구분	N (명)	빈도 (%)					
		없음	1~2번	3~4번	5~6번	7번 이상	무응답
시내권	986	80.22	6.09	2.03	0.30	0.20	11.16
대천해수욕장	125	75.20	12.80	3.20	0.80	0.00	8.00
웅천읍	98	47.96	12.24	6.12	1.02	2.04	30.61
남포면	107	71.03	15.89	4.67	0.00	0.00	8.41
주산면	27	77.78	11.11	3.70	0.00	0.00	7.41
미산면	59	59.32	28.81	1.69	0.00	0.00	10.17
성주면	61	62.30	27.87	0.00	0.00	1.64	8.20
청라면	29	82.76	10.34	6.90	0.00	0.00	0.00
주교면	38	71.05	7.89	2.63	0.00	0.00	18.42
주포면	33	63.64	12.12	0.00	6.06	0.00	18.18
청소면	28	64.29	7.14	10.71	0.00	0.00	17.86
오천면	83	68.67	18.07	0.00	0.00	3.61	9.64
천북면	83	56.63	20.48	3.61	1.20	1.20	16.87
도서(섬)지역	38	81.58	10.53	0.00	0.00	0.00	7.89
기타	49	85.71	6.12	2.04	0.00	0.00	6.12
무응답	61	32.79	3.28	4.92	0.00	0.00	59.02
<b>보령시 계</b>	<b>1,905</b>	<b>72.91</b>	<b>10.24</b>	<b>2.62</b>	<b>0.42</b>	<b>0.47</b>	<b>13.33</b>

### 7) 거주지역 안전대책 마련 방법

- 거주지역을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 방법으로, 응답자의 다수(71.6%)는 안전시설이나 장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그 외에도 순찰강화(29.29%)나 자율방법(18.85%) 등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반면 범죄예방 교육 관련 자료의 확대나 외국인에 대한 범죄예방 교육 등 각종 범죄예방 교육에 대한 수요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표 IV -76] 거주지역 안전대책 마련 방법(중복 응답)

(단위: 명, %)

구분	N (명)	빈도 (%)											
		시설 확대	안내문 비치	자료 확대	자치 교육	경찰 교육	외국인 교육	자율 방법	순찰 강화	대책 회의	외국인 이해	필요 없음	기타
시내권	986	72.52	11.05	9.03	16.73	14.71	10.24	17.75	36.71	9.03	10.24	4.56	1.22
대천해수욕장	125	70.40	17.60	8.00	16.00	17.60	8.00	24.00	20.80	8.00	12.00	0.80	1.60
웅천읍	98	67.35	10.20	7.14	19.39	12.24	9.18	17.35	22.45	7.14	9.18	5.10	1.02
남포면	107	74.77	8.41	14.95	19.63	15.89	8.41	18.69	26.17	9.35	10.28	0.93	0.00
주산면	27	85.19	7.41	14.81	18.52	7.41	3.70	14.81	14.81	3.70	11.11	11.11	0.00
미산면	59	77.97	8.47	5.08	25.42	11.86	5.08	20.34	16.95	16.95	6.78	1.69	3.39
성주면	61	72.13	3.28	8.20	16.39	8.20	0.00	37.70	31.15	8.20	3.28	0.00	0.00
청라면	29	75.86	13.79	6.90	3.45	20.69	13.79	13.79	24.14	17.24	6.90	10.34	0.00
주교면	38	65.79	10.53	10.53	18.42	2.63	18.42	13.16	7.89	2.63	5.26	7.89	2.63
주포면	33	69.70	12.12	3.03	18.18	3.03	9.09	21.21	27.27	9.09	3.03	6.06	0.00
청소면	28	71.43	10.71	3.57	10.71	14.29	10.71	10.71	25.00	14.29	10.71	3.57	0.00
오천면	83	69.88	14.46	8.43	16.87	7.23	4.82	28.92	19.28	9.64	8.43	6.02	0.00
천북면	83	75.90	13.25	7.23	19.28	10.84	13.25	14.46	19.28	13.25	19.28	4.82	0.00

구분	N (명)	빈도 (%)											
		시설 확대	안내문 비치	자료 확대	자치 교육	경찰 교육	외국인 교육	자율 방법	순찰 강화	대책 회의	외국인 이해	필요 없음	기타
도서(섬)지역	38	86.84	23.68	15.79	18.42	18.42	10.53	23.68	13.16	7.89	10.53	0.00	0.00
기타	49	77.55	14.29	2.04	16.33	14.29	12.24	16.33	30.61	6.12	12.24	4.08	0.00
무응답	61	32.79	13.11	8.20	11.48	9.84	11.48	9.84	14.75	3.28	9.84	3.28	0.00
보령시 계	1,905	71.60	11.60	8.77	17.01	13.49	9.55	18.85	29.29	9.03	10.08	4.09	0.94

## V. 시민 안전인식 심층인터뷰 결과 및 위험지역 분석

### 1. 조사설계

#### 1) 연구설계

- 보령시민이 체감하고 있는 안전도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 교통안전 인식, 범죄안전 인식, 기타안전 인식으로 구분하여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근거이론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함.
- 시민의 안전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 문제 설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첫째, 교통안전의 인식에 관한 사항임. 이는 보령시가 교통사고에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경찰의 순찰에 대한 효과성 인식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교통경찰활동과 관련한 개선사항, 보령시의 교통안전 개선사항에 대한 부분임
  - 둘째, 범죄안전의 인식에 관한 사항임. 이는 보령시가 범죄에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범죄안전에서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지, 경찰의 범죄관련 활동에서 개선사항, 위험상황 직면시 도움 요청 기관 및 방법, 지역사회 내의 신중 위험 및 출현 가능성이 해당됨
  - 셋째, 기타안전에 관한 인식임. 이는 노인안전, 외국인범죄, 관광객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위험요소 및 해결방안에 대한 요구가 검토됨

#### 2) 연구참여자

- 본 연구는 보령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이 가능한 시민을 의도적 표집방법을 이용하여 참여자를 선정함. 심층면접은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지 않고 이론적 포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진행함
  - 자료수집은 보령시 이장단 및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지역 시민 2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 심층면접은 보령시에서 제공한 각 지역별 주민센터, 경로당에서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2019년 6월 11일부터 6월 28일까지 18일 동안 일대일 면접 형식으로 실시함

[표 V -1] 심층면접 일정

일자	지역명	심층면접인원
2019. 06. 11.	성주면	김OO외 7명
2019. 06. 11.	대천2동	백OO외 15명
2019. 06. 11.	주산면	임OO외 16명
2019. 06. 14.	남포면	박OO외 21명
2019. 06. 17.	천북면	송OO외 24명
2019. 06. 19.	대천5동	신OO외 18명
2019. 06. 19.	청라면	허OO외 12명
2019. 06. 21.	대천4동	김OO외 18명
2019. 06. 26.	미산면	김OO외 17명
2019. 06. 26.	웅천읍	박OO외 9명
2019. 06. 27.	청소면	김OO외 5명
2019. 06. 27.	대천3동	강OO외 20명
2019. 06. 27.	주교면	최OO외 16명
2019. 06. 28.	오천면	서OO외 17명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연구질문은 “지역시민들은 보령시의 안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임. 면담의 주된 질문은 “귀하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임. 보조질문의 내용은 면담과 자료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추가되거나 생략되었으며 그 주된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교통안전 인식 관련

- 보령시가 교통사고에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 경찰의 순찰이 교통안전에 효과적이라 생각하세요?
- 경찰의 교통활동과 관련해서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보령시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 ○ 범죄안전 인식 관련

- 보령시가 범죄에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 보령시의 범죄안전에서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 경찰의 범죄관련 활동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위험에 처하게 될 경우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관이나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우리 동네에서 ‘조만간 이런 일이 발생할 것임.’ 하는 위험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기타안전 인식 관련

- 귀하는 노인의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외국인 범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객으로 인해 위험해지는 부분은 없을까요? 만일 있다면 보령시와 경찰이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 귀하가 살고 있는 마을은 안전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중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귀하께서는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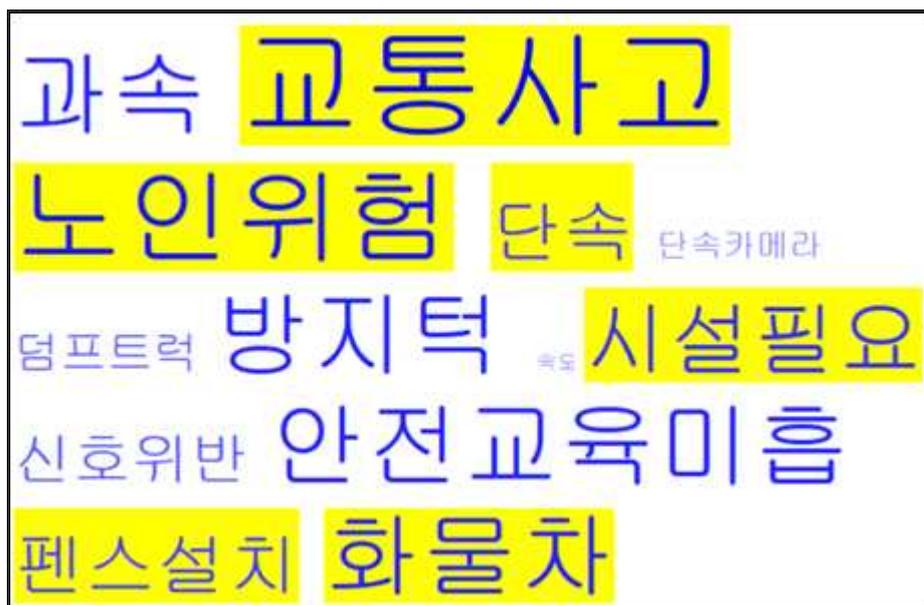
○ 심층면접 대상자의 인터뷰는 2019년 6월 11일부터 6월 28일까지 18일간 연구자들이 직접 보령시 일대를 방문하여 실시함. 면접대상자들은 보령시청 안전총괄과의 협조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참여 시민에게 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연구참여의 동의를 구하고 이루어짐. 심층면접은 보령시에 위치하고 있는 각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졌으며 피면접자 1인당 약 30분 정도 소요되 면접내용은 피면접자의 동의를 얻은 후, 녹음하였고, 자료분석 과정에서 미비하거나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추가 확인과정을 거쳤음

○ 녹음한 면담내용은 필사하였으며 자료의 누락이나 오기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가 필사된 내용과 녹음된 원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수정함. 연구의 진행은 Corbin과 Strauss가 제시하는 근거이론 방법의 분석절차를 충실히 따르며 자료를 분석함. 자료의 분석은 NVivo 10.0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료 정리 및 일차 개방코딩을 실시함. MS Word 형식으로 기록된 면담내용을 NVivo 10.0 자료로 전환하고 자료를 읽으면서 의미있다고 판단되는 단어, 문장, 문단 등을 노트

(node)로 분류하고 명명함 이는 자료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임. NVivo에 입력된 원자료를 반복해서 읽고 정교화하는 수작업을 통해 하위노드와 상위 노드들 간의 관계를 밝혀내고 범주화하는 과정이 이루어졌음. 다음 분석단계로 축코딩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각 범주들간에 생성된 연합관계를 활용하여 개방코딩을 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으로 자료를 다시 조합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함. 이 과정에서 하위범주들은 보령시의 교통안전 인식도, 경찰 순찰의 효과성, 교통경찰활동의 개선점, 보령시 교통안전 개선활동, 범죄안전 인식도, 지역불안 요인, 범죄안전 개선점, 도움 요청 기관 및 방법, 신종위험 인식, 노인안전, 외국인 범죄, 관광객 위험요소, 안전사고 인식 등의 결과들을 나타내는 패러다임 모형으로 요약됨

## 2. 교통안전체감도

### 1) 교통안전 전반



[그림 V-1] 교통안전에 따른 Word Cluster 분석 결과

- 교통안전 전반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사고의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특히 지역 내의 화물차량의 과속에 불안해하고 있으며, 감속을 위한 대안의 요구가 큰 것으로 분석됨. 지역별로 위치의 차이는 존재하

지만, 과속방지턱을 비롯한 교통사고 감소 시설 및 안전장치의 설치에 대한 요구가 높다. 또한 경찰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과 시민 스스로 교통안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요구는 시정과 경찰활동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이는 역할 및 업무 영역의 구분으로 교통안전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관리의 측면을 고려하여 유기적인 활동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내포하는 것임.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교통안전공학의 측면임. 시민들은 교통사고, 과속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교통관련시설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교통안전에 관한 도로환경, 교통안전시설, 차량 등과 같은 물질적 요소의 관리방안이 보령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개선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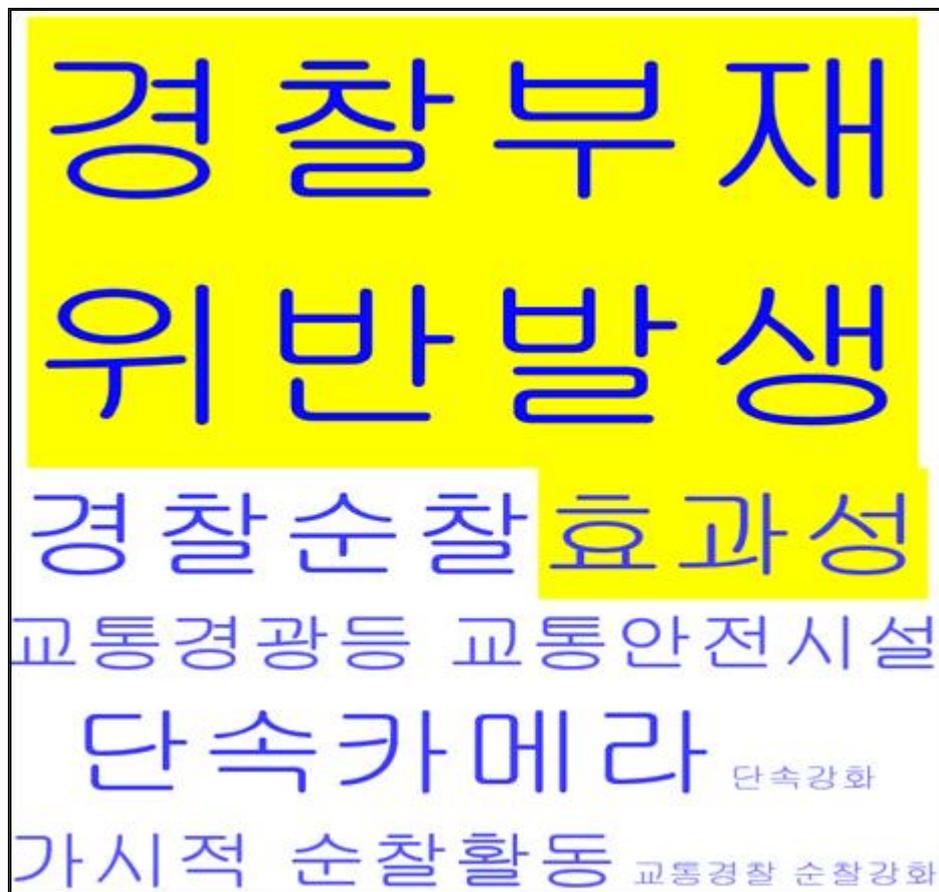
– 둘째, 교통안전교육의 측면임. 시민들은 현재 위험한 교통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에 대한 실시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민의 요구가 향상되어 있을 시점에서 교육은 그 효과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음. 일반 시민 및 고령자에 대한 개별화된 교통안전교육이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업무 담당자 및 시민 대상), 홍보·계몽 등 교통안전 의식 개선 및 그 실천을 유도하는 연계 활동이 필요함

– 셋째, 교통단속의 측면임.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교통 이용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도로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활동임. 시민들은 경찰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요구하고 있음. 인력적인 단속활동 및 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한 단속에 대한 요구가 높음. 여기에는 단속보다 단속 기준 및 법적 환경 변화에 대한 전파가 선행되어야 함

– 넷째, 교통안전환경의 측면임. 시민은 교통사고 전반에 대한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과속 및 신호위반을 미연에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의 확충과 도로 제반 환경에 대한 개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도로·차선·안전시설·자동차 및 운전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실현하는 총체적인 관리 활동이 요구됨

- A : ‘교통사고보다도 신호등 조절이 잘되지 않고 있어요.’
- B : ‘우리은행 있는 경남여관 앞 대천과출소가 있는 곳에 사이사이 펜스를 막아주셔야  
 죠. 노인분들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 위험한데 펜스를 차라리 그곳에 딱 막아  
 야 다니지 않죠’
- C : ‘어르신들이 버스이용을 위해 많이 걸어 다니시는데 내리막길에 상권과 코너가 있어  
 서 사고도 여러차례 있었죠.’
- D : ‘그전에는 차들이 별로 안다녔는데 2.5톤 이상 큰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많이 시끄  
 럽고 사고날까봐 무서워요.’

2) 경찰 순찰의 교통안전 효과성 인식



[그림 V-2] 경찰 순찰에 따른 Word Cluster 분석 결과

○ 시민들은 경찰의 순찰활동이 교통안전에 효과적인 것인가에 대한 응답에서 대부분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경찰이 보이지 않는 부재 상

황에서는 위반행위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도 나타내고 있음. 이는 순찰을 경찰이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단속에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측면의 활동으로 시민의 지역안전 체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내포하고 있음

- 시민들은 상주할 수 없는 한계를 교통안전시설 및 CCTV의 설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주목할 점은 경찰의 순찰활동이 효과적이라고 시민들이 신뢰하고 있다는 것임. 상대적으로 경찰의 가시적 활동이 감소하는 장소와 시점에서는 불안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경찰활동을 보충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도로에 교통경광등의 설치 및 경찰마네킹을 활용한 주의력 강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또한 한정된 경찰인력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고다발시간대 및 위험지역에 대한 분석으로 집중 노선 및 방식의 순찰활동 개선이 필요함

A : ‘경찰이 순찰을 돌면 순찰돌 때 잠깐은 효과가 있겠지만 차라리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같은걸 설치하는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B : ‘관광객들이 몰릴 때나 농번기 때 순찰을 돌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해요.’  
 C : ‘순찰을 하면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죠. 특히 출퇴근시간대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D : ‘저녁에도 순찰을 돌기는 하시지만 순찰을 더 돌아주시면 좋죠.’

### 3) 경찰 대상 교통활동 개선사항의 인식



[그림 V -3] 경찰대상 교통활동 개선사항에 따른 Word Cluster 분석 결과

- 지역 시민들은 경찰을 대상으로 교통활동의 개선사항에 적극적인 인식이 나타나고 있음. 우선적으로, 차량 속도의 감소를 위한 단속카메라의 설치와 지속적인 단속 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신호등의 설치와 배치 조정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으며, 회전식 교차로의 규모 및 곡선의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 요구도 나타남. 또한 교통 취약계층과 관련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노인보호구역의 설정 필요와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경찰의 활동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음
- 단속카메라 및 교통표지, 신호등의 설치에 지자체의 예산을 통해 진행되는 업무임. 그럼에도 일반 시민들은 경찰이 담당하는 업무로 생각하여 경찰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시설의 설치에 보령시가 주된 역할을 담당하되, 경찰과 시민이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진행되어야 함. 지역 시민의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의 원활한 협조 및 조정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대응해야 할 것임
- 보령시는 시설의 보완 및 설치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채널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시민이 방문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은 참여 및 기회의 제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따라서 사고 발생 지역 및 도로 환경 개선 사업 예정·실시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 청취 형식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경찰은 시민의 요구가 높은 장소를 확인하여 신호 주기 및 순환 속도의 조정이 필요함. 또한 교통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에 대한 요구가 제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활동 중에서 인지되는 교통 위험 및 취약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령시에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경찰력 배치를 통한 안전한 교통 유도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임

- A : '신호등을 설치해 줄 것을 경찰쪽에 문의는 했지만 주로 아침시간에 몰려있고 낮 시간에는 통행량이 낮아 직진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서 아침, 저녁의 한 때를 위해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 B : '횡단보도 앞에서 경찰차나 순찰차를 대기시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뜻에서 단속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 C : '신호를 조금만 늦추고, 시간을 조금만 변경하면 1분이나 얼마정도만 시간을 연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 D : '흑포삼거리 쪽으로 오는 길에 신호흐름이 끊겨서 위험해요. 신호체계가 개선 되면 좋겠어요.'

#### 4) 경찰 대상 주요 개선요구 장소 분석

##### ○ 대천5동 흑포삼거리

- 흑포삼거리 인근 마을 주민의 경우 농업인구가 상당수 존재하며 흑포삼거리를 횡단하여 농지로 이동하는 보행자 및 농기계운전자들과 삼거리 통과차량 간 사고 위험성 의견 제기됨. 특히 삼거리 신호위반 후 통과차량에 대한 사고우려가 높음
- 대천해수욕장 및 대천IC에서 흑포삼거리 방향으로 오는 길에서는 교통신호 순기가 부적절하여 원활한 교통의 흐름이 저해됨. 특히 관광객 등 빠르게 이동하려는 차량의 순간적인 과속으로 사고위험성이 높음
- 삼거리내 사고위험성을 저감을 위해 흑포삼거리의 신호위반 단속과 교통신호 순기 조정 및 개선에 대해 요구됨



[그림 V-4] 흑포삼거리 신호체계 개선 요구 장소

○ 성주면 성주삼거리 회전교차로

- 성주삼거리 회전교차로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법주정차로 교차로내 이동 차량과 사고 위험성 제기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미흡한 운전자가 다수 존재하며 특히 회전교차로 진입방법의 문제로 사고위험이 존재함
- 회전교차로 내 불법주정차 단속 및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요구됨



[그림 V-5] 성주삼거리 회전교차로 개선 요구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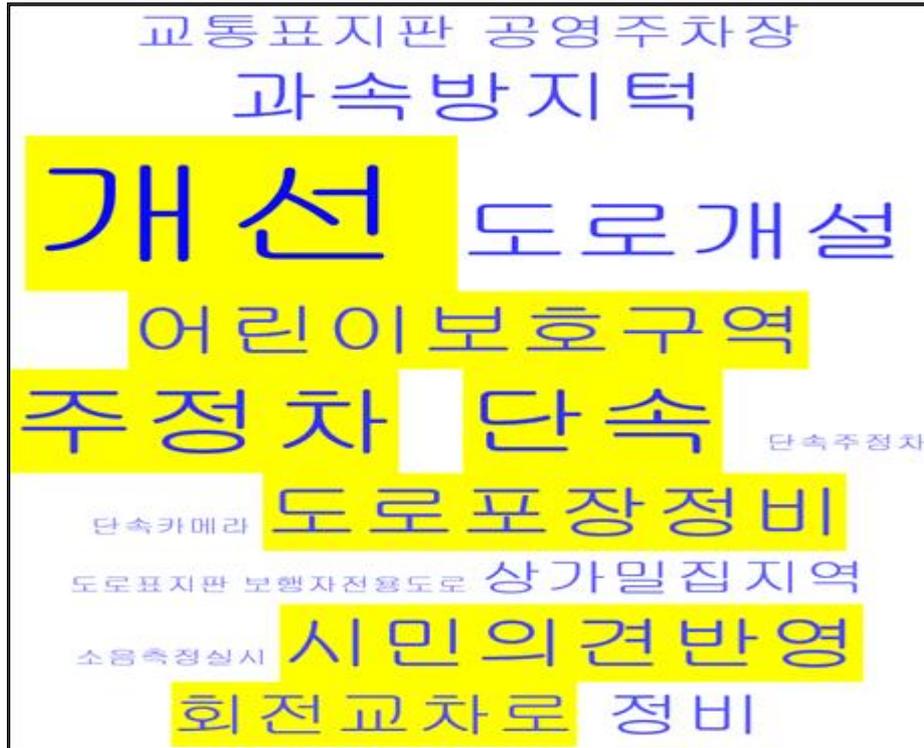
○ 오천면 오포2리 마을회관앞 도로

- 마을 인근에 위치한 탄재공장, 발전소 등으로 대형화물차량의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화물차량들의 과속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음
- 오포2리의 경우 노인보호구역 지정, 과속방지턱 설치 등 속도 저감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과속하는 차량이 대부분임
- 마을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과속단속 및 화물차량들이 산업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요구됨



[그림 V-6] 오포2리 마을회관 앞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요구 장소

5) 교통활동 개선사항의 인식(보령시)



[그림 V-7] 보령시 대상 교통활동 개선사항에 따른 Word Cluster 분석 결과

-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교통활동의 개선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인식을 나타나고 있음. 경찰을 대상으로 한 인식과 매우 유사하며, 주로 차량의 속도를 감속시킬 수 있는 방안과 도로의 개설·보수, 도로포장의 정비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음. 또한 교통에 대한 시정을 전개함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음. 지자체의 권한과 관련하여 보령시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주차장 설치, 교통표지판 개선, 교통 소음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경찰을 대상으로 한 인식과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며, 과속방지턱을 비롯해 마을 도로의 확장, 주차장의 설치와 반사거울 등 주로 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마을 표지판과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의 설치에 보령시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경찰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장소에 대해서 설치 가능 여부 및 효과성 검토가 필요함

- A : '사고다발지점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특히 상가밀집지역 사거리에 주정차 단속 및 실선을 그려 불법주정차 차량을 못 오게 해야 사고가 덜 날 것 같습니다.'
- B : '마을회관 마다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씩 있는데 승강장 쪽에 과속방지턱을 안전하게 너무 높게 하지 말고 안전하게 멈출 수 있도록 양쪽으로 조치를 취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 어딘가 모르게 보행자가 나와도 운전하는 사람이 대비를 할 수 있고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 C : '시민의 입장에서 앞으로 일본과 같이 건축법부터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일본실정을 아실 겁니다. 주차장 없으면 차도 살 수 없습니다. 대게 보면 골목이 조그마하니깐 저 뒤에다 대고 허가를 낸 다음에 뒤에는 창고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할 적에 꼭 주차장이 있어서 도로에다가 대놓지 말고 차량이 많을 때에는 지정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난을 없애야 시민들의 생활도 쾌적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C : '인근에 상가를 찾아오는 고객들이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에 불법주정차를 해서 단속이 필요해요. 상가 근처 도로에도 마찬가지로 단속해야 되요.'

## 6) 주요 개선요구 장소 분석

### ○ 주산면 간치역 버스정류장 건너편 마을진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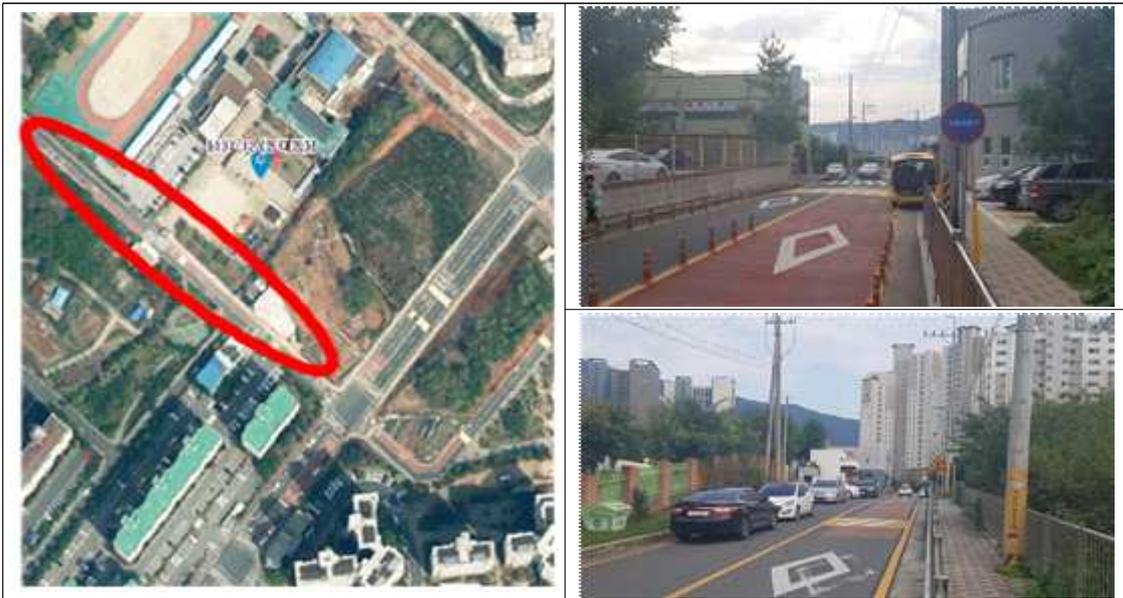
- 주야1리 마을에서 도로 진입시 좌우측의 시야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높음
- 반사거울이 설치되어 있지만 좌측 한방향만 확인할 수 있게 설치되어 있어 우측방향에서 오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움
- 마을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저감을 위해 반사거울을 양방향으로 설치가 요구됨



[그림 V-8] 간치역 인근 도로 반사거울(양방향) 설치 요구 장소

○ 대천3동 동대초등학교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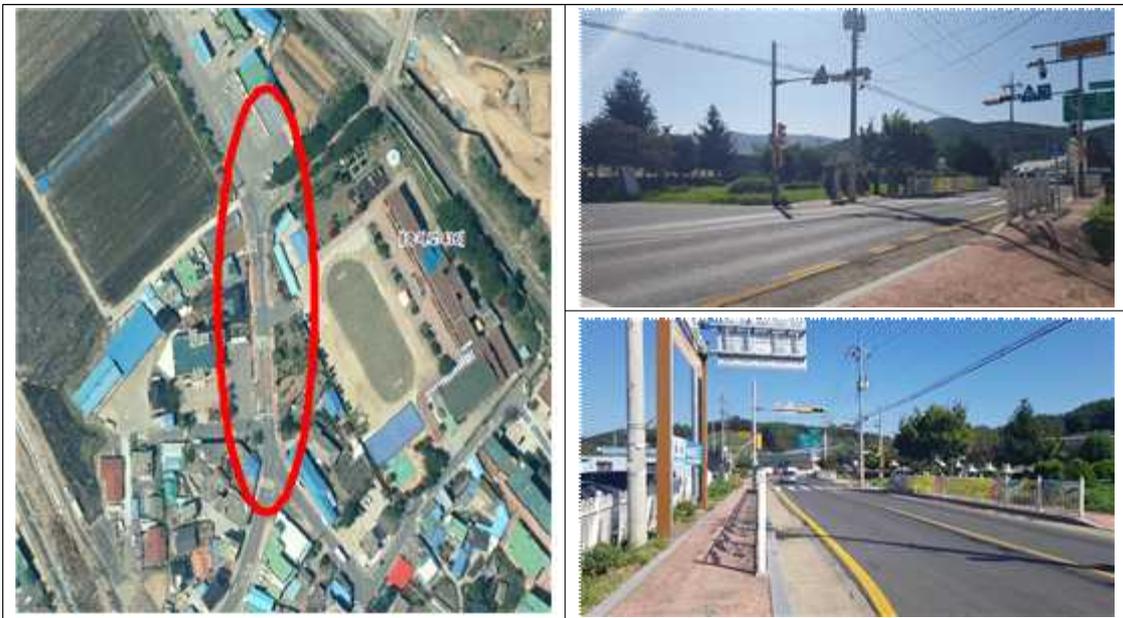
- 동대초등학교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차량 통행에 저해되며, 주정차 차량을 피해 통행하는 차량과 통학하는 학생들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음
- 출퇴근 시간대에 도로의 신호를 우회하여 통행하려는 차량으로 학교앞 도로에 통행량이 증가됨
- 통학하는 초등학생의 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및 초등학교 앞 도로에 대해 일방통행로 지정이 요구됨



[그림 V-9] 동대초등학교 주정차 단속 요구 장소

○ 주산면 주산초등학교 앞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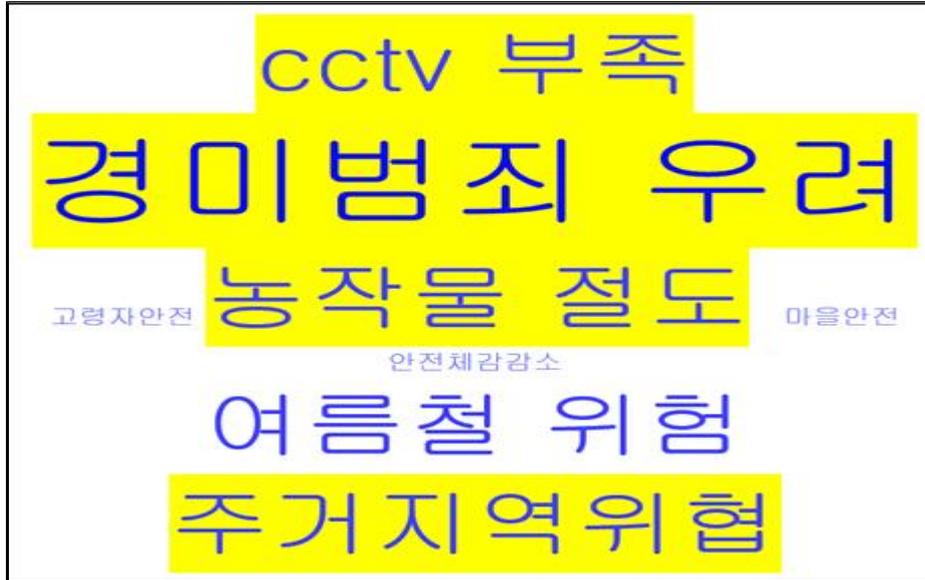
- 주산초등학교 학생들의 원활한 등하교를 위해 정문앞 횡단보도에 교통봉사원이 봉사를 하고 있지만 고령자들로 구성되어있고 봉사에 태만함에 문제가 제기됨
- 학교인근 도로의 경우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속도에 제한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통과하는 차량들의 과속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음
- 차량의 속도 저감을 위해 초등학교 앞 도로에 과속방지턱 설치 및 과속차량 단속이 요구됨



[그림 V-10] 주산초등학교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 장소

### 3. 범죄안전 체감도

#### 1) 범죄안전 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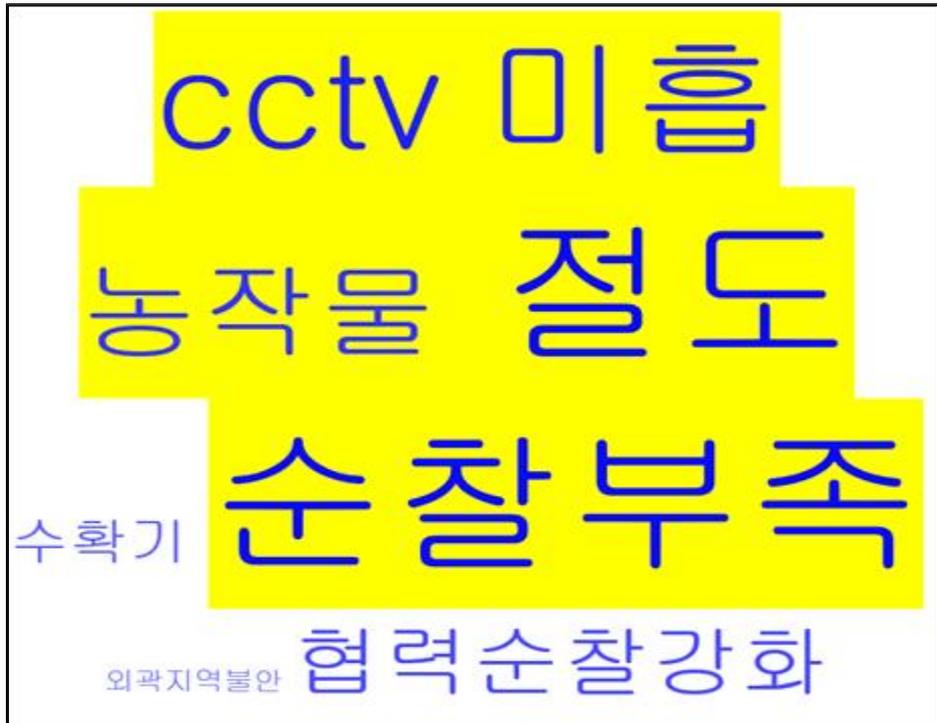
[그림 V -11] 거주지역 내 범죄안전에 따른 Word Cluster 분석 결과

- 시민들의 거주지역 내 범죄안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안전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름철 및 농작물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한정하여 범죄의 위험성이 있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CCTV 설치 부족, 고령자를 비롯한 마을안전에 대한 관심은 높음
- 거주지역이 강력범죄에 안전하지만 줌도둑을 비롯하여 경미한 범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이는 생활 속 범죄 불안감은 존재하는 것으로 즉, 시민들은 살인·강도와 같은 강력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역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강력범죄의 발생만을 기준으로 거주지역의 범죄안전을 판단하는 것은 다소 위험함. 지역 신뢰 및 지역 유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장점으로 볼 수 있으나 일상생활의 안일한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경계해야 함. 경미한 문제를 방치할 경우 중대한 지역사회의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지역 내의 경미한 범죄, 사고를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는 자발적 조기발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유사 범행 장소 및 범죄 다발 지역, 피해 발생 상황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보령시와 읍·면·동, 지역 공동체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범죄안전에 대한 역할을 경찰에게 집중하는 것은 현재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한계를 보임. ‘경찰방문’ 및 ‘방법진단’을 특정 대상 및 사업장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에서 확대하여, ‘공무원 안전방문’ 또는 ‘찾아가는 안전진단’ 서비스 등으로 특화하여 보령시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이를 통해 향후 출현이 예상되는 범죄 및 사고의 예방과 조기발견이 가능하고, 범죄 안전을 비롯하여 지역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로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음

- A : ‘불안한 요소는 한 두 가지씩은 있습니다.’  
 B : ‘강력범죄나 그런건 없어서 안전합니다.’  
 C : ‘강력사건 보다는 간혹 농작물 같은걸 훔치는 도둑이 있을 것 같습니다.’  
 D :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분들이 많아서 그게 조금 걱정되죠. 사건이 터지면 그 동네가 다 불안해지니까...’

2) 보령시 범죄안전 위협 요소 인식



[그림 V-12] 거주지역 내 범죄안전 위협요소에 따른 Word Cluster 분석 결과

- 거주지역 내 범죄안전 위협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시민들은 대부분 농작물 절도와 같은 도난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수확기일 경우 그 불안은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CCTV의 미설치에 대한 불안이 높다. 고령자 거주 가구의 경우 문단속을 하지 않고 외출을 하는 경우가 잦으며, 농번기에 농작물 또는 농기계를 도난당하는 등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도난의 피해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분석됨
- 이와 같은 문제는 주로 도심지역보다는 농촌, 어촌 등 외곽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은 유동인구와 거주지역이 한정되는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찰의 순찰활동 역시 한정된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될 수 있음
- 그러므로 순찰인원의 증원, 범위의 확대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보령시 및 지역 시민과 협의하여 주요 위험지역 및 우선 순찰 지역을 설정해야 함.. 인력 부족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순찰 시간 및 순찰 주기의 조정 및 사고다발 지점의 집중적 협력 순찰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음. 개별 위험요인 및 민간 영역의 경우 방법용 CCTV의 추가 설치 등의 물리적 환경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A : ‘가끔이지만 마을에서 줌도둑이 있어서 불안합니다. 시골이라 문단속을 잘 안하고 다니는 할머니들이 계셔서 더 불안합니다.’

B : ‘저희 마을은 아니지만 다른 마을에서는 추수철에 농작물 도난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난이 아직은 빈번하게 있어 불안한 것 같습니다.’

C : ‘조그만 도둑은 많은데 큰 사건은 없습니다. 주로 농번기때 서리하는 잡도둑들이지 큰 범죄는 없습니다.’

D : ‘도둑이 들까봐 불안하죠. 예전에 뭐 훔쳐갔다고 들었어요. 기계도 훔쳐가고, 비닐도 훔쳐가고 밥솥도 가져갔다고 하더라구요.’

### 3) 범죄 위협 관련 주요 개선요구 장소 분석

- 대천5동 대천해수욕장 일대 펜션단지
  - 대천해수욕장의 경우 일대 펜션단지에 숙박업소가 다수 존재하고 관광객들

- 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특히 여름철에 도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
- 펜션단지 입구에 방법용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골목길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난 및 범죄에 취약함
- 여름철 관광객들이 몰리는 시기에 대천해수욕장 일대 순찰활동의 강화가 요구됨



[그림 V-3] 대천5동 펜션단지 도난 위험장소

○ 오천면 오포2리 일대 농경지

- 오포2리 마을주민들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일대 농경지가 분포되어 있음. 농작물 수확철 및 농번기때 농작물 도난 뿐만 아니라 농기계 도난사건이 종종 일어남
- 농경지 일대에 순찰활동 및 방법용 CCTV설치가 요구됨



[그림 V-14] 오포2리 농경지 농작물 및 농기계 도난 위험장소

○ 미산면 도화담 삼거리 일대

- 도화담 삼거리 일대는 주로 소작농을 하는 농민들이 다수 존재함
- 자택 내부에 농작물을 보관하는 사례가 많지만 자택 출입구에 별도 출입을 제한하는 문이 없이 개방되어 있는 가구들이 대부분이므로 농작물의 도난이 빈번하게 발생함
- 범죄예방차원에서 순찰활동 강화와 방법용CCTV 설치가 요구됨



[그림 V-15] 도화담 삼거리 인근 농작물 및 기타 도난 위험지역

#### 4) 범죄안전 관련 경찰 개선활동 인식



[그림 V-16] 경찰활동 개선에 따른 Word Cluster 분석 결과

- 범죄안전과 관련하여 거주지역 내 경찰활동 개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지역 내 노숙자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됨. 일반적으로 노숙자는 수도권 및 대도시 역사 주변, 공원 등에서 주로 나타나 시민 불편사항으로 간주됨. 그러나 보령시는 관광지와 철도 및 기타 운송수단의 접근성이 원활한 특성으로 노숙자에 대한 불편이 지역 범죄의 불안 요인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판단됨
- 노숙자의 문제는 주로 공원 등 지역 내 특정 지점에서 상주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들의 존재로 불안감이 높아진다는 것이 대부분임. 노숙자 문제에 대하여 경찰 활동으로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경찰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 특히 경찰의 이동조치 또는 체포 등의 강압적인 조치는 단기간 내에 효과는 볼 수 있지만 노숙자들은 노숙하는 장소를 옮기는 것 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따라서 경찰을 비롯하여 시와 지역사회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의 참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노숙자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향후 지역사회의 중대한 위험이 될 가능성뿐만 아니라 관광지의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이 시급함

- A : ‘사람들이 아침 운동도 많이 하고 산책도 많이 다니는 곳인데 최근 들어서 노숙자 두 세분이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위협을 하고 있어요.’
- B :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진입로 이지만 노숙자분들이 안 나가고 자리를 차지하고 위협하고 있어서, 공원을 시에서 해주었지만 주민들의 쉼터가 못되고 오히려 돌아서 가고 눈살을 찌푸리는 실정이죠.’
- C :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한 시간에 한 번씩이라든가, 두 시간에 한 번씩이라든가 구역 별로 해서 체계적으로 해주시면 강력범죄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 5) 경찰활동 관련 주요 개선요구 장소 분석

#### ○ 대천4동 현수공원

- 현수공원은 일대 아파트 등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지만 최근 노숙자들이 공원에 상주하여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음
- 야간의 경우 공원내 쉼터에 청소년들의 음주 및 흡연으로 공원이용의 불편과 위협으로 조치가 요구됨
- 공원내 상주하는 노숙자들에 대한 이동조치 및 청소년들의 음주 및 흡연을 막기 위한 경찰의 순찰강화 및 범죄예방 차원에 조치가 요구됨



[그림 V-17] 현수공원 노숙자 위협 방지 요구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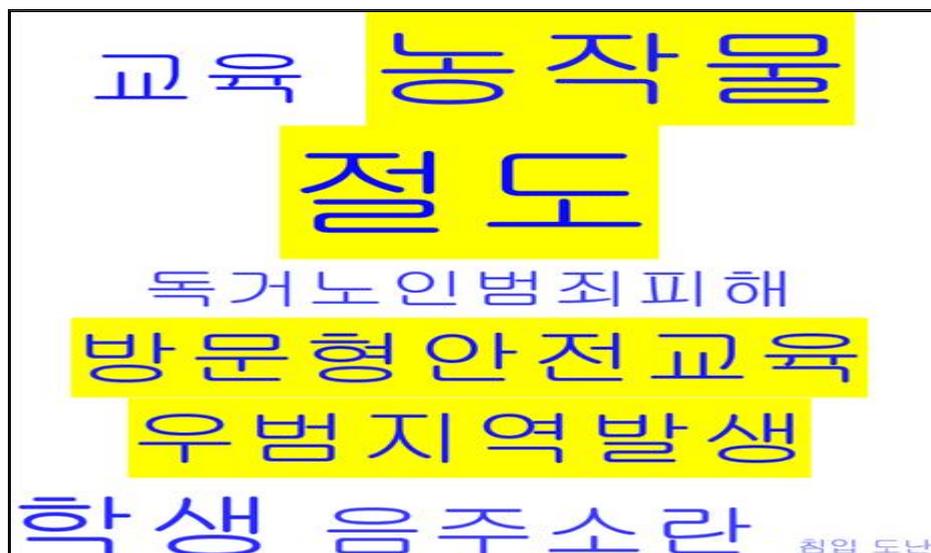
○ 청소면 청소역 및 면사무소 일대

- 청소면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증가로 일대 상가 및 거주 주민의 도난피해가 급증함
- 방범용 CCTV의 경우 면사무소 앞쪽만 설치되어 있어서 청소역에서부터 시가지 일대까지 사각지대에 방범용CCTV 설치 및 순찰활동 강화가 요구됨



[그림 V-18] 청소역 인근 방범용 CCTV설치 요구 장소

6) 범죄안전 관련 신중위험 인식



[그림 V-19] 신중위험 인식에 따른 Word Cluster 분석 결과

- 향후 일어날 신종위협에 대한 두려움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일상생활에서의 도난 위협 및 학생들이 주된 위협요소로 제시됨. 도난에 대한 위협은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농작물, 농기계에 대한 도난 위협, 일반 가정의 절도에 대한 두려움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특히 문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집을 대상으로 도난의 불안이 크게 나타나 시민들이 범죄안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일정 부분 형성되어 있으나,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위협요인과 범죄 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개선 활동이 가능하도록 시와 관련기관의 생활실천교육이 필요함. 홍보를 위한 캠페인과 지속적 교육을 위한 지역 거점을 설정하고 정기적인 방문형 교육이 필요함
- 학생에 대한 두려움은 주로 도심지의 공원에서 학생들이 야간에 무리를 지어 음주와 흡연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지역 시민들이 제지하는 것에도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학생들의 비행행위를 제지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음. 따라서 이들의 비행은 예방 및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임. 더불어, 학생들이 술과 담배 등의 불법적인 구입을 방지할 수 있는 판매처의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동시에 지역 내 학생들의 문화·교육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임
- 비행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강압적인 수단을 강조하면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함. 그러므로 지역 시민과 학교, 경찰, 관련기관을 포함하는 협력 체제를 마련하여 통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

A : ‘밤에는 9시, 10시, 11시 이쯤 되면 학생들이 학교 주변부터 공원쪽으로 가서, 주민들 쉬라 만든 정자에 올라가서 학생들이 술먹고 담배피고 있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밤에는 사실 어른들이 나가 쉴 공간이 없어요.’

B : ‘밭에 도둑이 들을 것 같아요. 농작물을 훔쳐가는 도둑이 빈번하게 있어 추수철에 힘들 것 같아요.’

C : ‘마을에 가구는 몇몇 있지만 사람은 몇 명 살지 않고 있는데 대부분 노인분들이라 누가 집에 들어가도 모를거예요. 누가 들어와 훔쳐갔다는 이야기는 못들었지만 불안하죠.’

D : ‘도로 뒤에 있는 골목에서 학생들 서너명이 담배를 피우는데 보복이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순찰을 그런 곳도 다니면 학생들이 담배를 안피울것 같아요.’

## 7) 신중위협 관련 주요 개선요구 장소 분석

### ○ 대천2동 지역내 공원(관촌공원)

- 지역내 공원에서 야간시간대에 청소년 및 노숙자들이 공원내 쉼터에서 음주 및 소란행위가 있으나 조치가 어려움
- 주요 주거지가 몰려있는 곳에 공원이 위치한 만큼 인접 주민들의 피해와 불만사항이 많음
- 야간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순찰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됨



[그림 V-20] 대천2동 지역내 공원 순찰강화 요구 장소

### ○ 대천3동 지역내 공원(동대2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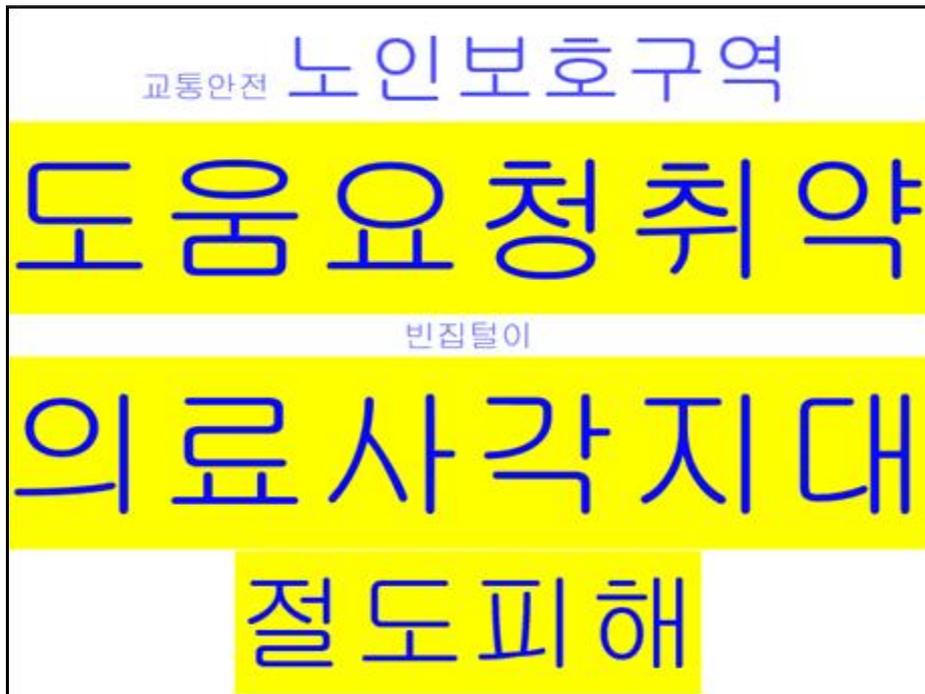
- 대천3동에 위치한 공원의 경우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지만 야간의 경우 조명시설이 부족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음
- 특히 공원 사각지대에서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가 만행되고 있지만 조치가 어려움
-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두려움 감소와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원내 조명시설을 확충이 요구됨



[그림 V-21] 대천3동 지역내 공원 조명시설 설치 요구 장소

### 3) 기타안전 체감도

#### (1) 고령자 안전



[그림 V-22] 거주지역 내 고령자 안전에 따른 Word Cluster 분석 결과

- 거주지역 내 고령자의 범죄안전에 대한 인식은 범죄행위보다는 피해에 대한 우려와 피해 회복 및 복구의 요구가 높게 나타남. 특히 고령자는 도난에 대한 신체적, 경제적 등 취약성으로 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무엇보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고령인구의 독거 현상을 감안할 때, 보령시도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함. 위기상황시 대응이 신속할 수 있는 도심지역에 비해 외곽지역에 해당하는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취약함. 따라서 노인 거주가구 및 지역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캠페인 및 예방 교육이 전개될 필요가 있음
- 거주 지역의 독거 고령자는 범죄를 비롯하여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소외 문제도 야기될 수 있음. 즉, 고령자의 대부분이 노화로 인한 질병으로 정기적인 의약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이들이 직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의료시설을 방문하는 것에는 거동 상의 많은 문제가 발생됨. ‘의료사각지대’ 또는 ‘의료 난민’의 문제가 보령시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마련되어야 함
- 이에, 이웃집 돌봐주기 및 노인 거주지역 대상 집중 순찰활동 등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집배원을 활용한 고령자 지원 서비스의 도입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활동으로만 한정하여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시와 관련기관, 지역 거주 주민과의 구체적인 ‘고령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함

A : ‘노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보다는 도둑들한테 당할까 더 걱정이죠.’  
 B : ‘노인들이 특히 고추 같은걸 도로에 많이 말리는데 간혹 이런걸 도둑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드신 분들이 특히 이런 부분에서 도난에 취약할 것 같아요.’  
 C : ‘나이드신 분들이 특별히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못들었는데, 범죄를 당하면 위험할 것 같아요.’

## 2) 고령자 안전 관련 주요 개선요구 장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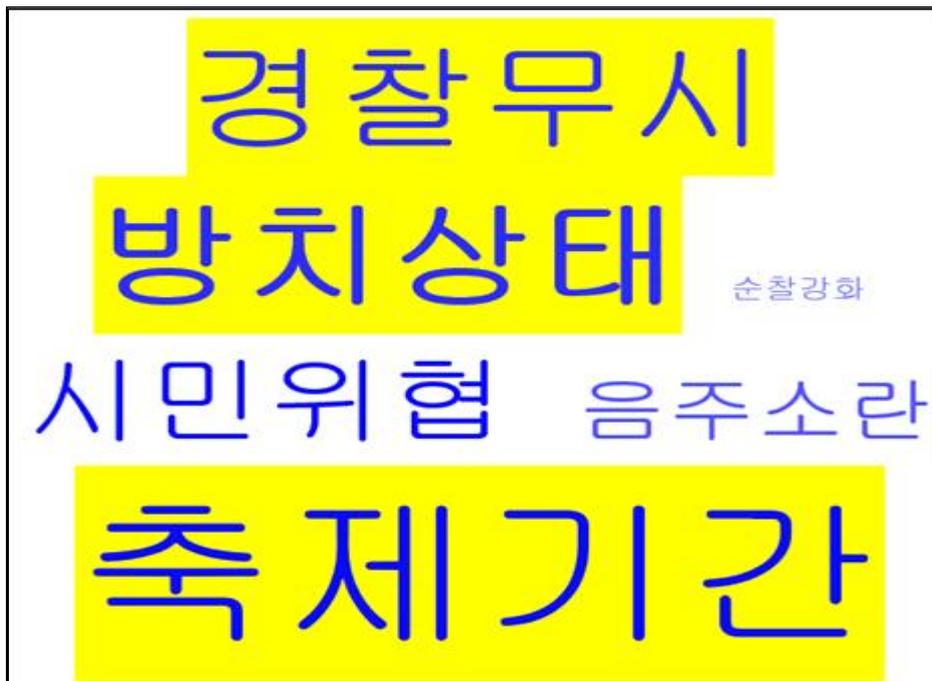
- 웅천읍 노천1리 마을 일대
  - 주요 농촌지역의 마을의 경우 고령자의 거주비율이 높으며 특히 문단속이 되지 않은 가구들이 많아 일대에 도난피해가 종종 발생함
  - 마을 골목길의 경우 가로등 등 조명시설의 설치가 미흡하여 야간에 범죄와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높음

- 노천1리의 경우 도난 및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마을 골목길에 조명시설 설치와 순찰활동 강화가 요구됨



[그림 V-23] 노천1리 마을회관 일대 고령자 절도피해 위험지역

### 3) 외국인 범죄 대책



[그림 V-24] 거주지역 내 외국인 범죄안전 관련 Word Cluster 분석 결과

- 조사대상자들은 외국인 범죄와 관련하여, 평상시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근로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낮게 나타남. 하지만 무리지어 다니는 외국인은 일반 시민과는 다른 위협을 느낀다는 의견도 나타남
- 주목할 점은, 거주지역 내 외국인에 대한 위협 인식이 머드축제 등 특정 기간에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경찰에서는 축제 등 특정기간에 집중적인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위협에 대한 인식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행사 기간 중 방문하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음주 후 행패에 대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외국인들이 출동한 경찰에 대해 무시하는 행태는 시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지자체와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은 지역사회 불안요소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보령시와 경찰, 관련기관의 통합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준법의식 강화와 기관의 활동에 대해 이해시키고, 일반 시민에게는 위협상황에 직면할 경우 도움 요청 방법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음
- 보령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이해 교육이 검토되어야 함. 우선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게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국인들이 느끼는 외국인 불안과 상황에 대한 이해의 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이 필요함. 거주 외국인을 포함하여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불안감은 '제노포비아'(Xenophobia·외국인 혐오)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지역 시민-외국인 간의 교육을 통한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순찰활동에 있어서도 단순히 가시적 순찰의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 외국인이 참여하여 지역사회·협력단체가 함께 실시하는 합동 순찰을 고려해야 할 것임

A : '외국인들이 특히 술마시고 행패부리고 소리 지르고 다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경찰이나 시에서 적절하게 조치하면 좋은데 그냥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는 다른 외국인을 봐도 무섭죠.'

B : '머드 축제 때 같은 경우 외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오는데 우리나라 사람을 깔보니다. 맨날 술 먹고 시비 걸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경찰이 와도 무시하더라고요.'

C : '평상시 마을에 사는 외국인들은 별로 안 무섭거든요. 그런데 머드축제기간에는 외국인들이 술먹고 행패를 많이 부리죠. 그럴 때 혼자 다니면 불안할 것 같습니다.'

D : '해변가에서 주류를 안파는 나라가 꽤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술문화를 즐기러 오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만취되어서 소란을 피우는 일이 많았었죠.'

#### 4) 관광객



[그림 V -25] 거주지역 내 관광객으로부터 위협 관련 Word Cluster 분석 결과

- 거주지역 내 관광객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관광객으로부터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 내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관광지로 오랜 기간 동안 관광객이 방문하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불안은 다소 약할 것이라고 예상됨. 그러나 지역 시민들은 관광객에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강력사건보다는 음주 후 소란, 숙박시설 인근에서 도난 등 경미한 사건에서 느끼는 불안이 주로 제시됨. 특히 여름 휴가철에 대천 및 무창포 해수욕장 일대는 관광객의 수가 많아 보령시와 경찰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불안감이 감소되는 것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 음주소란 행위, 영업위협, 폭행, 단순 절도 등 관광객들이 시민을 위협하는 범법행위는 그 유형이 다양하게 조사됨. 그러나 시민들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소득으로 관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인 경우가 많음. 범행위에 대한 진압적 대응활동뿐만 아니라 시민이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원활한 채널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또한 강제력에 기반한 즉각적·단기적 측면의 대응 방안과 동시에 음주문화 개선 캠페인 등 방문객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됨

A : ‘관광객들이 오면 술마시고 소란을 피우는건 다반사입니다.’
B :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랑 문제 생기면 우리만 손해지요. 어쨌든 조금 불안합니다.’
C : ‘휴가철에 관광객들이 몰릴 때 특히 술마시고 소란을 피운다고 들었습니다(4)’
D : ‘관광객인데, 싸우고 신고해봤자 우리만 손해지 뭐.. 그래서 그냥 참고 넘어가는거죠.’

#### 4. 심층인터뷰 결과 위험지역 및 요구사항

##### 1) 교통안전

[표 V -2]시민들의 교통안전 요구 지점

구분	지점	현재 위험요소	요구사항
남포면	삼삼주유소 교차로	과속 위험 높음	단속 카메라 설치 요구
	파출소 앞 삼거리	신호 순환 저해	교통 신호 순환 및 주기 점검
	봉덕1리 에이스농기계 앞	불법주정차	사고위험 표지판 및 주정차 단속 강화
대천2동	파레스 여관 앞 사거리	가드 레일 설치로 인한 시야 확보 곤란	가드 레일 철거 및 위치 조정
	대천파출소 앞	펜스 미설치로 인한 사고위험	펜스 설치 및 통행 차단
	홍화아파트 출입구	과속	점멸등 효과 미흡으로 조정 필요
	발전소 통행구간	과속	회전교차로 및 과속 단속
대천3동	동대초등학교 앞	차량 통행량 대비 도로 폭 문제 및 불법주정차	주정차 단속, 일방통행로 지정 필요
대천4동	명천초등학교 앞	과속, 신호등 부재, 보행자 위험	과속 단속, 신호등 설치 필요, 횡단보도 위치 조정
대천5동	흑포삼거리	신호위반으로 횡단 보행자 위험 높음	신호위반 단속
	청파초등학교 앞	차량 신호등 부재로 보행자 위험 높음	신호등 설치 필요
	대천 해안도로	과속 위험 높음	신호등 설치 및 과속단속

미산면	웅천농협 내평지점 앞 버스정류장	고령자 횡단 시 위험 높음	보행자 신호등 설치 요구, 과속 단속
	대농리 사거리	도로 외곽에 나무로 인한 시야 확보 곤란	나무 등 도로 환경 정리
	내평마을회관 앞	과속	과속 단속
	도화담 삼거리	주간 시간대 신호 점등 문제	주간 시간대 신호 상시 작동 필요
성주면	성주4리 청라터널 방향 도로	과속	과속 단속
	성주삼거리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 내 사고 위험	진입로 노면표시 및 회전교차로 이용 방법 홍보
오천면	오포2리 마을회관 앞	화물차량 과속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요구 및 산업도로 우회조치 필요
웅천읍	노천1리 마을회관 앞	화물차량 과속	과속 단속
주교면	대우공단 앞	교통 신호 순환 저해	교통 신호 순환 및 주기 점검
주산면	제일교회 앞	과속	과속 단속
	주산초등학교 정문 앞	과속, 고령자 교통봉사원의 태만 및 전동휠체어 이용 문제	과속 단속, 교통봉사원의 비고령자 구성 및 개선 요구
	간치역 버스정류장 맞은편 주야1리 입구	통행 중 시야확보 곤란	도로반사경 설치 요구
천북면	장은3구 굴단지 입구	과속	과속 단속,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요구
청라면	음현리 방향 삼거리	시야 확보 곤란, 과속	과속 단속
청소면	진죽1리 마을회관 앞	화물차량 과속	과속 단속

## 2) 범죤안전

[표 IV-3] 시민들의 범죤안전 요구 지점

구분	지점	현재 위험 요소	요구사항
남포면			
대천2동	지역 내 공원	청소년의 음주, 흡연	취약지역 순찰 강화
대천3동	지역 내 공원	청소년의 음주, 흡연	공원 내 조명 시설 설치 등 밝은 환경 조성

대천4동	헌수공원	노숙자들의 시민 위협 문제, 청소년 음주 및 흡연	노숙자 위협 방지 조치 및 범죄 예방차원의 조치 필요
대천5동	지역 내 펜션단지	여름철 도난 위험 높음	사각지대 순찰 강화
미산면	도화담 삼거리 인근	농작물 도난	순찰 강화 및 방범용CCTV 설치 요구
대농리 마을 입구	어두운 환경으로 우범 위험	조명시설 설치 및 순찰 강화	조명시설 설치 및 순찰 강화
성주면			
오천면	지역 내 논, 밭	농기계 및 부속 도난	순찰 강화 및 방범용CCTV 설치 요구
웅천읍	노천1리 마을회관 일대	주거 침입 도난 위험	순찰 강화 및 방범용CCTV 설치 요구
주교면	신대리 마을 입구	어두운 환경으로 우범 위험	순찰 강화 및 방범용CCTV 설치 요구
주산면			
천북면	천북중학교 앞	어두운 환경, 외국인들의 무리지어 다님으로 위협	조명시설 설치 및 순찰 강화
	천북농협 일대	농협 ATM 부스내 외국인 흡연	순찰 및 계도 조치
청라면	라원1리 마을 입구	어두운 환경 및 우범지역	조명시설 및 방범용CCTV 설치 요구
청소면	청소역 역전 앞 및 청소면사무소 일대	도난 위험 높음	순찰 강화 및 방범용CCTV 설치 요구

## Ⅵ. 보령시민 체감안전도 개선을 위한 제언

### 1. 결과 요약

- 보령시민이 체감하고 있는 안전도를 살펴보기 위한 조사는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의 방식으로 진행됨. 1차적 실증분석은 전체응답자 1,9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차적 심층면접은 228명을 선정하여 진행됨

#### 1) 실증분석 결과

- 실증분석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905명의 유효응답내용을 분석함
  - 전체 응답자 중 남성은 956명으로 50.18%를, 여성은 908명으로 47.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주지의 경우 시내권이 51.76%로 가장 많았음
  - 거주 기간의 경우 10년 이상 20년 미만 응답자가 전체의 33.39%로 가장 많으며, 20년 이상 50년 미만 거주 응답자의 경우에도 25.77%로 많은 비중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장기 거주 주민비중이 높았음
- 체감 안전도에 대한 질문으로서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범죄안전에 대한 인식, 범죄예방활동의 세가지 영역에 대한 인식도를 측정함

#### (1) 교통안전

- 보령시 전체 교통사고 안전도 인식은 5점 만점 중 3.04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였으며 지역별로 미세하나마 편차가 있었음.
  - 대체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곳은 해수욕장지구대, 미산파출소, 오천파출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천북파출소, 동대지구대, 시민경찰 순으로는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다소 낮게 나타남
  - 성별은 전체적으로 여성에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임

- 경찰의 교통안전 활동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함
  - 도서지역은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라면과 청소면에서는 불만족하는 응답의 비중이 높았음
  - 웅천파출소, 해수욕장지구대, 천북파출소, 미산파출소 순으로 잘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보령경찰서는 다소 낮게 나타남
  - 그러나 이 수치는 소속된 지구대 파출소에서 조사된 비율이기 때문에 지구대 파출소 각각에 대한 만족도와 연결해서 해석할 수는 없음
  - 여성이 남성보다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0대에서는 불만족하고 있으나 그 외 전 세대에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만족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교통안전활동은 아침등교시간 및 출근시간대와 야간에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음
  - 어린이 학생의 안전위험에 대한 불안감과 야간 교통단속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되며, 오전이나 새벽시간의 수요는 적음
  
- 희망하는 교통안전활동으로는 위험지역 계도활동 수요가 가장 높고, 법규위반 단속, 음주단속 순으로 요구가 높게 나타남
- 교통안전활동 수요에 대해서는 지역간 편차가 큼
  - 주산면은 교통계도활동 수요가 70%였지만, 청라면은 24%에 불과함
  - 성주면이나 시내권에서는 교통법규위반과 음주단속 수요가 높은반면, 천북면이나 도서지역은 법규위반 단속활동 수요가 낮고, 주포면이나 오천면에서는 음주 단속에 대한 수요가 낮음
  
-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원인으로는 과속이 가장 많음. 다음으로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순으로 나타남
  - 시내권에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며, 주포면 등에서는 무단횡단 사고우려가 높음

-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속단속 카메라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신호등·표지판 등 시설보강과 가로등 설치 순으로 나타남
  - 중앙분리대 설치나 차선 도색 수요는 낮음

(2) 범죄안전

- 여성이 야간에 활동하기에 안전한 정도에 대해서는 다소 위험하다는 인식이 많았음
  -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소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미산면, 성주면, 오천면, 도서지역에서만 다소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음
  - 웅천읍, 주산면에서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심야시간대 혼자 다니는 것이 불안한 이유는 술취한 사람들이 많이 목격되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었고, 경찰관의 순찰이 적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음
  - 외국인이나 불량청소년에 대한 불안감을 표하는 곳도 일부 있었음
  -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불안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축제 등 지역행사와 관련해 방문하는 외부인으로 인한 범죄 발생 등에 대해서는 큰 불안을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주산면, 오천면, 청라면의 경우는 평균5점대비 2점이하로, 거의 불안을 갖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 절도와 관련해서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 폭행 및 살인에서도 대체로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절도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를 나타냄
  - 지역별로는 주산면, 미산면, 오천면, 성주면에서는 불안을 거의 느끼지 않는 반면 대천해수욕장과 남포면에서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 지역간의 편차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외부인 유입으로인해 우려되는 것으로 성범죄 관련 불안이 가장 높아 앞으로 이에 대한 집중적인 대처가 필요할것으로 풀이됨
- 풍기문란 위험인식은 성범죄 발생 우려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풍속범죄 발생과 청소년 등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는 지역별, 세대별로 편차가 큼
  - 지역별로는 대천해수욕장에서 가장 높게, 주산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우려가 크게 나타났으며, 10대는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거주지역에서 범죄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웃과의 교류나 거주희망도도 높게 나타났으나, 지역행사나 모임에 참석하는 비율은 낮았음
- 위협에 처했을 경우 경찰에 대한 도움의 기대가 이웃에 대한 기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웃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위협상황에서 이웃에게 도움을 기대하는 비율이 낮았으며, 범죄 발생이나 안전의 측면에서 다른 지역 기관보다 경찰에 의해 도움을 얻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에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풀이됨
- 가장 발생우려가 높은 범죄 유형으로는 성폭력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학교폭력, 가정폭력 순으로 나타남
  - 학대는 비교적 우려가 적었음
  - 지역별로는 대천해수욕장에서 성폭력 관련 우려가 높았으며, 시내권과 읍촌에서는 학교폭력 우려가 높았음
  - 남포면·성주면·주포면은 가정폭력, 주산면·미산면·청라면·청소면·천북면은 노인학대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됨

- 여성, 청소년 보호를 위해 경찰이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절반이상이 순찰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이어 피해자 보호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나타남
  - 사전예방과 수사상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우려되는 범죄유형에는 폭행, 성범죄, 보이스피싱이 높게 나타난 반면, 마약, 도박, 살인은 비교적 낮게 나타남
  
- 범죄예방을 위해 CCTV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가로등 설치 순찰 순으로 나타남
  - 시설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 순찰방식으로는 걸어서 순찰하는 것보다는 차량과 도보를 병행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음

### (3) 범죄예방 활동

- 경찰의 순찰활동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도서지역에서 만족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청라면이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희망하는 순찰 시간대는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오후6시부터 9시, 자정부터 새벽 3시순
  - 야간, 초저녁, 심야 시간대 순찰 희망이 높으며,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로 야간에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풀이됨
  
- 거주지역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시설이나 장치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 순찰강화, 자율방범노력의 필요성 순으로 나타남
- 범죄예방 교육이나 자료 확대, 외국인에 대한 범죄예방 교육 등에 대한 수요는 적었음

## 2) 심층인터뷰 결과

- 체감안전도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①교통안전 인식, ②범죄안전 인식, ③기타 지역 내의 안전인식으로 구분함.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분석 결과와 심층면접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개별 연구문제에 대한 지역 시민의 거주지역 안전 인식과 보령시·경찰·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한 요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 교통안전

- 보령시민의 교통안전 활동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보령시를 포함한 관련기관의 활동도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남. 교통안전 체감도의 향상을 위해 2차적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시민의 요구 및 인식은 다음과 같음
- 실증분석 및 심층면접 결과, 교통사고의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제시되고 있음. 지역 내의 차량 과속에 대한 불안감, 특히 대형·화물차의 과속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활동적·환경적인 개선이 필요함
- 물리적 개선방안으로는 교통안전시설, 도로환경 등이 확충되어야 함.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 교통CCTV 등의 재정비와 확대 설치를 통해 가시적인 개선이 필요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요청사항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신호등·표지판 등의 교통시설물 보강과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가로등 설치, 차선 도색 등의 개선이 필요함
- 인력 및 운용상의 개선방안으로는 교통 취약 시간대 및 교통안전 활동 요구 시간대의 분석을 통해 활동 인력의 집중 투입 및 우선 교통 활동을 선정하여 개별적인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실증분석 결과, 교통안전 활동의 희망시간대는 아침 등교 및 출근 시간대, 늦은 야간 시간대로 나타남. 시민들이 요구하

는 시간대와 관련기관이 활동을 전개하는 시간대를 분석·재조정하여 활동 역량을 결정하여야 함

- 교통안전 활동 유형을 구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인력 운용이 필요함. 교통계도 활동, 단속활동, 음주단속 활동에 대한 수요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교통계도 활동이 강제력을 수반한 단속 활동보다 우선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면 단위 지역과 도심 지역이 교통안전 활동에 대한 효과성의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심층분석 결과, 경찰의 부재상황에서 위반행위가 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경찰을 비롯한 보령시 교통업무 담당 부서, 특별사법경찰 활동의 탄력적 운영이 요구됨
- 교통안전 활동 인력의 상시적 운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가 개선되어야 함. 위험구간 및 과속 구간, 사고 다발 구간을 선정하여 교통경광등의 확대 설치 및 모형 경찰차, 경찰마네킹의 배치가 필요함
-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이 전개되어야 함. 교통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고령자 및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대한 확보 요구가 심층분석 결과 제시됨. 따라서 무단횡단 및 도로 이용시 돌출행동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법·제도의 변경시 이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함. 교육방식은 방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교통안전에 대한 정보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시민들이 발견하는 위험 구간 및 요소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함

## (2) 범죄안전

- 보령시민의 범죄안전에 대한 체감도를 분석하기 위해 여성안전, 심야시간 안전, 지역행사 안전, 유형별 거주지역 범죄 발생가능성 등으로 구분하여 실증조사를 실시함. 분석결과, 심야시간대의 불안감,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성범죄 불안감 등은 안전하다는 인식보다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실증분석 결과에서 절도, 폭행·살인, 시설물 파손, 풍기문란과 관련하여 외부인에 대한 불안감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심층면접 결과에서는 살인 등의 강력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높지 않지만, 단순 절도 및 주거지역 위협의 경미범죄에 대한 불안은 제시되었으며, 특히 여름철 및 농작물 수확기에 대한 절도 위협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경미한 범죄에 대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고 있지만, 강력사건에 대한 발생이 없기 때문에 지역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어 일상생활의 범죄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지역 내의 경미한 범죄를 조기발견할 수 있는 시민과 보령시·관련기관의 안전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함
- 실증분석 결과, 보령시민은 거주지역 범죄발생 가능성에 대해 대부분의 유형에서 매우 낮을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음. 그러나 심층면접에서 특정시기(여름철, 수확기), 특정 대상(고령자), 특정장소(관광지, 외곽지역)에 대한 불안함은 제시하고 있음. 강력범죄가 아니더라도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경미범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예방활동 강화가 필요함
- 심층면접에서 농작물 절도, 독거노인 범죄안전, 학생범죄 우려, 우범지역 발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지역사회의 문제는 지역 시민이 가장 빠르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시민을 포함한 범죄안전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조기문제발견에 예방 역량을 집중해야 함. 신종범죄 유형의 지역 내 출현에 대해 신속히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방문형 범죄안전진단’ 및 안전교육이 전개되어야 함
- CCTV 설치 미흡 및 공원 주변 불안, 노숙자 등장, 외곽지역 불안, 경찰 순찰의 부족은 심층면접에서 제시된 위협요소임. 이에 대한 요구사항은 물리적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순찰인력의 강화로 파악됨. 시민 안전의 확보를 전제로 한 협력 순찰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역 내의 문제는 시민이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으므로, 시민과 민간단체, 경찰, 지자체 공무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순찰이 필요함

### (3) 기타 생활안전

- 심층면접 결과, 기타 지역 체감안전도를 개선하기 위한 부분으로 고령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전이 제시되었음. 고령자는 도움을 요청하는데 취약한 상황적 약자로서 다양한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범죄와 교통에서의 약자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제공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1차적으로는 관 주도적인 측면에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이후 민간 주도적인 역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외국인과 관련되는 안전은 축제기간 등의 특정시기를 중점적으로 불안이 가중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무엇보다 예방 및 대응에 있어서 경찰 및 공무원의

역할을 스스로 낮게 평가하여 음주소란 행위가 지속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음. 단속보다는 방문 외국인에 대한 법·제도 이해 교육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응 교육이 마련되어야 함

- 관광객과 관련되는 안전은 음주소란, 영업위협, 폭행 등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대응 시, 방문객 및 영업 이익의 감소 우려로 인해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제시됨. 보령시와 관련기관의 예방 캠페인 및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원활한 채널이 마련되어야 함
- 종합하면 첫째,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 요구됨. 시민들은 교통안전, 범죄안전, 기타안전에서 우선적으로 물리적 환경의 불안으로 지역사회 안전의 체감도가 낮아진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따라서 보령시와 경찰, 관련기관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해 주기를 원하고 있음.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른 구분보다는 거주하고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안전해지기를 원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함. 따라서 보령시는 각 기관별 역할과 기능에 대해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해당 영역의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함. 개선의 우선순위에 따라 각 기관 및 부서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요구됨
- 둘째, 인력 운용 측면에서의 개선이 요구됨. 보령시를 비롯한 경찰 등은 조직의 인력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음. 즉,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시민의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현실임.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근무체계 및 투입 역량의 집중이 고려되어야 함.. 순찰을 실시하되, 순찰노선이나 투입 시간, 중점순찰지역을 고려한 투입이 필요함. 시민의 불안이 높고, 장애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시점을 선정하여 인력을 투입하고, 그 투입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지방분권형 시스템 및 지역사회 경찰로의 변화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임. 따라서 지역 특성 및 지역 시민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함
- 셋째, 보령시민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함. 즉, 지역공동체 형성에 대한 사업이 전개되어야 함. 실증분석에서 보령시민은 지역 내에서 장기 거주를 희망 및 주민 의식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위험상황 시 이웃이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하지만, 지역행사·모임·회의에 대한 참석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는 지역공동체를 형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함. 먼단위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도적인 역량을 시민 스스로 결집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함. 보령시와 관련기관은 지역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민 참여를 통한 안전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초기 정착과정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기회를 구상해서 제공하되, 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시민안전교실, 안전리더 육성사업, 이웃돌봄활동 등 대상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시책의 추진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2. 교통사고 및 범죄 발생 저감과 사망자 감축을 위한 사업

### 1) 교통사고 감축대책

#### (1) 취약계층 지원

- 시내권 오래된 주거지역과 유동인구 많은 지역,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많고, 신호위반 및 좁은 도로에 과속이나 불법주정차하는 경우가 많음
  - 인구와 자동차 밀집지역임에도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지며, 인도확보가 어려움
  - 과속은 좁은 골목이나 불법주정차 차량 밀집공간에서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게 됨
- 노인 보행자 안전환경을 위한 안전법규 교육 및 단속
- 70세 이상 보행자 중심으로 정오부터 퇴근시간까지 위험이 높음

#### (2) 인프라 개선

- 스쿨존 과속방지턱 / 입체횡단보도 설치
- 주산면 주산초, 대천4동 명천초 등 과속위험이 높은지역은 스쿨존 노면도색과 과속방지턱 설치 및 학교앞 속도준수를 위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필요
  - 착시효과를 일으키는 입체 횡단보도를 그려서 속도를 줄이게 하는 효과
- 반사경 설치
- 신호등 설치
- 횡단보도 안전보행시스템 구축
- 횡단보도 통행시 안내방송을 통한 사고위험 저감
-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 사고 다발지역 및 상습 과속 우려지역 신호위반, 과속 단속  
: 대천2동 발전소 통행구간, 대천4동 명천초 앞
- 고휘도 반사지 부착
- 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버스·택시 승강장이나 진입도로 및 골목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휘도 반사지를 부착 (LED 조명 설치 예산의

1/5 수준으로 설치할 수 있음)

- 무인단속카메라에 부착하면 야간 시인성을 개선할 수 있음



[그림 VI-1] 고휘도 반사지 부착예시

### (3) 단속

- 음주운전 단속
-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

### (4) 기타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홍보
  - 회전교차로 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진입로 노면에 차선이용 표시와 함께 회전교차로 이용방법 안내가 필요함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실시
  - 교통사고 빈발 특정지점 대상 교통공학, 인간공학 측면의 교통사고 원인 심층분석 및 개선사업 시행
-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교통(사망)사고 분석지도
  - 결과를 바탕으로 순찰차가 사망사고 지역을 지날 때 자동으로 지도에 사고 지역을 표시하고 ‘사망사고 발생지역’ 안내가 음성지원되는 네비게이션 시스템 구축
- 사고 구간 실명제
  - 국도 연장 5Km 구간마다 과계장급 경관의 이름을 붙여 일대일로 관리 감시 하는체제 구축(충북 진천군 사례)

- 담당 경관이 구간 사고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 시설물 설치 등 필요한 예방조치 아이디어를 모집

## 2) 범죄발생 저감대책

### (1) 맞춤형 지원

- 발생이 높은 범죄유형은 절도, 우려가 높은 범죄유형은 성범죄이며, 실제 해수욕장이나 도서지역 등 주민 인식은 경험에 기반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지역공동체 치안 협의체 구성
  - 지역사회 속 치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 주민, 자치단체의 결합체로, 시내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개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작은 단위에서 지구대파출소, 주민, 동사무소 형태의 결합을 형성하여 범죄 취약요인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형성함
- 알콜중독 관리사업
  - 주취폭력이나 가정폭력등 음주로 인한 범죄발생이 높고, 이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가중되는만큼 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중독관리를 시행할 수 있음

### (2) 인프라 개선

- 스마트 보안등 설치
  - 우범지역 대상지를 선정하여 설치장소로부터 20m 이내 상황을 24시간 상시 촬영하는 블랙박스를 탑재한 LED보안등
- 공원 가로등 설치
- 범죄예방 CCTV 설치

### (3) 단속

- 폭력 집중단속

- 주취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지역별 집중 단속 실시  
시내권, 응천읍 : 학교폭력, 해수욕장, 도서지역 : 성폭력

#### (4) 기타

##### ○ 방법활동을 위한 주민참여

-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수욕장 주변, 학교주변에 대해 주요 시간대별 (야간) 방법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도보순찰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동행하는 방안
- 순찰구역 결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의견 수렴
- 지구대 파출소 순찰경관에 대한 주민의 불만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

## 참고문헌

범죄과학연구소,외국셉테드사업추진사례연구용

범죄과학연구소, 외국 셉테드 사업 추진 사례 연구용역

범죄과학연구소,외국셉테드사업추진사례연구용역

보령시 통계연보

보령시, 보령 한내시장 활성화 연구, 2013.3

보령시청, 마을별 기본현황

보령한내시장 활성화연구, 보령시, 2013.3

임재동,보행자사고와교통안전방안에관한연구

임재동,보행자사고와교통안전방안에관한연구

장석용외2명,어린이교통사고저감을위한정책제언

한상진,우리나라의 시도별 교통사고 특성 분석

허지은, CPTED 설계를 통한 환경디자인 개선에 관한연구

<http://gumineews.co.kr/ArticleView.asp?ArticleId=33885&Section=03:31>

<http://infokeep.tistory.com/44>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841054>

<http://news.joins.com/article/21973858>

<http://news.joins.com/article/22003124>

<http://www.cityofseatac.com/mode/ordiances/03-1033.htm>

<http://www.cj-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47867>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news\\_cd=2014101300051](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news_cd=2014101300051)

[http://www.kmrnews.com/ynews/ynews\\_view.php?code=NS02&pid=50223](http://www.kmrnews.com/ynews/ynews_view.php?code=NS02&pid=50223)

<http://www.merseyside.police.uk/join-us/special-constables.aspx>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241265>

<http://www.pedie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672>

<http://www.pedie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181>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620>

[http://www.tempe.gov/tdsi/Planning/CPTED/cpted\\_g.htm](http://www.tempe.gov/tdsi/Planning/CPTED/cpted_g.htm)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9644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9/0200000000AKR20170919064800003.HTML>

KOSIS 국가통계포털

Rockclimbing Adventure Activity Standard (AAS Guidelines for Dependent Groups,  
Published by the Outdoor

Recreation Centre Inc., Supported by the Victorian outdoor industry and the Victorian  
State Government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MACS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 범죄안전에 대한 인식도

10. 귀하의 거주지역(읍면동)에서 여성이 밤중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안전    ② 다소 안전    ③ 보통    ④ 다소 위험    ⑤ 매우 위험

11. (위 10번 문항의 ③ ④ ⑤번 응답자만)

귀하의 거주지역(읍면동)에서 밤중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불안하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중복응답 가능)

- ① 범죄피해를 당한 이웃이 많아서  
 ② 나와 가족이 범죄피해를 당한 일이 있어서  
 ③ 밤에 술에 취한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어서  
 ④ 싸움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어서  
 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어서  
 ⑥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이 순찰을 잘 돌지 않아서  
 ⑦ 주위에 불량배나 불량청소년들이 모이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어서  
 ⑧ 외국인들이 몰려 다니거나 모이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어서  
 ⑨ 최근 언론과 방송에서 우리 지역의 범죄를 자주 보도하기 때문에  
 ⑩ 기타 ( )

12. 귀하의 거주지역(읍면동)에서 진행되는 축제 등 각종 행사(해수욕장, 지역행사 등)에 외부 (외국인 포함)에서 놀러온 사람들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걱정을 해 보신일이 있습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1 나는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 때문에 이유없이 불안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2-2 나는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 때문에 절도가 늘어 날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12-3 나는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 때문에 폭행이나 살인사건이 일어날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12-4 나는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 때문에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날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12-5 나는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 때문에 시설물을 파손당하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12-6 나는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 때문에 풍기문란 등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17. 귀하의 거주지역(읍면동)에서 범죄발생이 염려되는 장소와 범죄유형 및 요청사항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없으면 생략가능 / 있으면 중복선택 가능)

범죄발생 위험장소	
우려되는 범죄유형	① 살인 ② 강도 ③ 절도 ④ 폭행 ⑤ 성범죄(강제추행 등) ⑥ 방화 ⑦ 마약 ⑧ 유괴 ⑨ 아동·노인학대 ⑩ 가정폭력 ⑪ 몰래카메라 찍히는 것 ⑫ 도박 ⑬ 보이스 피싱(전화사기) ⑭ 사기(인터넷 사기포함) ⑮ 외국인 범죄 ⑯ 기타 ( )
요청사항	① CCTV 설치 ② 가로등 설치 ③ 비상벨 설치 ④ 범죄예방 홍보 ⑤ 112차량 순찰 ⑥ 걸어서 순찰 ⑦ 112차량 순찰 + 걸어서 순찰 ⑧ 기타 ( )

**범죄 예방 활동**

18. 귀하는 최근 1주일 간 거주지역(읍면동)에서 경찰관이나 경찰차량을 대략 몇 번 보셨습니까?  
 ① 0번 ② 1~2번 ③ 3~4번 ④ 5~6번 ⑤ 7번 이상

19. 귀하는 거주지역(읍면동) 경찰이 어두운 골목이나 인적이 뜸한 장소에 대한 순찰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못한다 ② 못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 하는 편이다 ⑤ 매우 잘한다

20. 귀하는 하루중 순찰이 가장 필요한 시간은 언제이며 어떤 방법으로 순찰하기를 원하십니까?

20-1 순찰시간	① 오전 0시~3시 ② 오전 3시~6시 ③ 오전 6시~9시 ④ 오전 9시~12시 ⑤ 오후 12시~3시 ⑥ 오후 3시~6시 ⑦ 오후 6시~9시 ⑧ 오후 9시~자정
20-2 순찰방법	① 112차량 순찰 ② 걸어서 순찰 ③ 자전거 순찰 ④ 오토바이 순찰 ⑤ 112차량 순찰 + 걸어서 순찰 ⑥ 112차량 순찰 + 주민과 대화 ⑦ 위험한 도로나 지역에서 순찰차 정차 근무 ⑧ 기타 ( )

21. 지난 1년간 지역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거주지역(읍면동)에서 이웃과의 모임이나 단체를 통해 대책을 논의한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논의한 횟수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없음	1-2번	3-4번	5-6번	7번 이상
21-1. 경범죄에 대한 대책 논의 (쓰레기 무단투기, 시끄럽게 떠들거나 노래하기)	①	②	③	④	⑤
21-2. 강력범죄에 대한 대책 논의 (폭력, 강도, 살인, 도박, 성폭행 등)	①	②	③	④	⑤

22. 귀하의 거주지역(읍면동)이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곳이 되려면,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중복응답 가능)

- ① 안전시설이나 장치가 확대되어야 한다. (예: CCTV 설치, 가로등 밝기 향상 등)
- ② 경범죄 예방을 위한 외국어 안내문이 더 많은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예: 무단횡단 금지,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 ③ 범죄 예방 교육 관련 자료가 많은 곳에 배포되어야 한다 (예: 팜플렛, 책자 배포)
- ④ 학교나 주민 자치조직에 의한 범죄 예방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⑤ 경찰에 의한 범죄 예방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⑥ 외국인이 모여 있는 곳(직장, 교회, 지역 사회 등)으로 찾아가는 범죄 예방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⑦ 동네 주민의 자율적인 방법활동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
- ⑧ 경찰이 지금보다 순찰을 더 많이 다녀야 한다.
- ⑨ 동네 주민(외국인, 한국인)과 경찰, 행정기관(시청, 주민 센터 등)이 참여하는 치안 대책 회의를 자주 열어야 한다
- ⑩ 다른나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범죄를 줄일 수 있도록 거주외국인과 지역주민간의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생겨야 한다.
- ⑪ 우리 동네는 충분히 안전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대책이 필요 없다.
- ⑫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23. 보령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